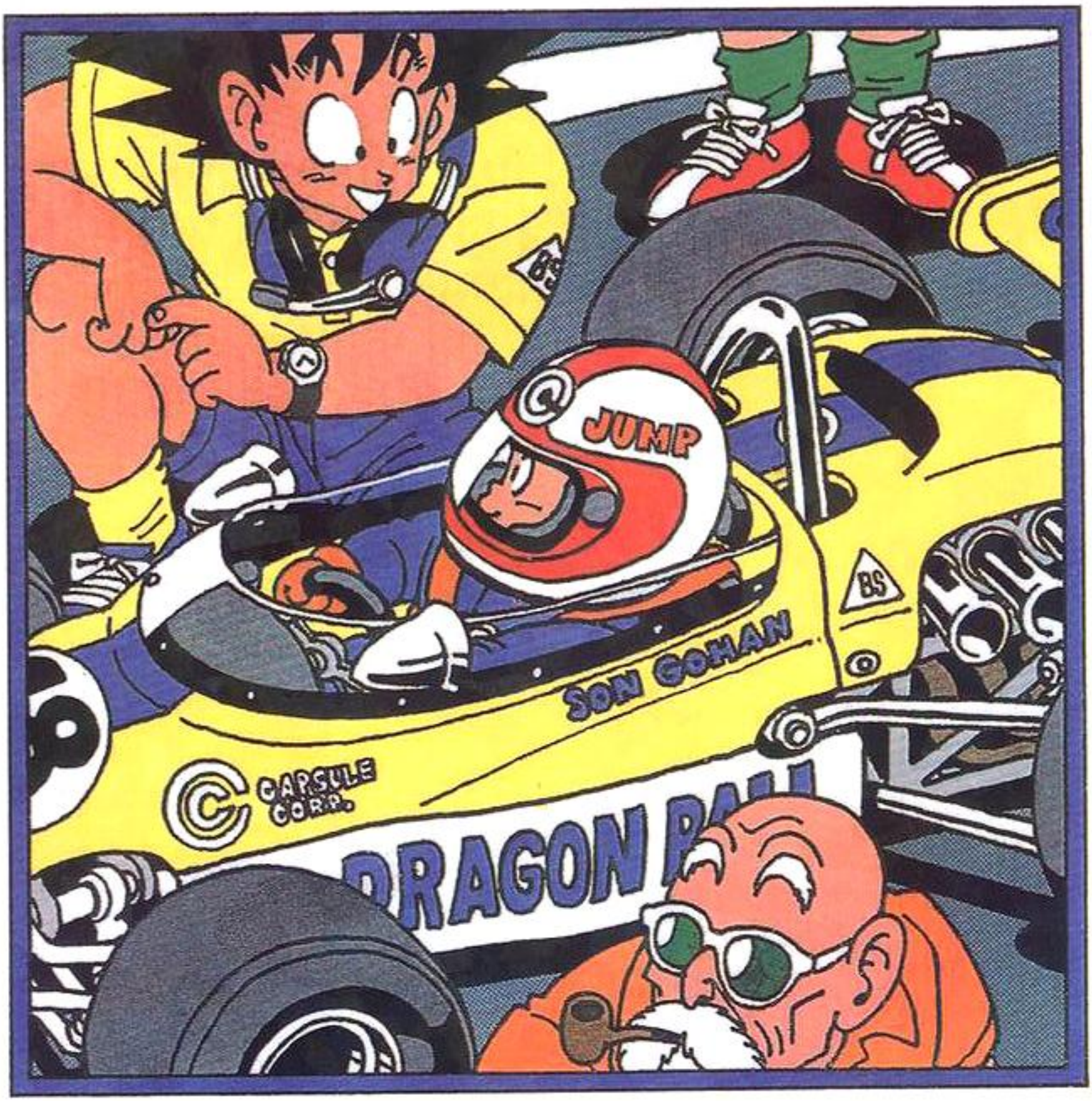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18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

raprnb

canned by raprnb



AKIRA TORIYAMA
-토리야마 아키라-

몇번이나 말한 적이 있지만, 아무튼 저는 추위에 약해서 겨울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곰처럼 동면을 하고 싶을 정도이고, 자주 스키를 타러가자는 등 권유를 받지만, 도저히는 아니지만 일부러 더욱 추운 곳 따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운 여름은 너무 좋아하여 가슴이 뛰기까지 합니다. 나의 만화도 거의가 여름 분위기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름은 최고!! …모기만 없다면요.

nned by raprnb



DRAGON BALL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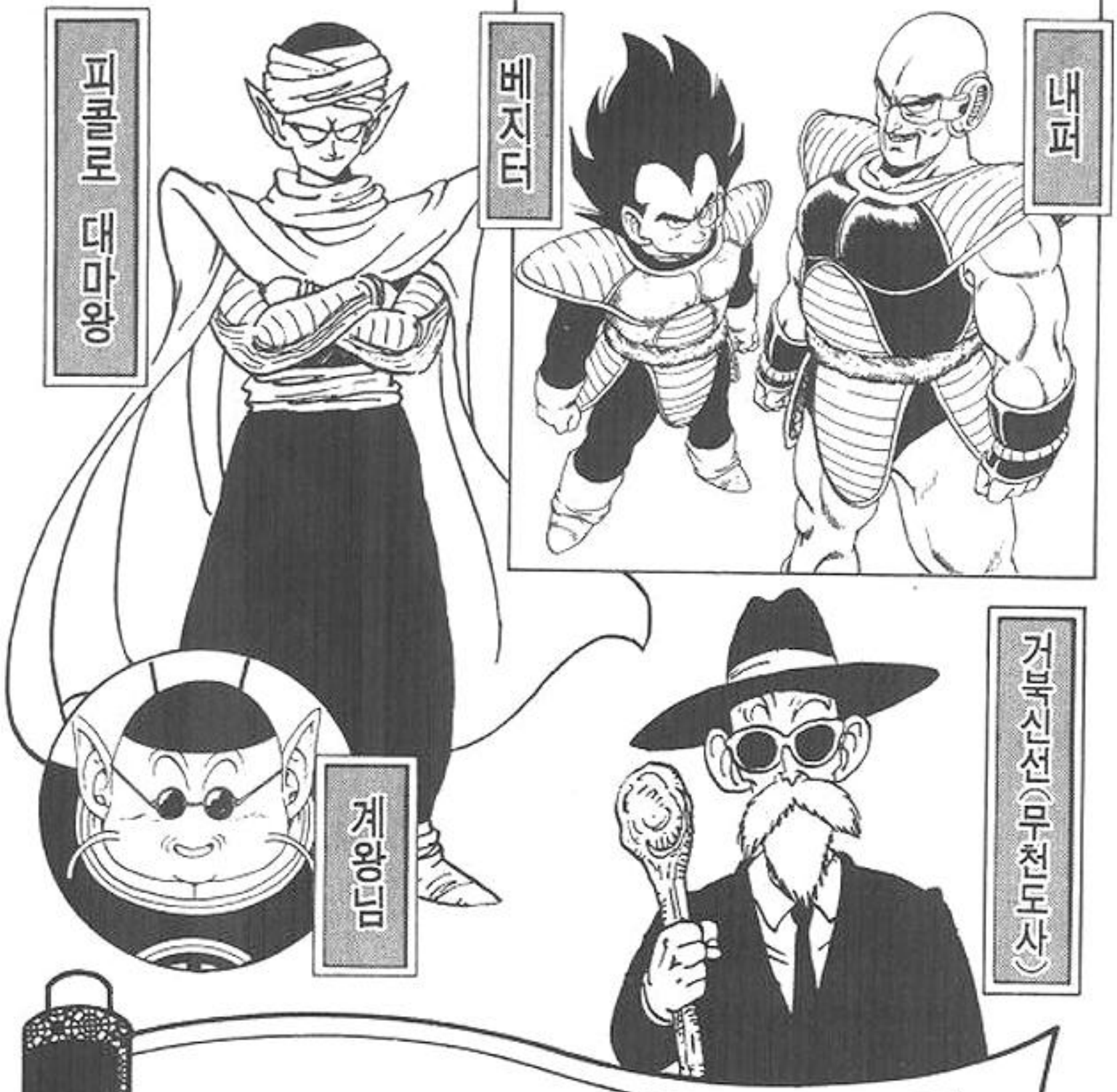
제18편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

AKIRA TORIYAMA

scar

등장인물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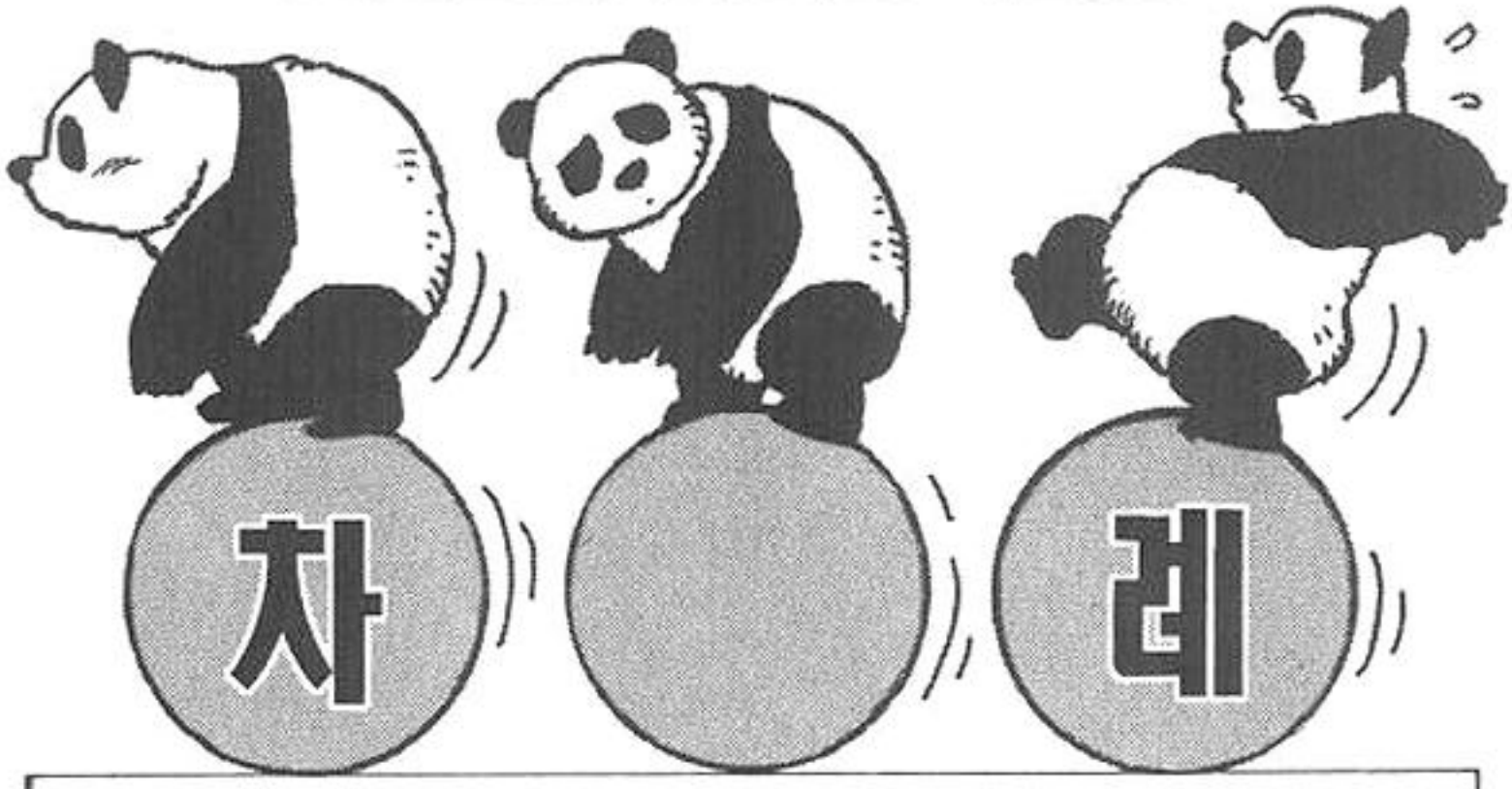


지난 줄거리

아주 먼 옛날. 7개가 모이면 용신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하던 손오공은, 대모험 끝에 모든 구슬을 모은다. 그렇지만 나쁜 곳에 쓰일 뻔했기 때문에, 엉터리 소원을 말해 버려 소원을 이룬다. 용신은 한 번 소원을 들어주면 1년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동안 거북신선 밑에서 수련을 쌓은 오공은, 다시 드래곤 볼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더욱 수련을 쌓은 오공은,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다. 하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는 피콜로 대마왕이 나타나 오공과 대결. 대격투 끝에 오공이 승리한다. 3년 후의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는 손오공이 마침내 우승한다. 그리고 5년 후, 새로운 적 사이어인이 출현한다. 오공은 피콜로와 손을 잡고 싸우지만, 죽어버리게 된다. 다른 사이어인의 내습까지 겨우 1년이 남았을 뿐인데… !!

DRAGON BALL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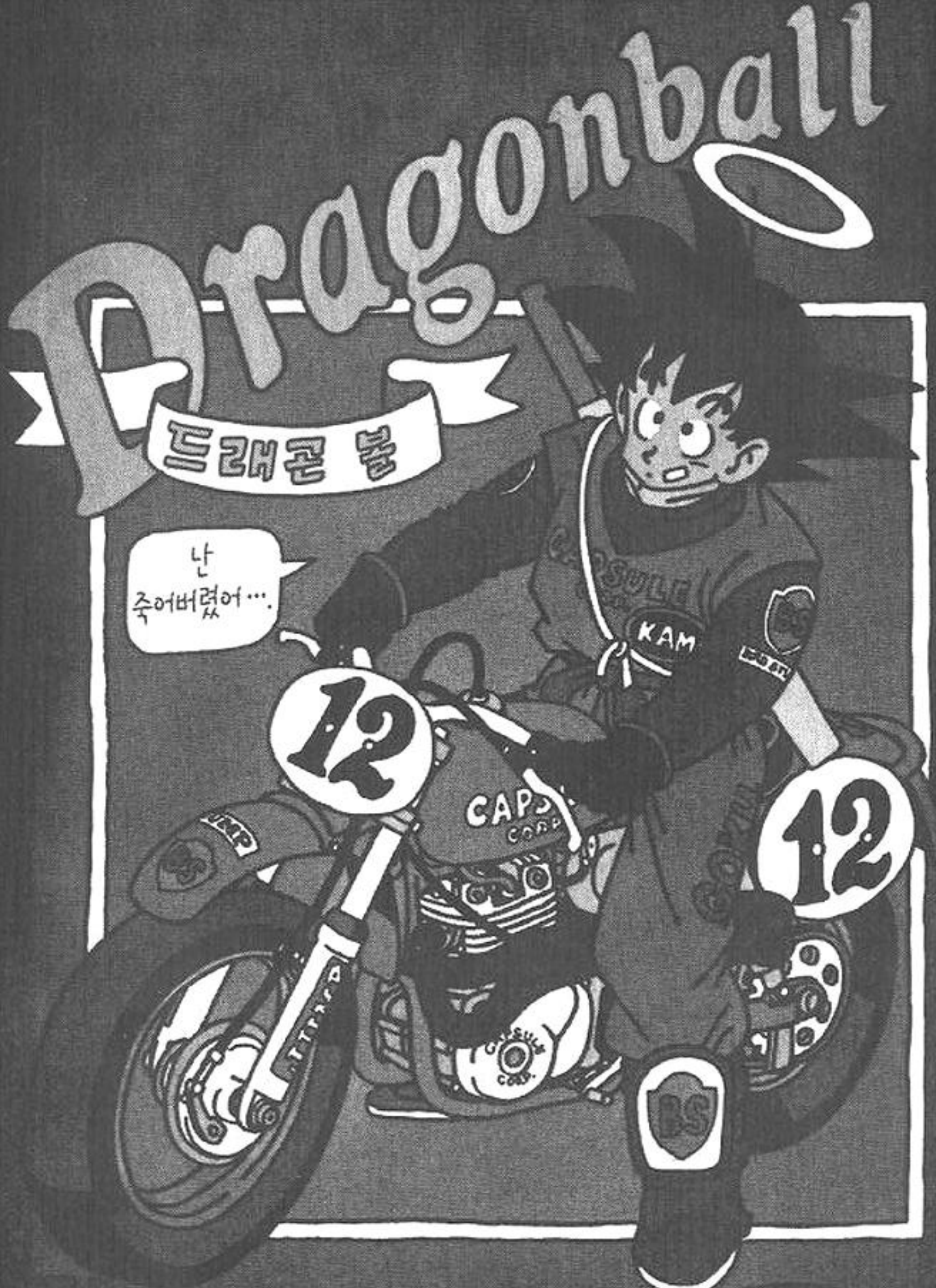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



제205화 저승에서의 파이트!! …… 7
제206화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 …… 22
제207화 울부짖는 손오반 …… 36
제208화 보름달 사건 …… 50
제209화 각자의 1년 동안 …… 64
제210화 부자 2대의 거친 수련 …… 78
제211화 계왕님과 열심히 수련하는 죽은 손오공! … 92
제212화 사이어인의 접근!! …… 106
제213화 사이어인의 침공!! …… 120
제214화 베지터의 게임 …… 134
제215화 야무치의 예감 …… 148
제216화 두려움에 떠는 전사들 …… 162
표지 페이지 대특집 XVII …… 177

Dragonball

드래곤 볼



제205화
저승에서의 파이트!!

鳥山明
BIRD STUDIO

그…
그래도
신님이 가져갔다니
안심해도
될 거야….

왜…
왜 그랬지…?

뭐…,
오공의
시체를
신님이…!?

자기가
쫓아낸
거잖아…?

나참~!
이런 중요한 때에
야무치 애들은
어딜 간
거야!?

오공을
살려내야
해.

어쨌든 빨리
다른 6개의
드래곤 볼을
다 모아서….

뭐?

놈이 얼굴에
부착한 이상한
기계 덕분이지.
상대의 파워나
장소를 알아낼
수 있나봐….

!?

그런데
그 오공의
형이란
사람….

어떻게
우리가 있는
곳을 쉽게
알아냈을까….

……

크리링, 저것 좀 갖다줘….

어… 어디 볼까…?

그… 그래…. 설마 살아나진 않겠지….

좀 고장은 났지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한 기계네! 이거….

부르마 정말 대단하다….

그래…, 그래….

흐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머…!

찌찌 칵칵 삐삐!

그럼 나는 지금 즉시 드래곤 볼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래. 여기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쨌든 우선 거북하우스로 돌아가자.

이걸 가져가서 연구하고 개조하면….

아무치나 천진반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피콜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우우우 우우…!
우아아…!!
쑥
꿈틀…
꿈틀
휴우!
……
우엑…
도… 도마뱀 꼬리 같아…

하지만 그 손오공의 아들은 내가 맡겠다!

너희들은 드래곤 볼을 찾아라. 신이란 자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의 능력은 없으니까….

미쳤냐!?

너, 너! 잡아 먹을 생각이지?

아, 알았다!

아니, 뭐!?

마…, 말도 안 돼…! 도대체 어쩌려고….

1년 후에 온다는 두 명의 사이어인과 대적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해….

그 오반이란 꼬마는 훈련만 잘 시키면 강력한 전력이 될 거야.

그러기 위해선 내가 수련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

자꾸 잔소리하면 너희들을 처치하고서라도 데려갈 거야!

그럴 시간 여유가 없어!

으음…. 오공이나, 엄마 찌찌에게 물어본 다음에….

조…, 좀 곤란한 문제인걸….

마…, 맞는 얘기지만 ….

휘잉

아… 아니…!

나, 난 몰라! 책임 없다구!

…….

쟤… 쟤 혹시 죽을 지도 몰라…. 운이 좋아도 비행소년 될걸….

손오공이 살아나면 기대하고 있으라고 전해줘.

그럼 1년 뒤에 이 꼬마와 함께 너희들의 집으로 가겠다.


저승…


오…
오공이랑
찌찌가
화낼 텐데….


자자! 혼 여러분!
확실하게 줄 서서
들어가주세요!
WELL COME
자! 거기, 당신!
2열 만들지 마!
정확하게
1줄로 서주셔!
와글
와글
와글

염라대왕님,
부디 이 녀석이
계왕님한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련을
시키기 위해
몸까지 함께
온 겁니다.

神

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
뱀의 길을 지나
계왕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냐?

으음~! 그래….
손오공이라….
분명 네 공적이
훌륭하다만….

염라대왕

예!

저, 저기. 죽으면 모두 여기 오는 거야?

우주인도?

그래.

으음, 넌 원래 우주인이었지? 죽은 사람은 모두 여기서 천국행이나 지옥행이나 하는 심판을 받지….

저, 그럼 바로 앞에 라데츠란 사람 왔었어?

응?

야, 암마…! 「왔습니까?」라고 해야지!

아, 그래. 분명 왔었다. 네 형이지? 그 녀석은 당연히 지옥행이었어….

괜찮 행패 안 부렸어?

난리 법석을 떨었지. 하지만 내가 얌전하게 만들었어.

와-!

CLOSED

너, 굉장 하구나…!

그런 무서운 애를….

너 죽으면 지옥행을 시켜줄까 부다…!

훙-! 다 들었다, 지구의 신아!

쉿-! 목소리가 너무 커…! 염라대왕님에게 그런 말투 쓰면 안 되지…!

나 이 아저씨한테 수련시켜 달랠까나!?

잠자코 있어…! 계왕님은 훨씬 강하다구.

그렇게 소원이라면 계왕님 있는 곳으로 가도 좋다.

좋다!

녀석, 지옥가긴 싫은가 보군.

…….

여, 역시 대단한 귀네! 이거 정말….

요, 용서하세요! 서, 설마 이런 얘기까지 들릴 줄은….

안내인을 불러줄 테니 저쪽으로 나가서 기다려라.

가, 감사합니다!

염라대왕

단 뱀의 길에서 추락해도 난 책임 안 져.

그럼…,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1년이 중요하다구.

그래!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계왕님이란 사람 만나고 올게!

고마워! 미스터 포포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근데 정말 우리 지구를 엄청난 놈들이 노리다니….

이번엔 진짜 위험할지도 몰라….

용신에게 말살을 부탁한다 해도, 용신의 힘으로는 그 사이어인들의 엄청난 파워에는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고….

손오공도 계왕님에게 수련을 받는다 해도 과연 얼마나 늘지는 모르는 일….

중얼

중얼

단 하나의 희망은 오공의 아들, 손오반이야. 피콜로 너석이 그 애를 어떻게 키워줄까…?

시끄러!!

걸리적 거리지 말고 빨리 꺼져!!

옛!

염라대왕

빠아아앙

아니…, 난 죽었으니까 몸 컨디션이 좋을리가 없잖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뱀의 머리 부분까지 안내하겠습니다. 뱀의 길은 매우 위험해요. 몸은 건강하십니까?

다 왔어요.

자!

예, 계왕님은 전 우주의 신님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그런데 계왕님은 어떤 사람이지?

이 뱀을 따라 계속 가세요. 계왕님이 계신 곳까지 통해있습니다.

히익~! 이게 뱀의 길이야…!? 어떻게 해야지?

우와…! 엄청 길다….

예, 소문에 따르면 거의 백만km래요.

뭐!? 배, 백만 km…!?

그, 그런 길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어!?

최근 1억년 동안은 염라대왕 단 한 분 뿐이신 것 같은데요….

그 아저씨 말이지….

하지만 뭐, 통과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쩜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구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구름 밑은 지옥이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첫~! 큰일이군…. 도시락이라도 싸올걸….

걱정 마세요. 손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가…?

잘 됐다! 다음에 오면 1년 동안은 나를 다시 살려내지 말라는 얘길 거북신선 할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해줘!

예, 이따금 오시긴 하는데….

아, 맞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점쟁이 바바라고 알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거북신선 님한테… 말이죠….

자, 가볼까!

펑

어쨌든 뱀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예, 부디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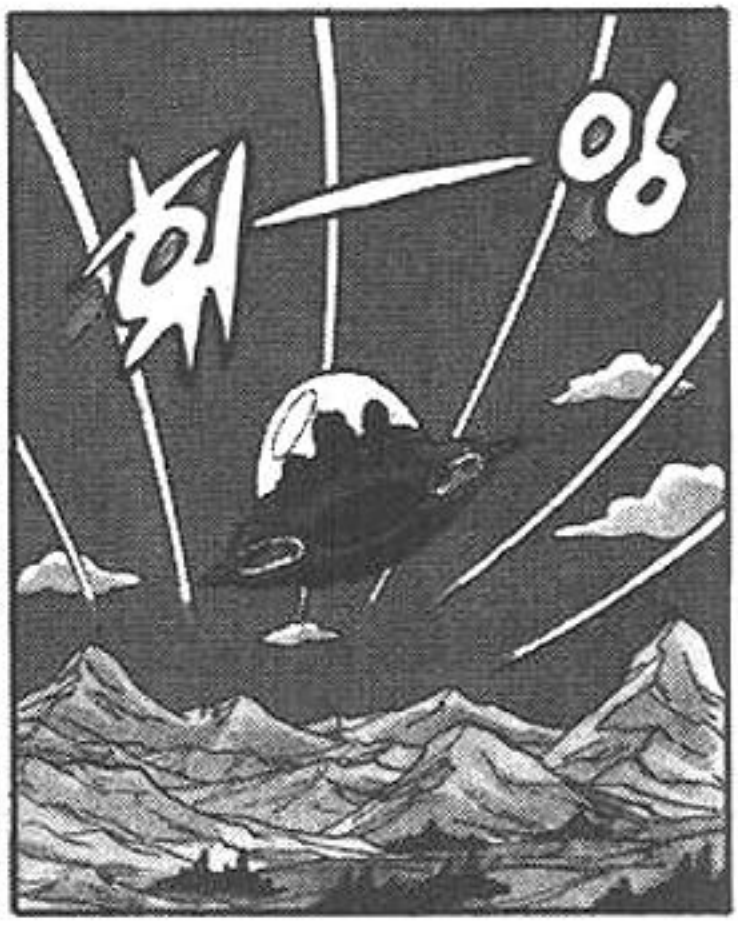
무공술—!!

앗!

휘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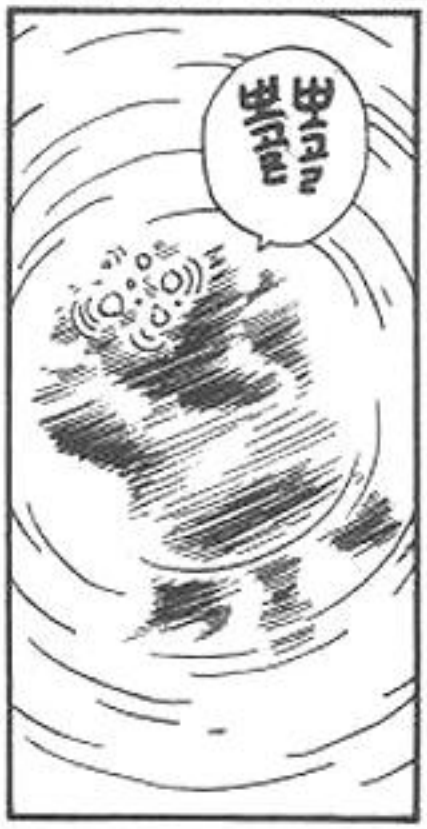






다음은, 제206화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


휘....잉
이제 그만 깨어나라, 손오공의 아들아.
첨벙...


뽀글뽀글


첨벙


쳇!


쿨럭!
쿨럭!


푸앗!


엥!?
할 얘기가 있으니 물에서 나와.


!?
헉헉!

누,
누구지
…!?

흑!!

첨벙
첨벙

아빠-!
어, 어디
있어-!?

살려
줘-!!

아,
아빠
…!?

!!!

무서워~
!!

으아앙-!
아빠~!

철썩
철썩

귀찮게
굴지 마!

아앙-!

으악!

빌어먹을
꼬마가….

쳇….

조용히 안 하면 목을 꺾어버릴 테다!

제발 닥쳐!!

으아앙~!
으아앙~!

먼저, 네 아빠는 죽었다!

아까 봐서 기억하겠지만, 그 라데츠란 놈을 쓰러뜨리기 위해 희생된 거야.

흑!

흑!

알았지? 내 얘기 잘 들어….

!!

아… 빠….

아….

제발 그만 짜! 진짜 혼내준다!

훌쩍!

훌쩍!

널 유괴했던
그 무서운 놈은
겨우 처치했지만,
1년 뒤에 그놈보다
더 무서운 동료들이
두명이나 온대.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냐!

드래곤 볼 얘긴
아빠한테 들어서 알지?
오공 녀석은 분명
친구들이 그 구슬을
모아서 살려줄 거야….

네 힘이 필요해!
너도 수련해서
전술을 익힌 다음,
함께 지구를
지키자!

그렇게 되면
오공이 살아난다
해도, 나랑 오공
둘만으론 그놈들을
물리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수련을 해서
파워를 끌어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너의
숨겨진 파워는
상당히 강하다!

세…
세상에나…!!
나…, 난
전혀 싸울 줄도
모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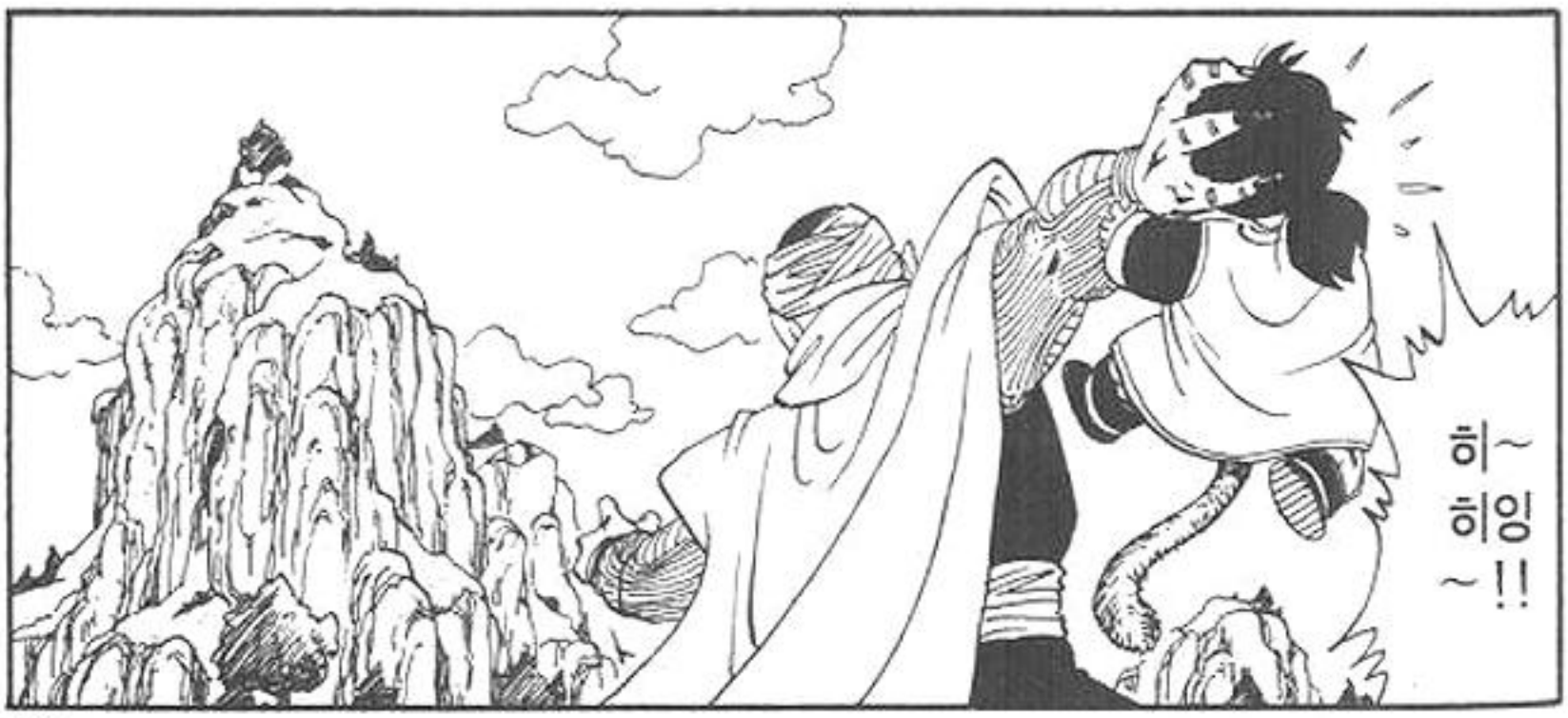
엥!?
내…
내가…!?


증거를
보고
싶니?


나…
나 같은 게
무슨 힘이
있다고….
거…
거짓말….


그만!
제발
놔줘!
아,
아야!


덥썩
무,
무슨
짓이야!?


히~
히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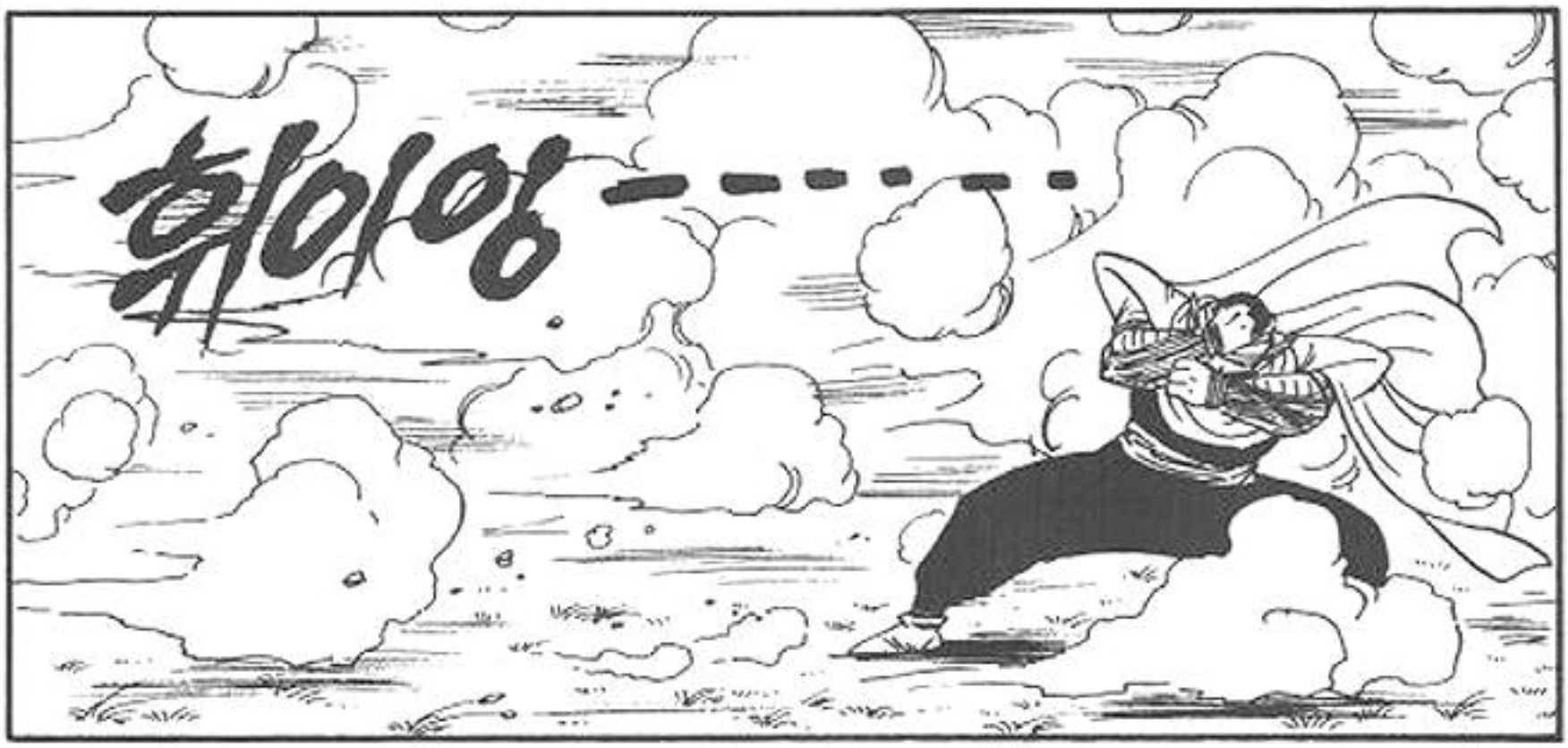
으악—!!
아악!!
으악!!
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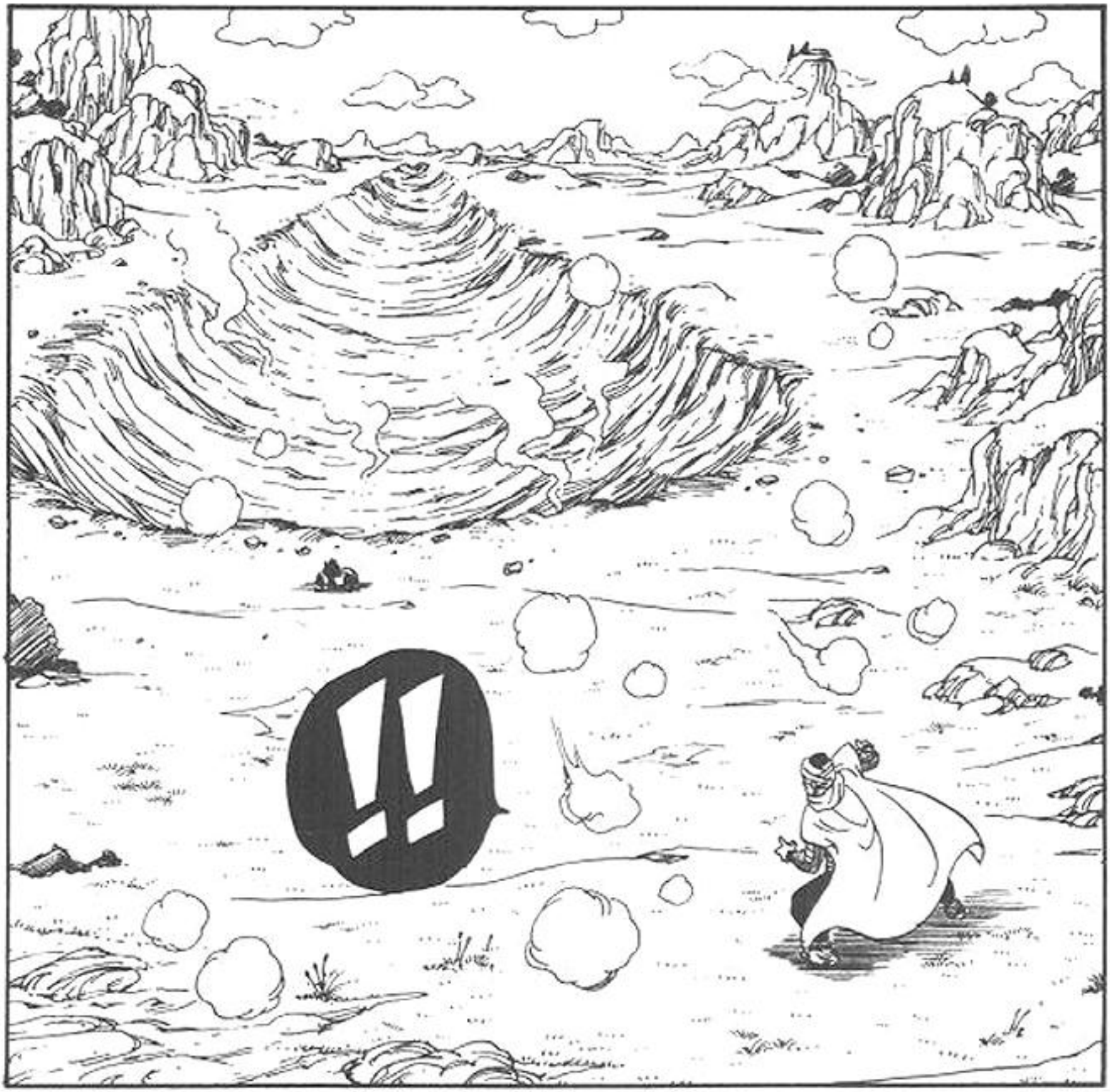
아니면
바위에
부딪쳐서
죽어버려－!!

자,
숨겨진
힘을
보여줘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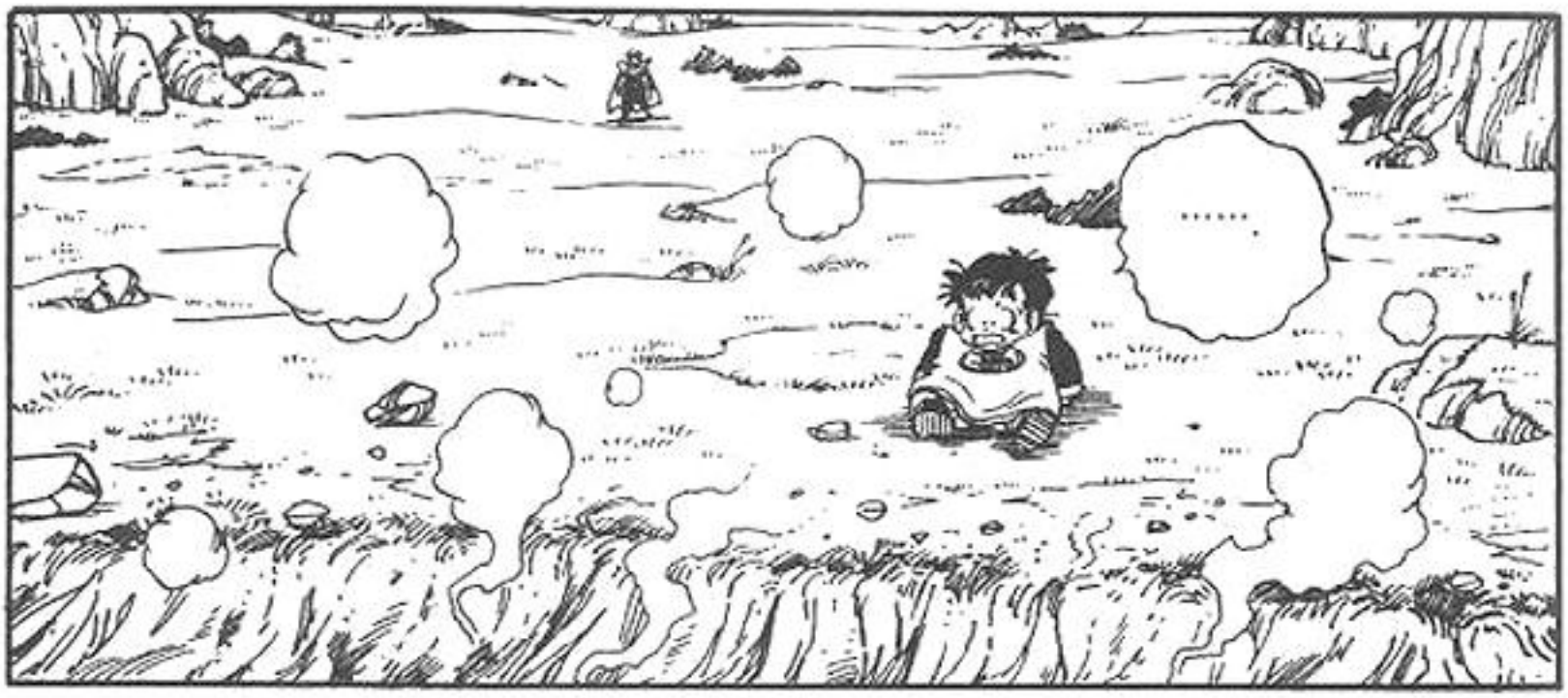





헤이양-----




이, 이럴 수가…!
이 녀석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이게
내가
한 거야…!?
그래,
이제 겨우
알겠니?


나는 앞으로 더욱더
무서운 적이 될지도
모를 놈을
키우려 한다….
머리속이
복잡하구나….

넌 감정이 상당히 격해졌을 때만 본래의 숨겨진 힘을 발휘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아주 순간적일 뿐야. 그래선 이길 수 없어….

내가 전투방법을 가르쳐서 최강의 전사로 만들어 주마. 알았지…?

그… 그치만 나….

무술가 따윈 되고 싶지 않아…. 후…,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어….

그것도 좋지. 하지만 1년 뒤에 오는 두 명의 사이어인을 쓰러뜨린 다음에 해.

놈들은 지구인을 멸망시키려한다. 그렇게 되면 장래고 뭐고 말짱 꽝이야.

그… 그래도 난… 무서워….

자꾸 칭얼대지 마! 당장 죽고 싶냐!?

시간이 없어! 어서 시작하자! 빨리 웃옷 벗어!!









다음은, 제207화 울부짖는 손오반

수…
수련이란 거…,
어떡하면
되는 거야…?

너 혼자
여기서 무사히
살아 남아
보라구.

그래.

엥… !?
사, 살아
가다니… !?

그냥
살아간다.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시, 싫어!
나, 난 쓸쓸해서
죽어버릴
거라구!!
6개월씩이나
나 혼자
이런 데서…!?
전투
방법을
가르쳐
주마.


6개월간 어떻게든
살아 남아서
우선 강인함을
길러라.
잘 들어!
지금 너한테는
투정부릴
시간 따윈
없어!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
으로도
말야!


후후후…
쓸쓸하긴 뭐시기
이 근처엔 피
맹수들이 우
거리는
말, 말도
안 돼—
무, 무서
날 데려가


이 지구의
운명의 열쇠는
네가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신의 파워를
믿어! 그리고
파워를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야 해.
그,
그치만
나는…!

자, 그럼.

아참! 그리고 여기서 도망칠 생각 따윈 하지 마라. 주변은 지옥의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이니까….

여기가 천국처럼 보일 정도의 지옥의 세계다….

자, 잠깐!

먹을 건 어디 없어!?

목욕탕은!? 침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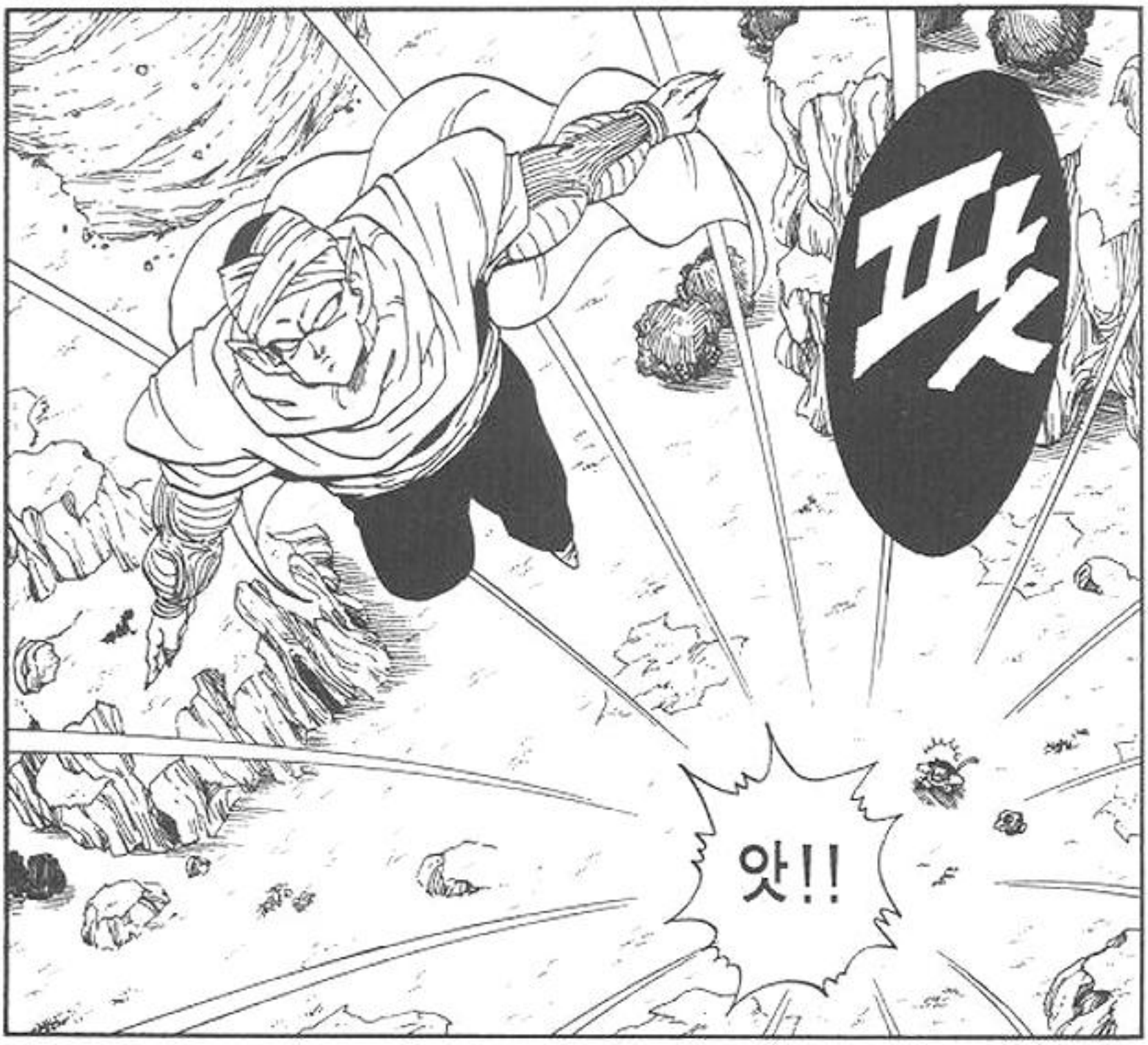
그런 게 있을 것 같냐?

아직 배가 덜 고픈 모양이군….

……

그… 그건 너무해….

원망하려면 네 운명을 원망해라…. 바로 나처럼….


퍽
앗!!


으아앙-!


기다려-!!
무서버-! 날 데려가 줘!

……

신님,
좀 이상
하시네….

우슨 일
있으세요?

神

포포도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의
대마왕이라면
손오공 아들을
수련시킬
이유가 없는데
….

악인 건
틀림 없는데
옛날처럼 교활하고
비열한 면이
없어진 것 같아….

피콜로 녀석,
역시 전과는
좀 달라….

그리고 눈치채고 있을 지도 모르지….

내 목숨…, 즉 그 피콜로의 목숨도 앞으로 겨우 1년 남았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라면 마족에게 죽은 자의 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허공을 떠돌았을 텐데…, 근데 라데츠가 죽어서 저승에 있다는 건 분명 피콜로가 예전과는 틀리단 증거지….

피콜로가 묘하다고 확실히 느낀 건, 피콜로에게 죽은 그 라데츠란 손오공의 형 영혼이 분명 저승으로 가버렸다는 걸 알고부터야….

아니면 내 수명이 바로 그때쯤 끝나기 때문인지….

1년 후에 오는 사이어인이란 놈들에게 피콜로가 죽기 때문이지….

앞으로 1년….

……

뭔가를 남기고 싶은지도 모르지…. 비록 그게 손오공의 아들한테 주는 거라도….

놈도 분명히 그걸 느끼고 있을 거야….

나의 죽음은 피콜로의 죽음이고, 피콜로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

후후후…, 신이라 해도 죽을 때를 안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닌걸….

그래…. 앞으로 딱 한 번 뿐이야….

그럼 드래곤 볼을 쓸 수 있는 것도….

무서워~!

으아앙~!

훌쩍 훌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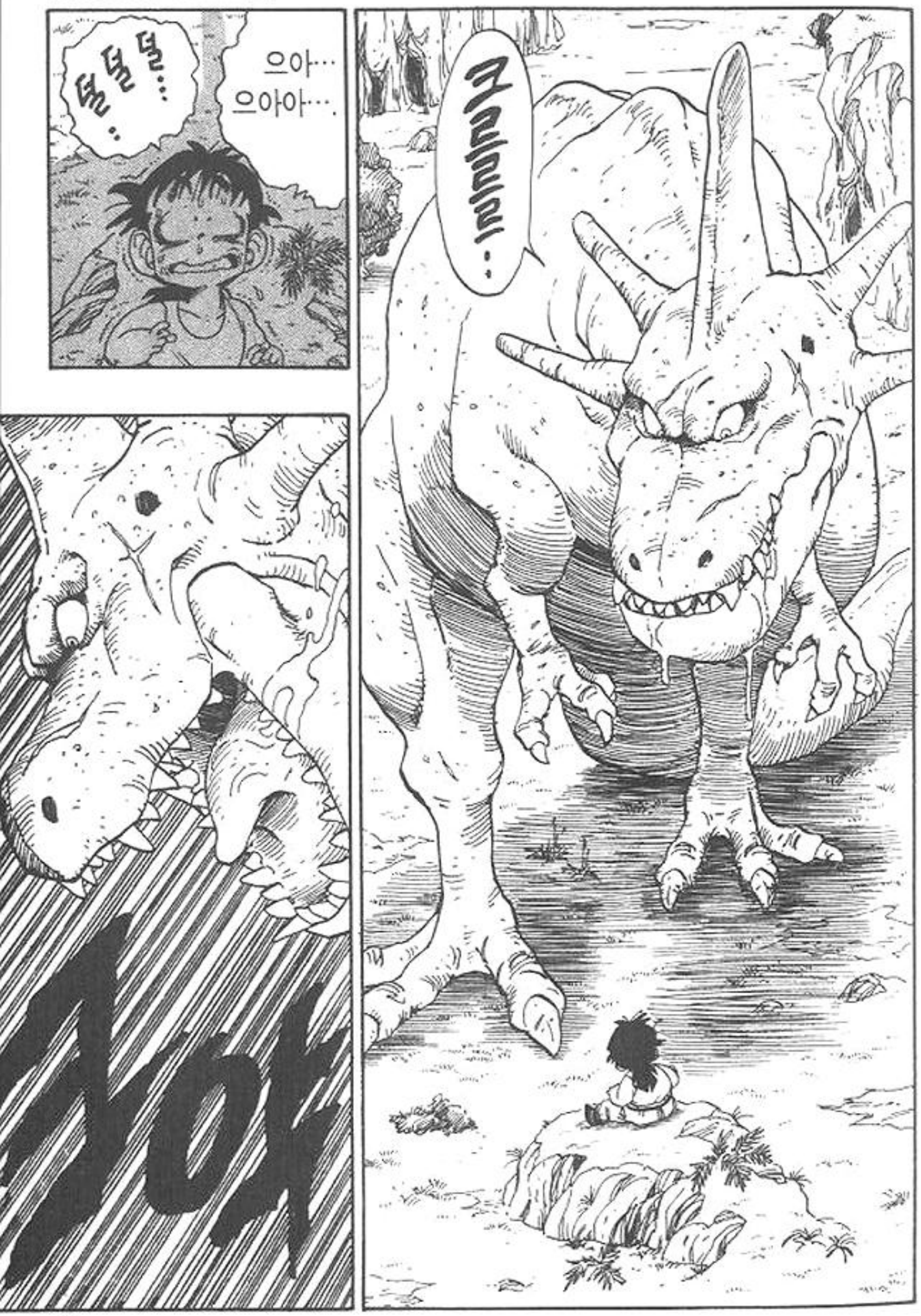
!!

쿠웅

훌쩍…

쿠웅

쿠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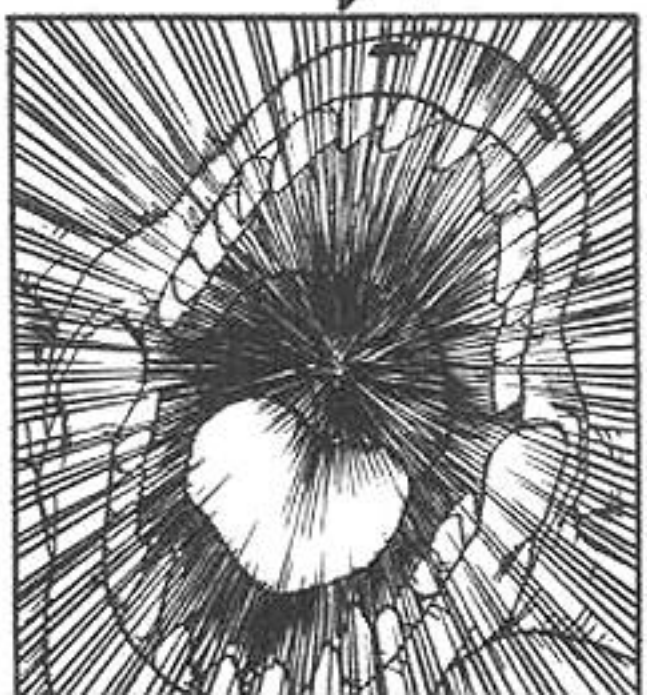

크르르르…
으아…
으아아….
덜…
덜…
NOK

으아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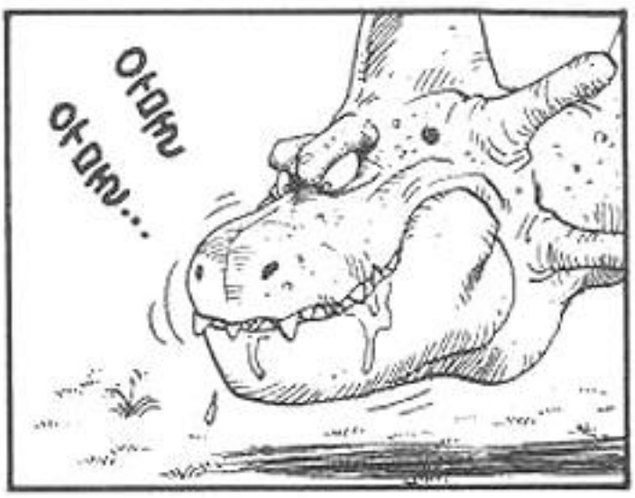
콰랑 콰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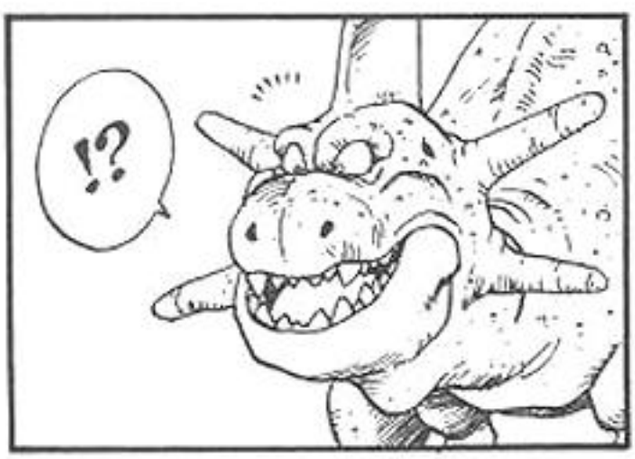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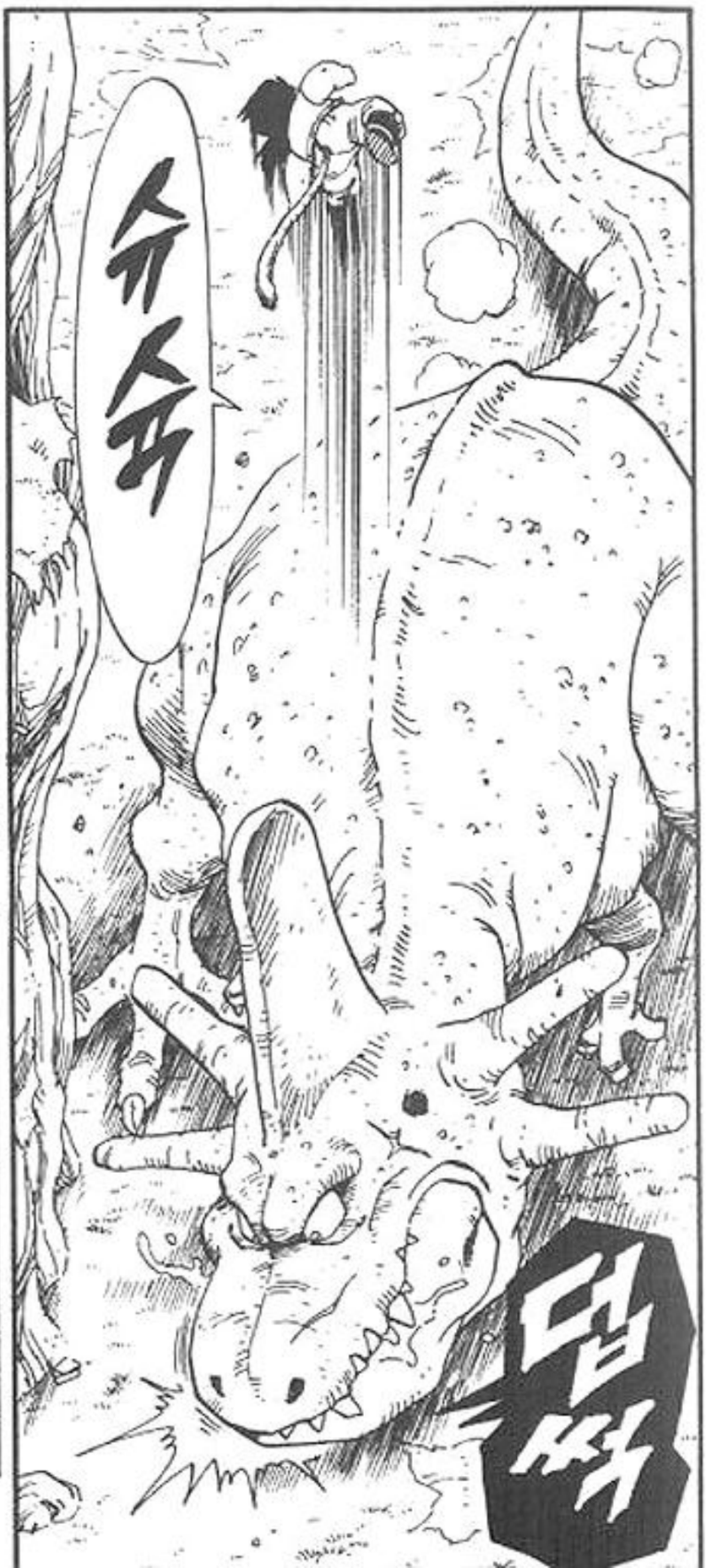



!!


아아아
아아아...


!?


?
?


슈슈슈
덥석

헉!
헉!

헉!
헉!

휘이이잉…

가르
르르…

?

?

헉…

…!?

으앙-!

내려갈
수가
없어~!

훌쩍
훌쩍…


무서워~.
배고파~.
쪼르르륵…
엄마 보고 싶어…. 이러다 죽겠네….
!?
앗!!
사과 다!!
사과가 떨어져 있어!
야호!
!
?
?

너무 맛없어~!

어휴~ 셔~!

쩝쩝 쩝쩝

쩝쩝 쩝

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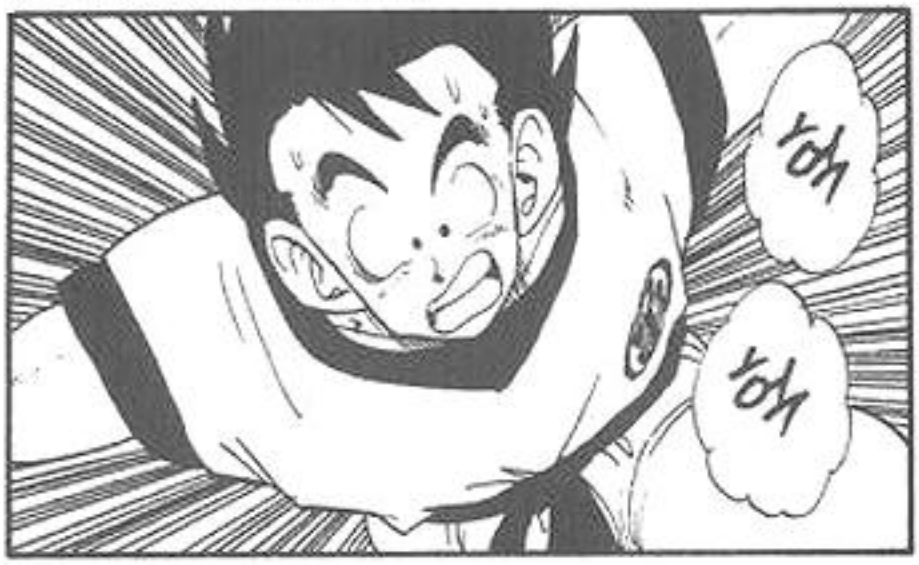
뭐, 상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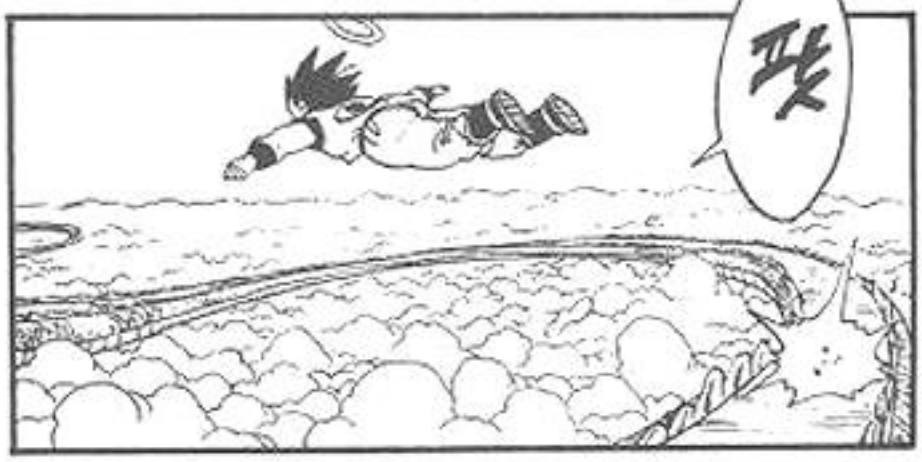
빌어먹을 꼬마 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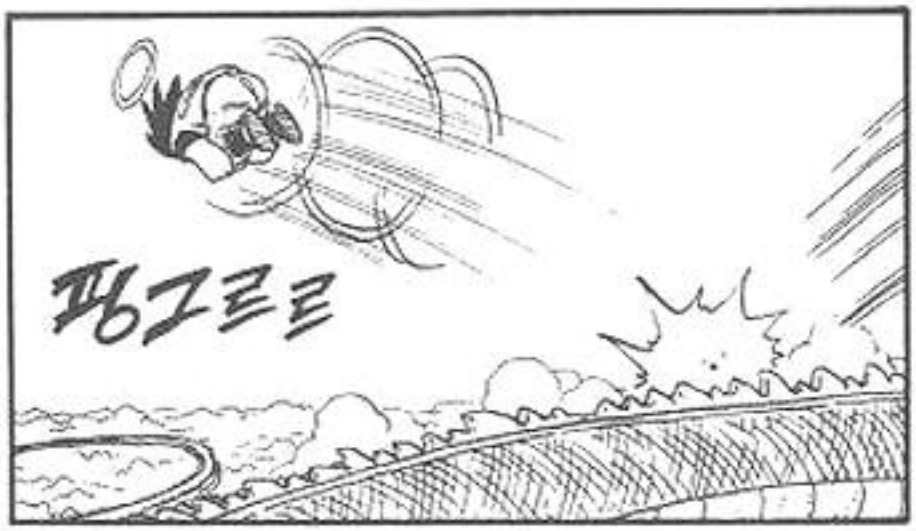
정말 사람 귀찮게 하네….

피자 먹고 싶어잉~!

쩝쩝쩝…











다음은, 제208화 보름달 사건


음냐
음냐…




슬적…


에
취!


쿨…
쿨…


쉬!


!?


벌떡…


난 이런 높은 데서 내려갈 자신 없어….
이젠 어쩌지….
그치만 계속 여기 있다간 굶어죽을 텐데….


오줌 누냐…?


흘쩍
왜 이 신세가 된 거야…?

아!

그런데 밤이 왜 이리 환한 거야….

어라…?

?

어…?

……

두근

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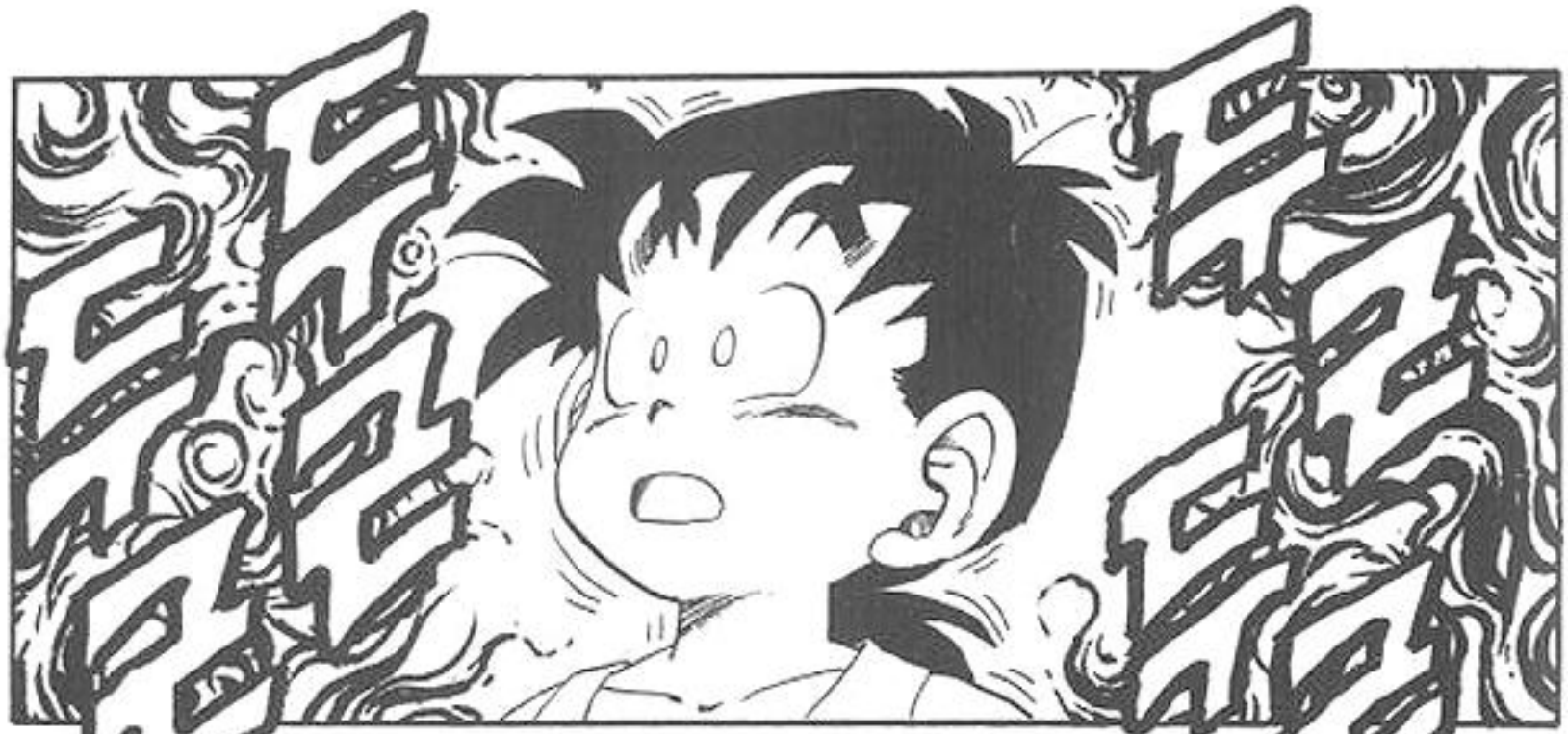
두근

두근

두근

달님이다!

와~! 공처럼 둥글다! 난 보름달 처음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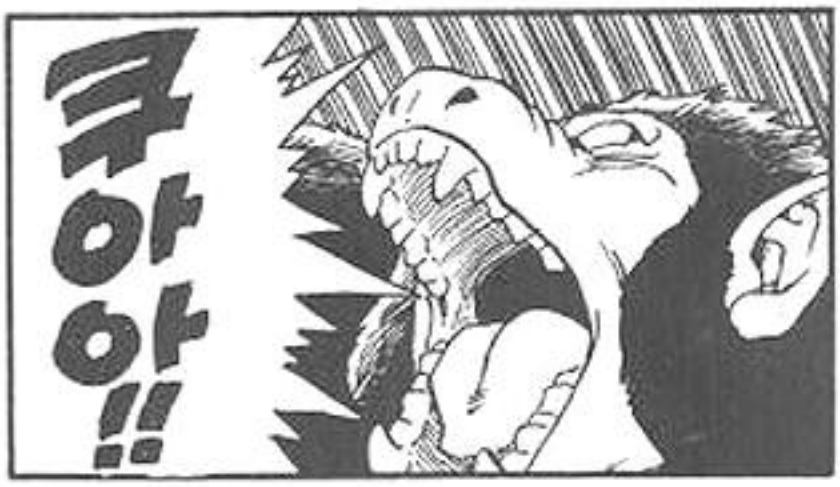



크아아
아악!!


콰직
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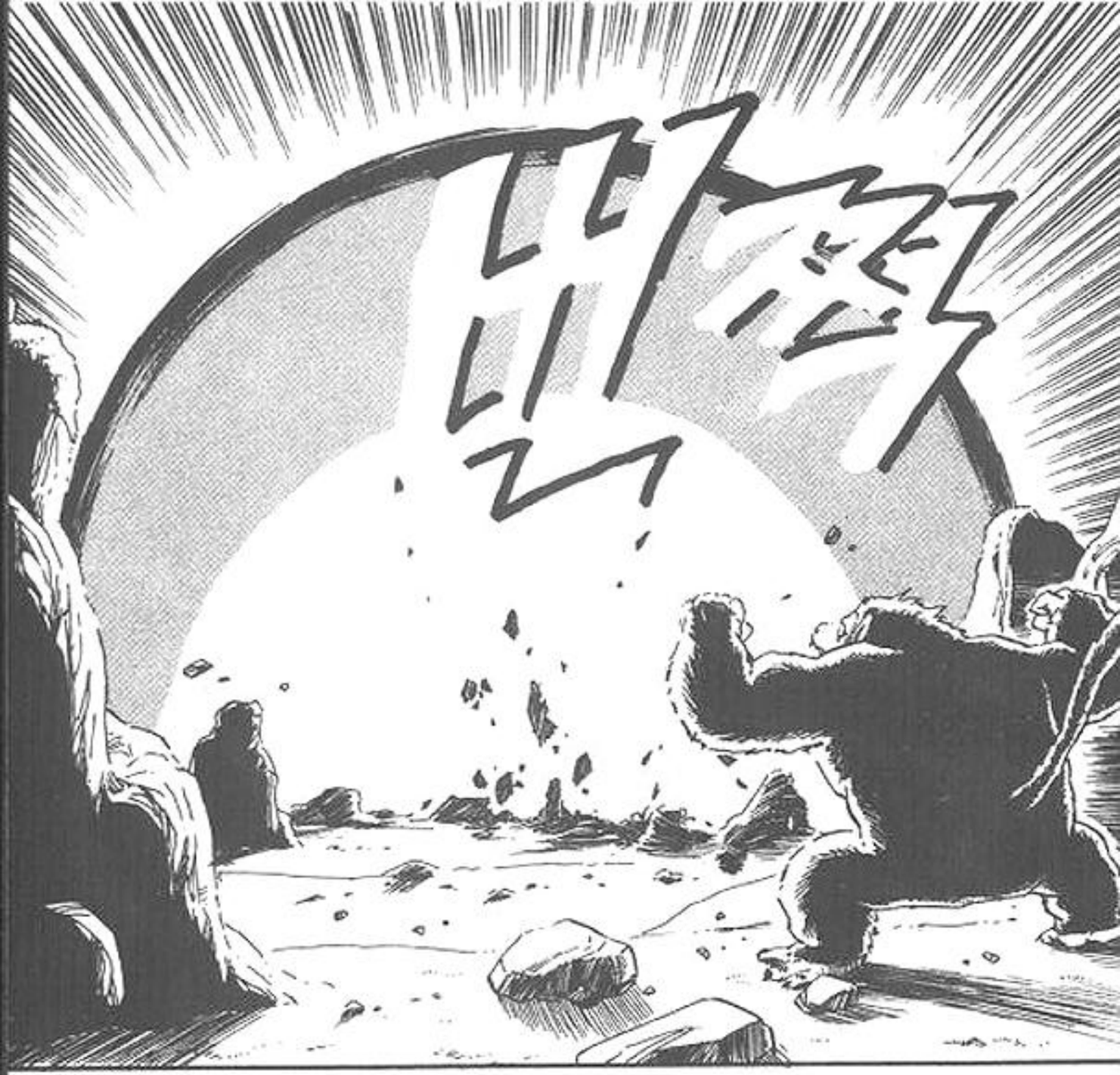

아앗!?
저… 저런…!
쾅
쿠르르…


파팡


큐아아!!


와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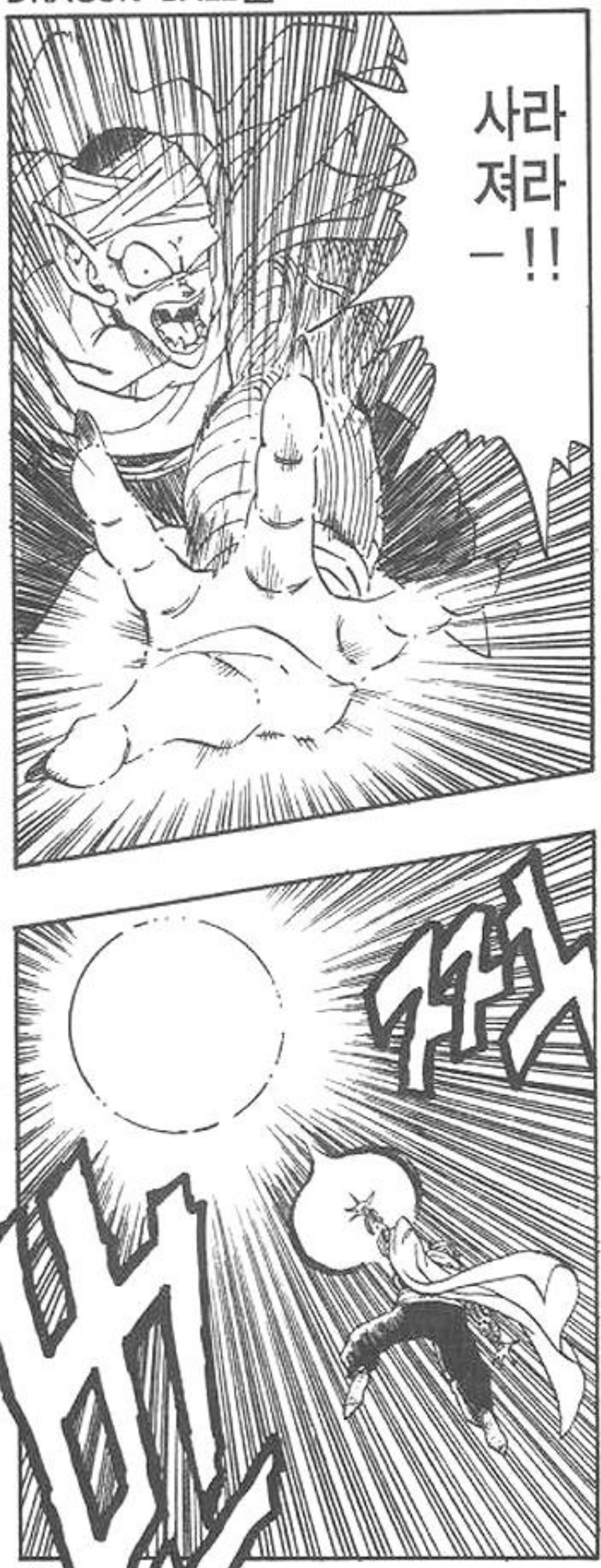

쿠아앙


빠앙


크윽!!



쾅
쾅
!!
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엄청난 파괴력이다…!!
이, 이러다간 사이어인이 오기도 전에 지구는 파멸 당하겠어…!
멍청한 놈…. 달이 완전한 원으로 될 때야말로 우리 사이어인의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구!


사라져라—!!


맞아!!
보름달이다!!


ヌ
ヨ…
쑥—!…
털썩..

타닥

이 녀석과 손오공이 강한 이유를 알겠군….

서…, 설마 변신을 하다니…. 역시 사이어인의 피인가…?

헉헉

헉…

사이어인 놈들이 저런 괴물로 변한다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달을 없애 버리길 잘 했어….

녀석이 꼬리가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변신하기 위해선 보름달과 꼬리가 필요한 것 같아….

꼬리를 떼어 버릴까…?

이제 이 상태론 걱정은 없지만, 아무래도 사이어인은 꼬리가 약점인 것 같으니까….

뚝

됐어….

옷과 칼 정도는 서비스로 줄까나…?

네놈 아버지와 같은 디자인으로 해주마.

빗

후후후…! 글씨는 좀 다르지만….











다음은, 제209화 각자의 1년 동안


부아아앙....

부아앙.....!!
아빤 잠자코 계셔!
찌찌야, 너무 열받지 마....


반가워서 서로 쌓인 얘기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니까....
오공도 오랜만에 거북하우스에 간 거잖아....


밤까지 꼭 돌아오겠다고 했으면서...!


아빤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제부터 세상 행복은 성적순이라구!
그, 그만 좀 극성 떨어! 오반은 이제 4살이야...! 하루 정도 학원에 안 기도....


오반은 학원이 있잖아!
오공이야 그래도 되지만....


딸깍 딸깍
찰칵 찰칵…


KAME HOUSE


!!
삐삐빡-


찰칵
찰칵




쿨…
쿨…
……


드디어 완성 했어!!


두타타타탕…!!
대체 이거 뭐야!? 남은 밤새 철야 하는데!
아주 팔자좋게 잠이나 자고 말야!!
……
거북 영감님, 잠깐만!
일어 서봐.
찰칵
거… 거북 영감…?
알기 쉽게 표시 문자를 바꿨어….
어디…, 139…!
삐빳!
이게 무천도사 님의 전투력을 표시하는 숫자야!

우와!
206
이라니!

크리링
은….

부, 부르마!
난 얼마 정도
나오나
봐줘!

139…!
우와~!
대단한 기계네.
그런 걸 알아
내다니…!

사이어인이 끼던 이 기계의
장점은, 전세계 어느 곳에
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그 위치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야….

삐삐
삐삑…

야…, 그거
고장
아니니…?

이야! 정말
무천도사 님보다
높네요!

206?!

저쪽에
177….

그럼
그건,
야무치
인가…!!

천진반
이야!!

알았다!

…앗!?
여기서 3천km정도
지점에 250이
있는데!

누굴까!?

250!?

어…!
329…!?

빳!

죽이는데…!
누…
누굴까…?

그건
피콜로
겠지….

아,
맞다!

그, 그럼
오반도 거기
같이 있을
텐데…!

구, 구하러
갈까요?

아니,
됐어….

피콜로가
오공의 지식을
데려간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겠지…!

그리고,
가봐야 피콜로를
상대할 수도
없고!

……

329니까…,
죽기 딱
알맞네요….

그치만…,
이제 아무치
애들이 있는
곳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흩어져서
찾으면 남은 6개의
드래곤 볼 정도야
금방 모을 수 있어!
그러면 즉시 손오공을
살려낼 수도 있고!

이리 오너라!

어흠!

야지로베다, 이 돌대가리야!

너, 입부러 이름 틀린 거지?

앗! 너, 넌 분명 카린 님과 같이 있던…, 그러니까 아루마지로!

나다.

누구지? 요상하게 사람을 부르는 건….

꺼억…

모든 사정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랑 야무치란 애하고…, 천 거시기하고, 챠오즈 뭔가 하는 애들 빨리 오래!

난 카린 님의 부탁을 받고 말을 전하러 왔어!

이런 데다 집을 만드니까 찾기 힘들잖아!

뭐!?

왜지?

누구?

뭐? 모두 카린탑으로?


신님이
수련시켜
준다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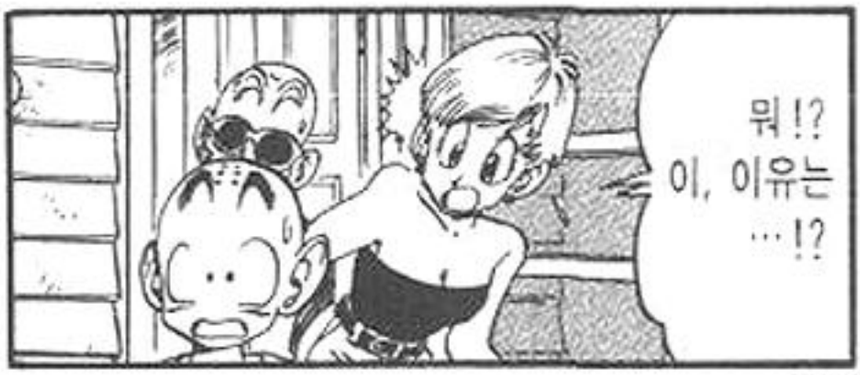

아,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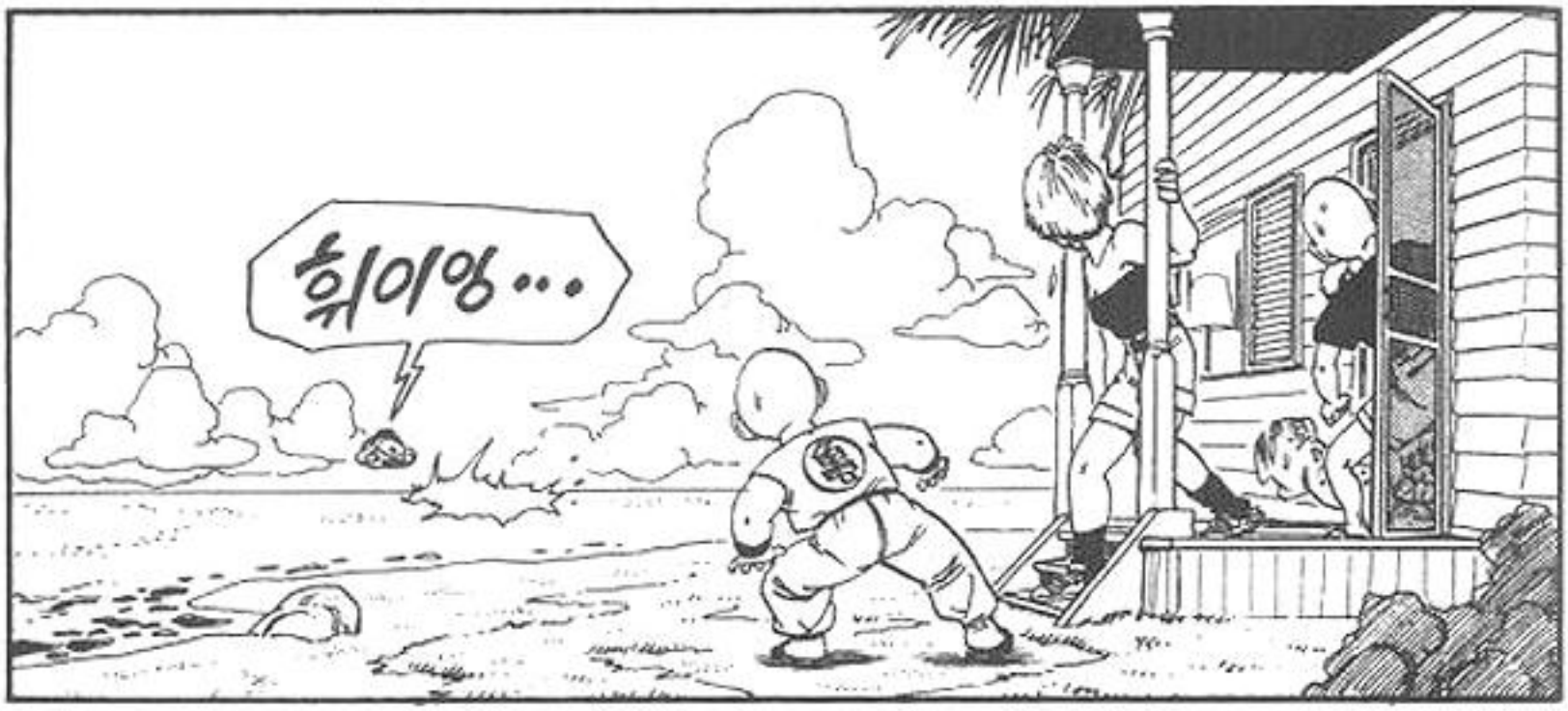

그럼 나
간다잉.


저,
정말!?
그래.
우주인 따위
놈들과 싸우기
싫다고 했는데도…
안 된대.


오공 녀석은
적이 올 때까지
살려내지 말래.
아,
그리고!


그 녀석은
저승에서
수련중이래.


뭐!?
이, 이유는
…!?


휘이잉…


다시
돌아오네….
어…,
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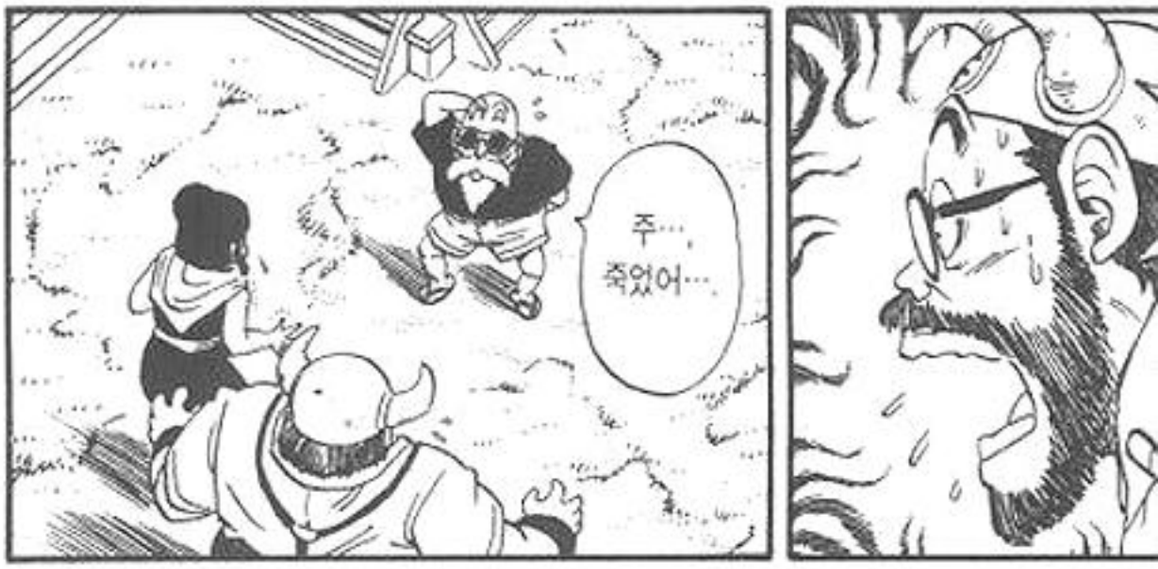

비행기가
닿라…!
엥…!?
부우우웅…


그…그럴
수가….
저…
저승에서
수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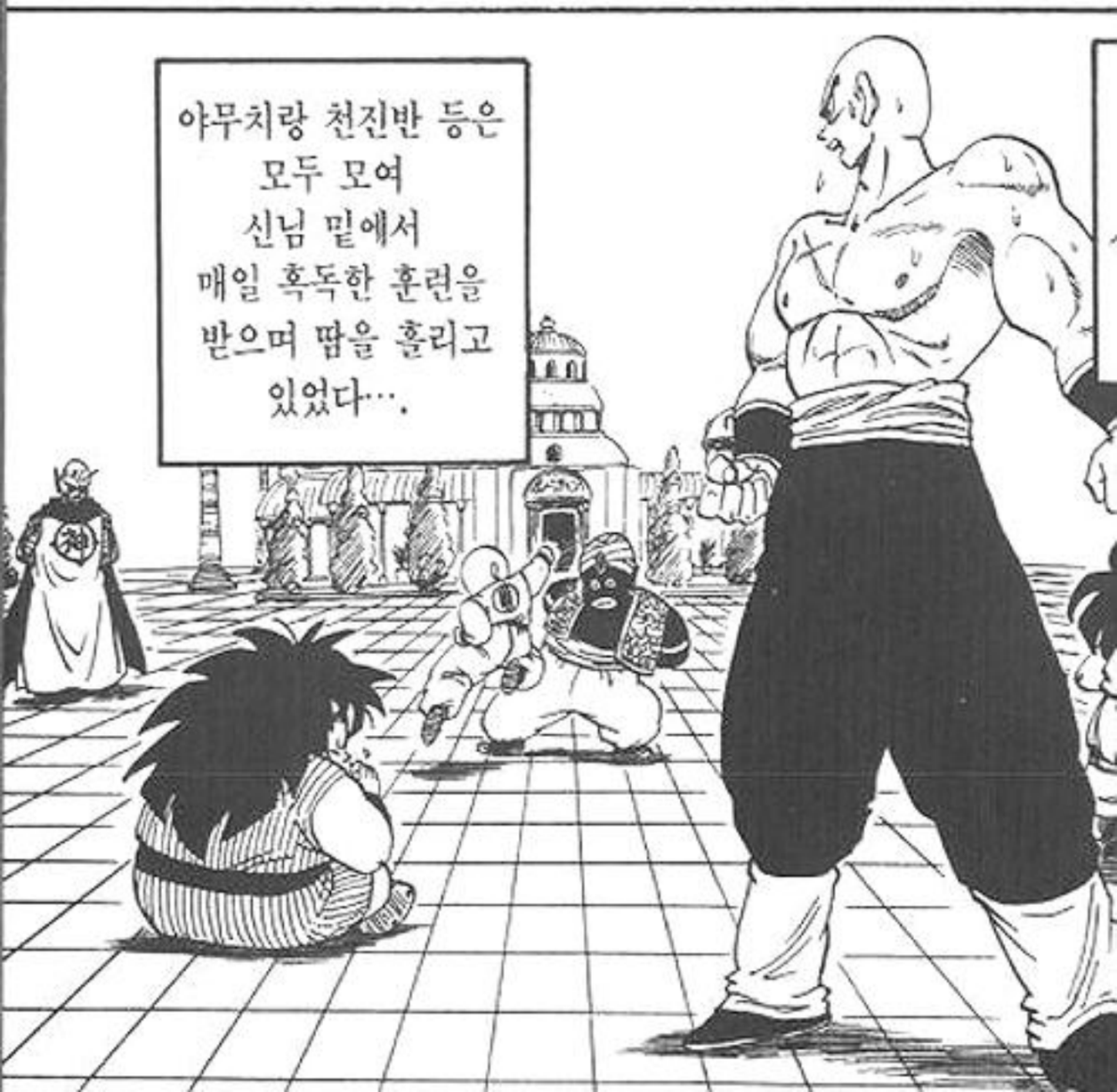

찌찌랑
우마왕
이다!!
윽
!!


무천
도사
님-!!
이얏호
!!


그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몸 건강히 잘 지내 셨는지요!
으… 으응…. 뭐 그냥….
크…, 큰일났다…!!
우리 오공과 오반이 왔을 텐데.
어디 있어? 집 안에 있나?
아, 저어….
시…, 실은….
피콜로 대마왕이 데려 갔다고 라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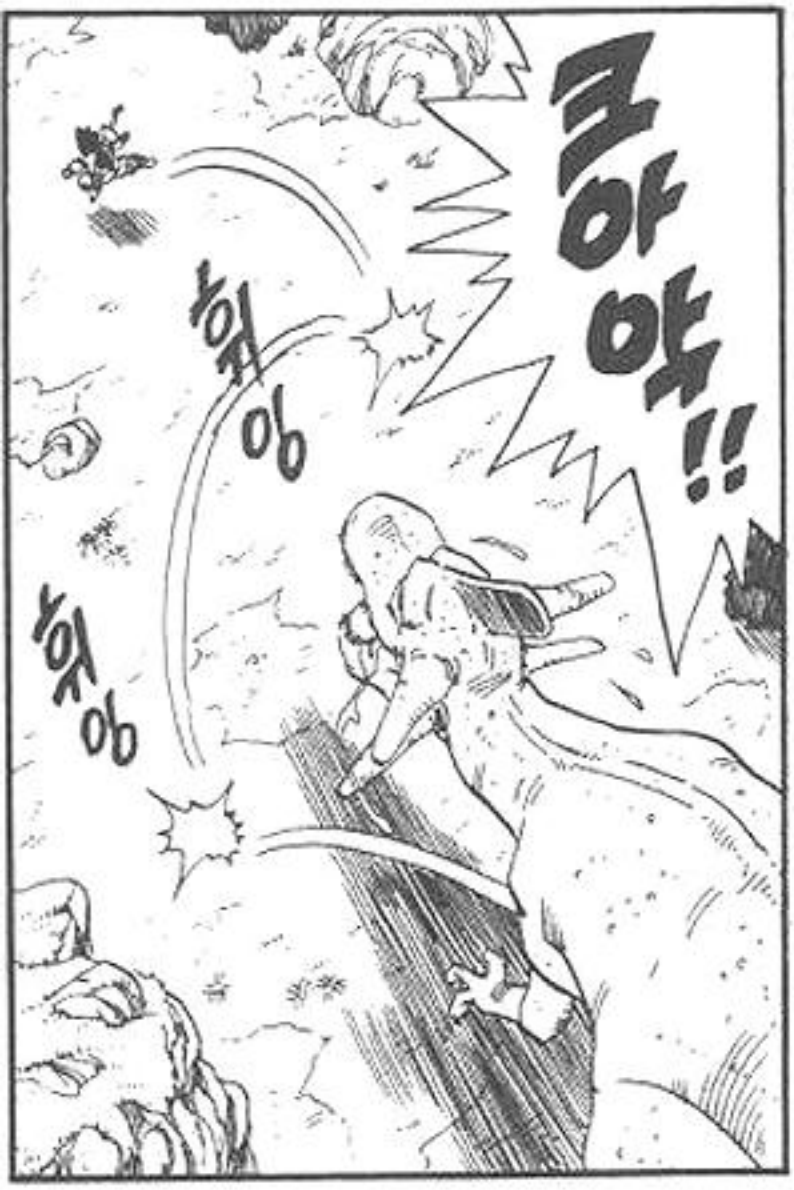

주…,
죽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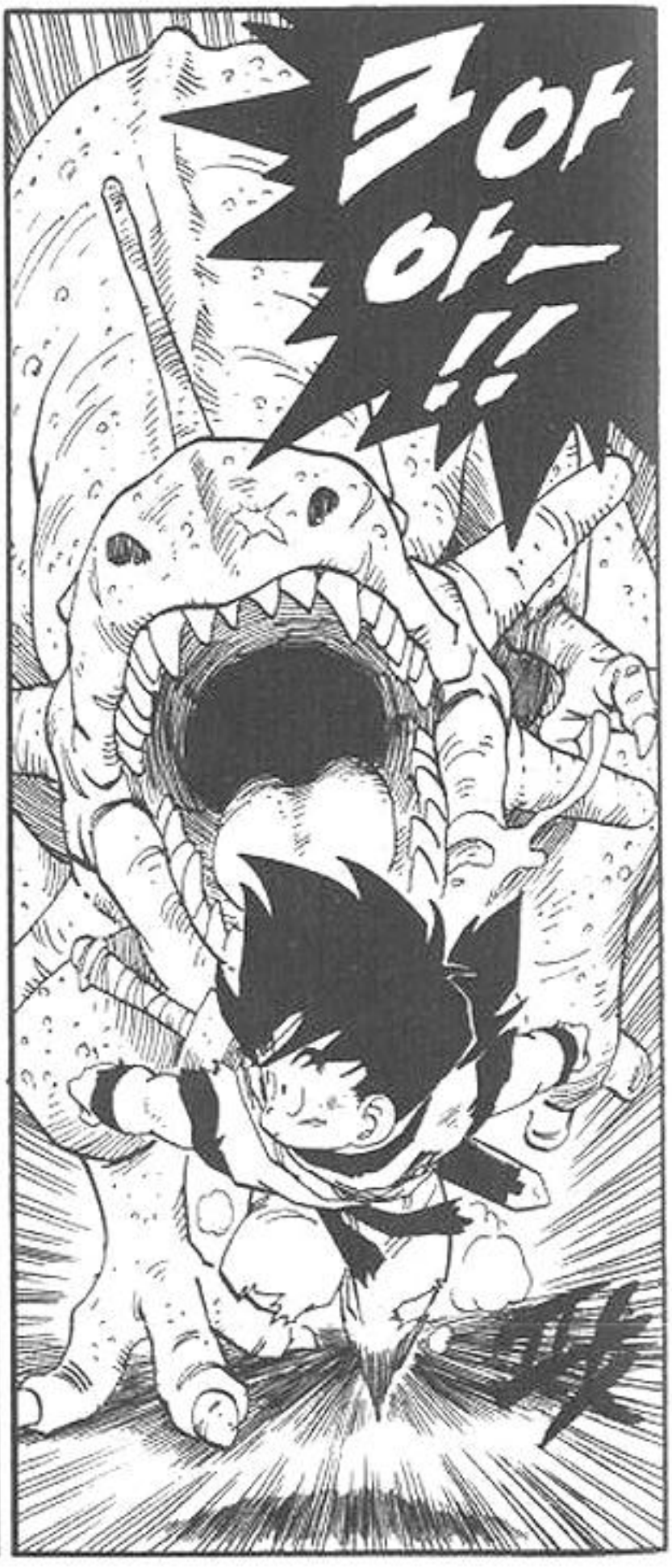

찌찌야!
콰당
……


야무치랑 천진반 등은
모두 모여
신님 밑에서
매일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뛰고 있었다…. 목적지인 계왕님의 집에는 도대체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
헉
헉
그리고 그 손오반은…!?
무사히 씩씩하게 살아 남아 있는 것 같다….
쩝쩝…
!?
크르르…


또 너냐…? 귀찮게 시리….
뭐야…?


크아앗!!
휘앙
휘앙


크아앗!!


요기지롱!
메롱!
메롱!

06

탁

너, 이제 곧 꼬리 다 없어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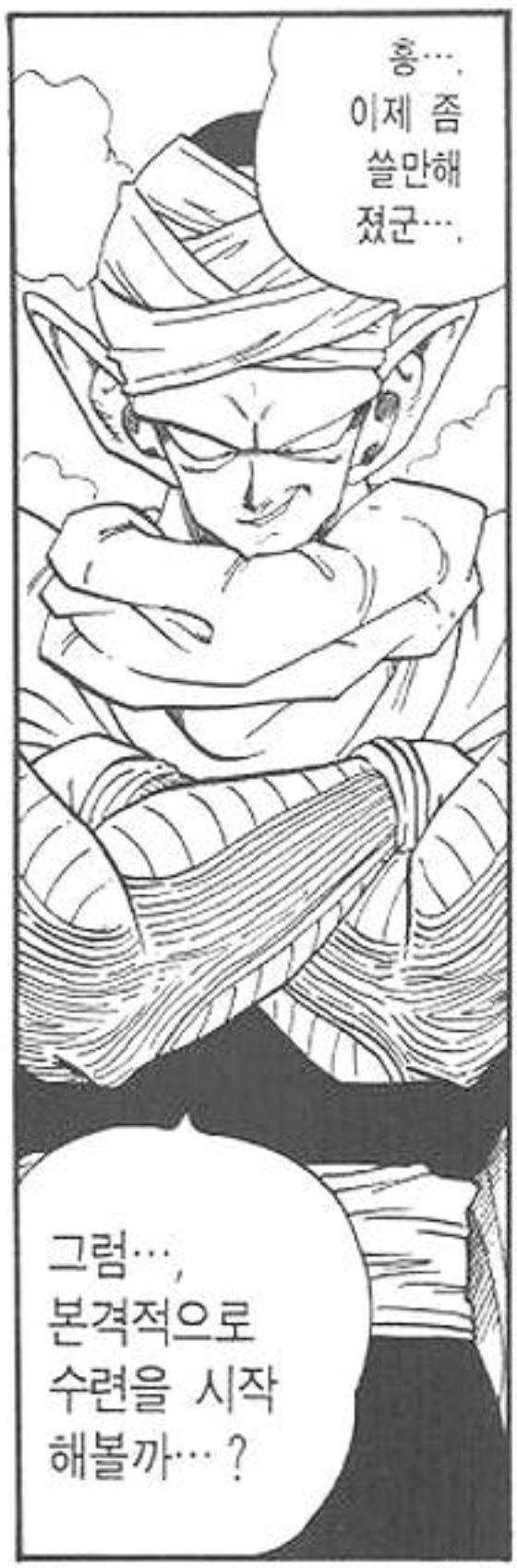
벙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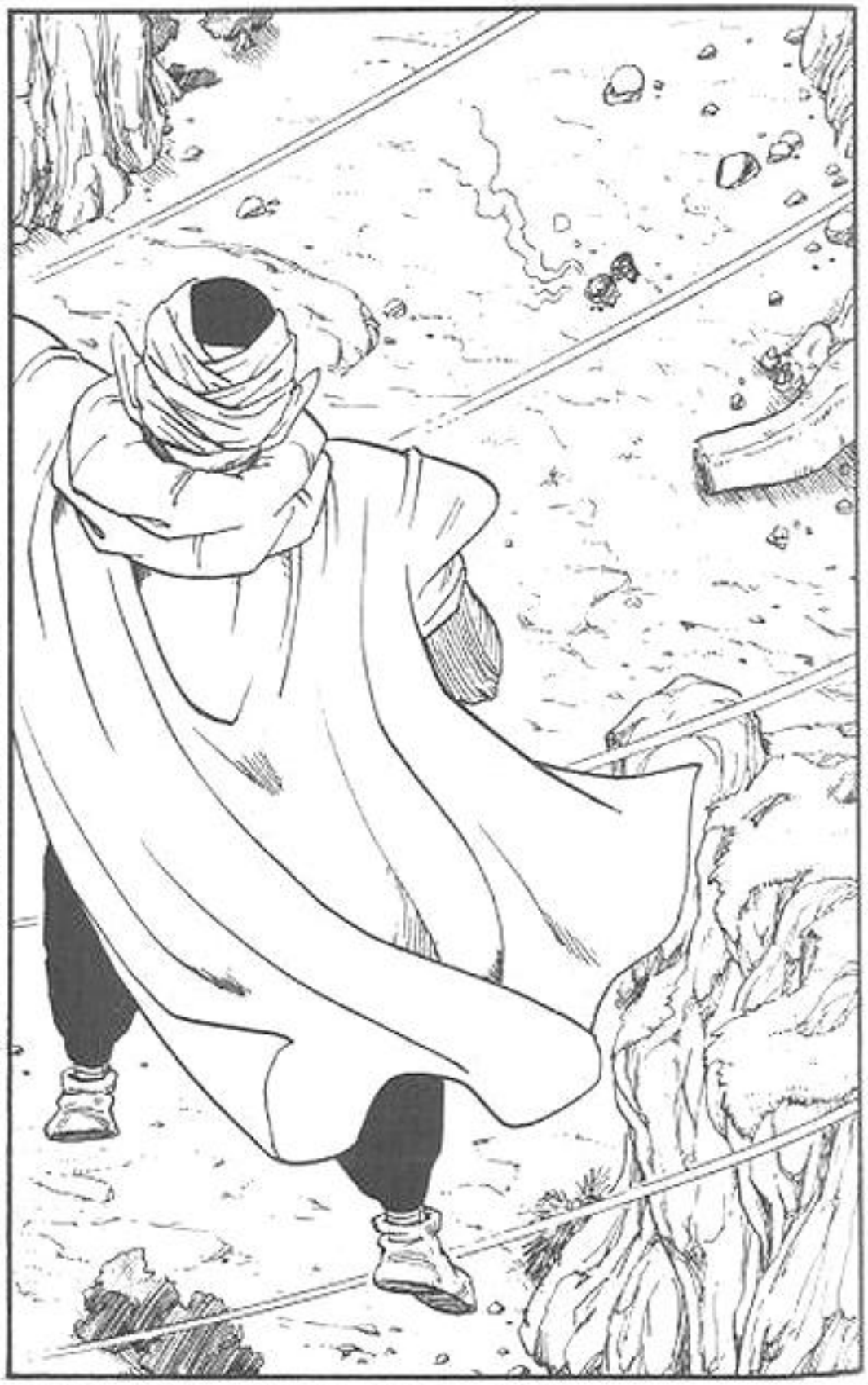
자, 그럼 또 고기 좀 먹어볼까?

꼴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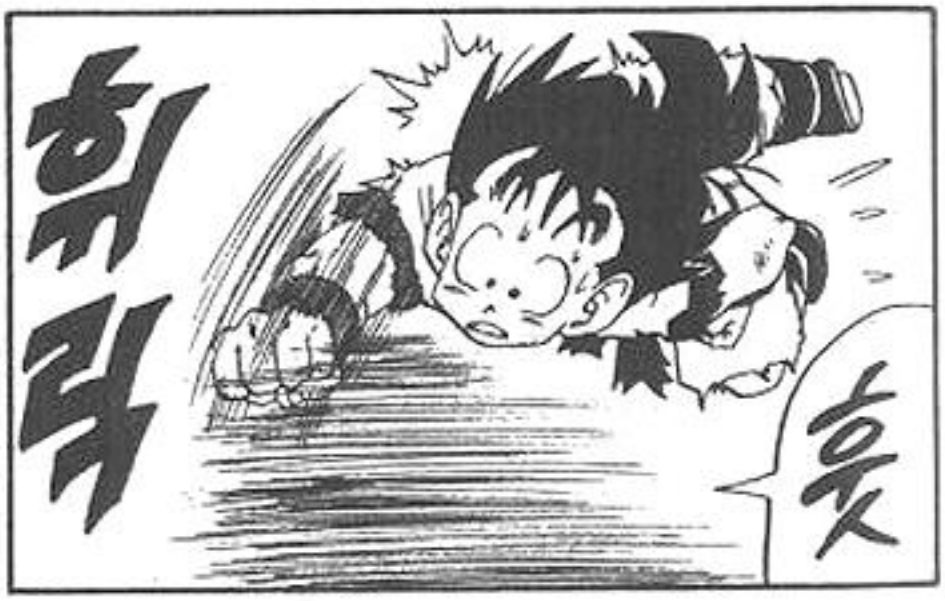


다음은, 제210화 부자 2대의 거친 수련


야압—!!
팍 퍼벅
파박
탁


에잇!!


어, 어라!?


휘리
휭


으악!!
뻐엉
뒤다!


앗!
사라졌네…!

말은 쉽지만….

투덜투덜

그딴 거….

어려워 미친 다구….

툭 툭

느끼는 거지!

보는 게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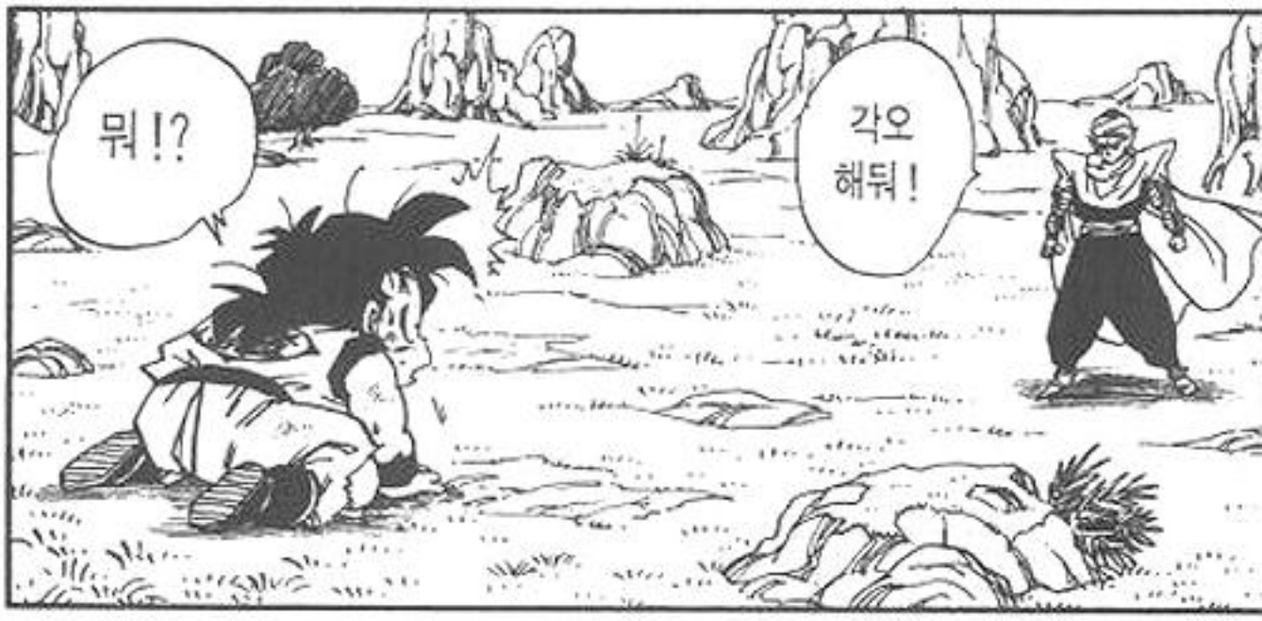
너… 너무 빨라서 안 보이잖아….

엄마

앞으로 겨우 6개월 밖에 안 남았어.

잊지 마라…!

지금 투덜거릴 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할 지나 생각해! 그리고 움직여!!


뭐!?
각오 해둬!


나보다 더….
죽기 싫으면 강해져!
그리고 6개월 후에 오는 사이어인 보다 더…!


그… 그러면….
나…, 난 죽는다구….


퍽
난 너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구!
그게 뭐야! 방어가 애들 장난이냐! 더 기를 집중해!
악!
악!
퍽
퍽

헉헉

헉헉

한편,
손오공도 6개월 동안
계왕님을 만나기 위해 계속
뱀의 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 길은
끝도 없나 봐….
정말 종점이
안 보여….

이대로 가다간
계왕님이란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1년이 지나겠네….

지…
지쳤어….

헉헉

헉헉

만세!
드디어
다 왔다—!

아앗—
!!

꼬,
꼬리다!

!?

아…
아무것도
없네…?

어…
어쭈구리…?

…….

뭔가
동그란 게
위에
떠 있네….

어!?

뻥
이었나…!?

이…
이런…!

저기다!!

저기
계왕님이
있나봐!

찾았다!!

역시나!

집이 있어!

부웅

아니!? 뭐, 뭐야!?

엥!?

으그그… 그그…!

뭐, 뭐지? 이 지면은…!

철썩

우가!!

어, 엄청난 힘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모…, 몸이 마치 납덩어리처럼 무거워…!

저… 저렇게 형편없어 보여도 엄청 세겠지….

저… 저게 계왕님인가…?

아!

아, 안녕 하셔요? 오공입니다.

수련 좀 시켜 주세요.

!!

쑥

버, 벌써 수련이네!
우호호!
우호호!
저 동작을 따라하란 거야!
우호호!
우호호!
우호호!
우호호!
계, 계왕님. 이, 이곳 지면은 대체 왜 이렇죠?
우… 우호호 우호호….
이… 이거 정말 힘드네…!
너!
달밤에 체조하냐?
우호호…!!
우호호 …!!
어?


후후후…. 나는….
너…, 넌 누구니…?
어… 어라…!?


가려워~!
11~응. 가려워~.
너무 가려워….


긁적 긁적


우호호
그, 그럼 쟤는…!?
뭐!?
저건 내가 기르는 원숭이, 바부르스.
……


가려운 계왕이다!


맘 놓고 실컷 웃어도 괜찮아.
그치만 좀전의 내 개그 개인기는 최고였지?


어쩐지 이상하 더라….
하하…. 이… 이런….
이상한 건 너다!

그럼 한 번 더 내 화려한 개인기를 서비스하지….

정말 유머를 모르는 놈이구만….

너…, 긴장해서 듣지 못했구나….

……

응? 뭐가…?

엥…? 뭐가?

최, 최고다!

푸후후…!

어라~?

여보세요~!

국진이 버전으로…, 여보셔요~!

나, 난 계왕님 입에서 수련을 하러…!

아!

너… 너, 여기 뭐 하러 왔니…?

……

진짜 배꼽 뒤집어진다! 역시나 계왕님이야!

아-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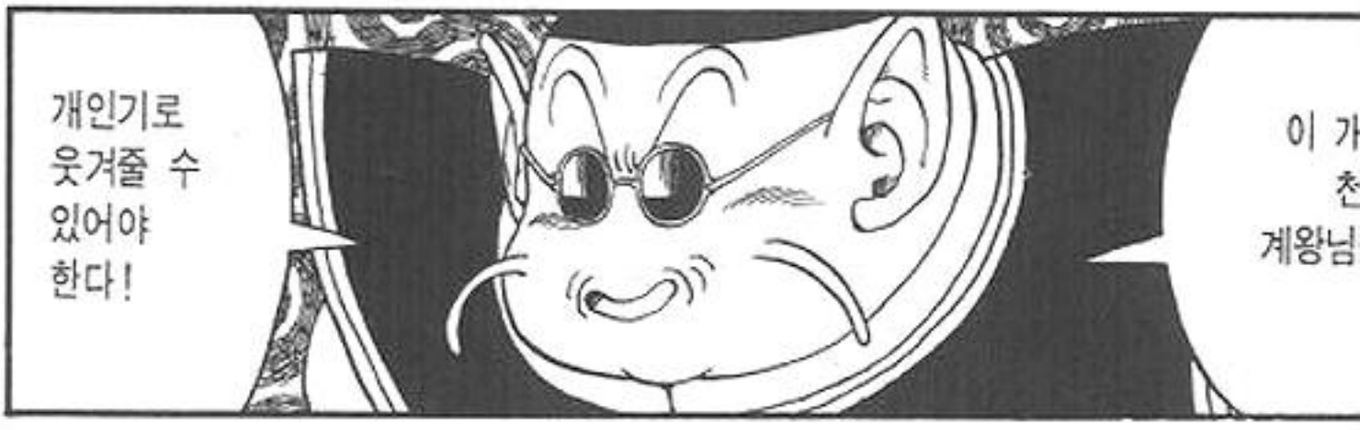
세상에 이렇게 웃기긴 처음인걸!

이렇게 재밌는 개인기를 보고도 웃지 않는 놈은 성격 이상자야!

빨랑 꺼져!

그런 놈에겐 수련 따위 안 시켜줘!


시켜 주지 뭐….
후후후…, 수련이라….
단,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치…?
너 머리가 형광등 이구나-.
수련시켜 줄 거지?


개인기로 웃겨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가
천
계왕님


ㅠ~응. ㅠ~응.
서생원 쇼에서 1등할 정도 수준의 개그 아니면 난 안 웃어!
흐흐흐…, 왜, 겁나나…?
나…나한테 개그를 하라고라…!?


속았지!!
소, 소는 가치가 많다….
그럼 포기하고 돌아가서 잠이나 자셔!
없


쨔
쨔
크히히 히히…!
푸푸풋-!
푸풋!
풉!
소… 소가치가 …
속았지라….
너… 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제… 제길….
혹시 프로 개그맨 아냐?
계왕님이 웃었어!!
웃었다!
진작 말을 하시징~!
뭐, 무술?
개그는 말고…, 무술이나 가르쳐 줘.
최고의 개그를 가르쳐 주마!
좋아. 수련시켜 주지!

그…
그런데 좀
이상해.

여긴
움직이기
힘들고,
몸이
무거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자.

좋아,
어디 덤벼
봐라!

네 고향
지구보다 10배
정도는 될걸.
그러니까
네 체중도 10배가
되는 셈이지!

여긴
작은
별이지만,
중력이
대단해.

그럼
힘든 게
당연하지.

어디서
왔니?
지구?

그,
그래….

얍!

팡

점프
좀
해봐.

있는
힘껏.

아,
그래.

아주
재미있는
놈이
왔군….

흐으음…!
중력이 10배인데
저만큼이나
뛰다니….

이 정도로
조금밖에
못뛰다니
…!!

큭!
안,
안 돼!

터억

 다음은, 제211화 계왕님과 열심히 수련하는 죽은 손오공!

까마득한 뱀의 길을 지나
겨우 게왕님을 만난 손오공!
지구보다 10배나 되는
중력을 가진 이 작은 별에서
힘든 수련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만이라도 무술을 가르쳐줘.

우리 별에 사이어인이라는 놈들이 나쁜 짓을 저지르러 쳐들어온대….

난 뱀의 길을 며칠 동안 달려 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래?

자, 그럼 수련을 시작할까?

사이어인이 언제쯤 지구에 도착할지 알아보자.

빳!

어디!

이거 또 골치 아픈 놈들한테 걸렸군.

사이어인…?

겨우 158일 밖에 없다니….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알아!?

우와!

흐음…. 분명 사이어인이 날고 있네….

지구에 도착하는 건…, 그래…. 앞으로 158일 남았구나….

네가 지구에서 수천년 수련한 가치가 있다구!

내가 이 별에서 158일만 단련시켜 주면….

그… 그래….

158일 이면 충분 하니까.

걱정 마셔~.

그만큼 지구로 향해 오는 두 사이어인은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구!

하지만, 수련했다고 사이어인에게 확실히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해.

정말!?

으악!

계, 계왕님보다 더…!?

솔직히 말해 그 파워는 나보다 한수 위야.

그러니까, 적어도 나보다 더 강해져야 사이어인을 이길 수 있다는 거라구.

당근 이지.

야야, 바부르스!

그럼 빨리 시작 할까?

.....

우선 그 정도도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먼저 이곳의 힘든 중력을 극복 해야 돼.

이 바부르스를 잡아봐라!

아, 알았어 …

우호호!

우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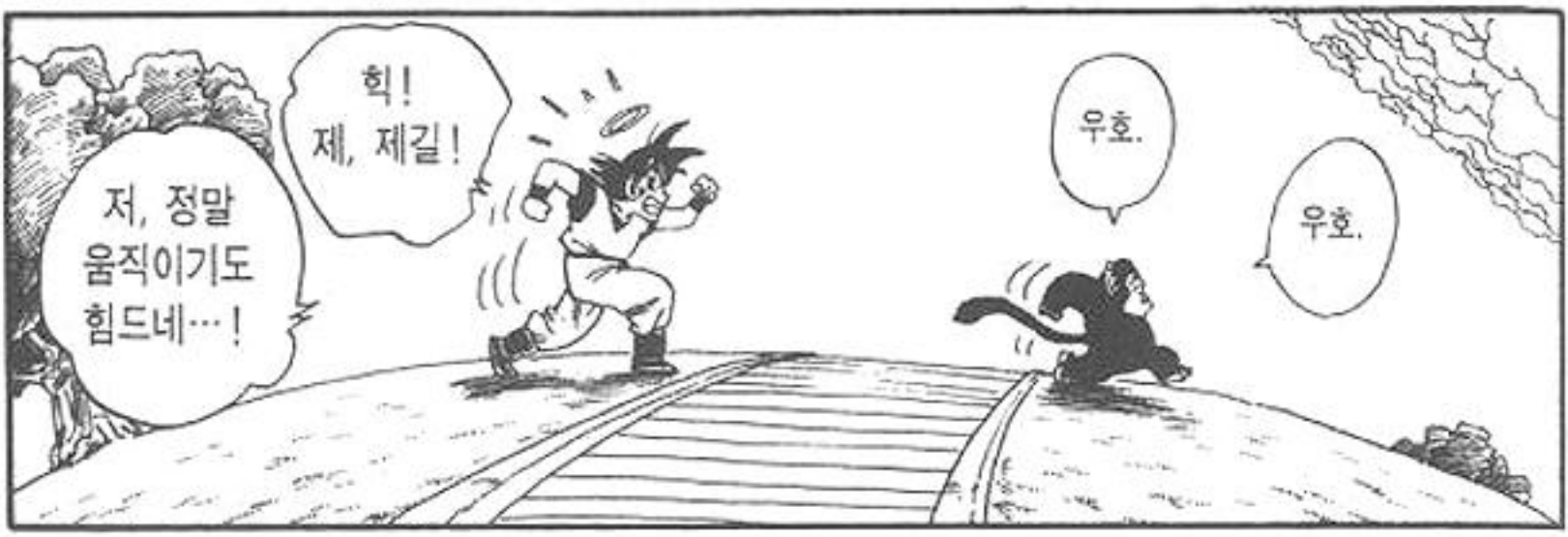
서, 서라!!

쿵쾅

쿵쾅

윽!!

우호 우호!


저, 정말 움직이기도 힘드네…!
힉! 제, 제길!
우호.
우호.


쿠응
헉헉!


끄~응…!!


두고 보자~!
조, 좋아~!


서랏!!
퍽퍽퍽


이럼 훨씬 쉬워졌지!
크흐흐 흐흐…!!


꼭 잡고 말 테다…!
끙끙!


이미 초중량의 장비를 입고 있었나…!
호우!

휙잉

엑!?

그래, 걸렸다!

우호호.

우호호.

저… 저런…. 말도 안 돼….

털썩

저, 미안 하지만 밥 좀 먹여줘….

나, 반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파 죽겠거든….

저놈, 무지 빠르네~.

저런 애를 어떻게 잡지…?

못 하겠으면 빨랑 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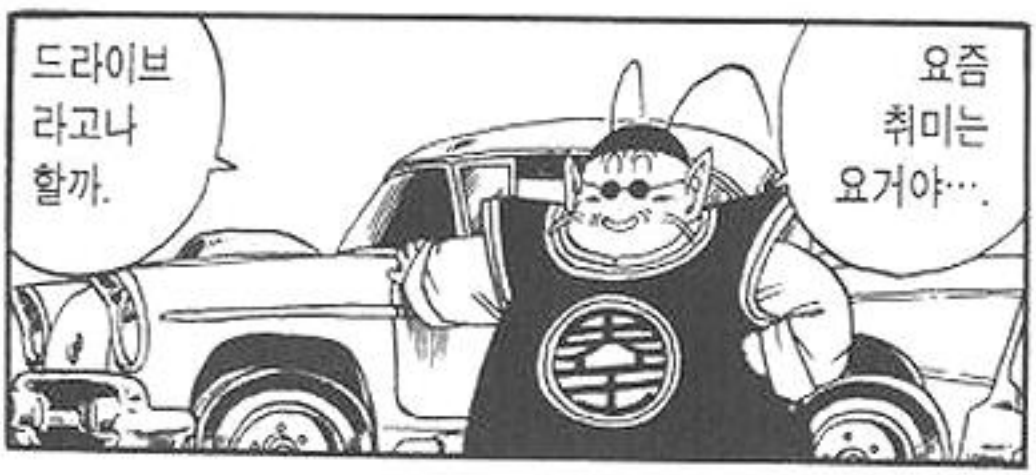
그래…, 좋아!

죽은 놈이 배가 고프다니, 괴짜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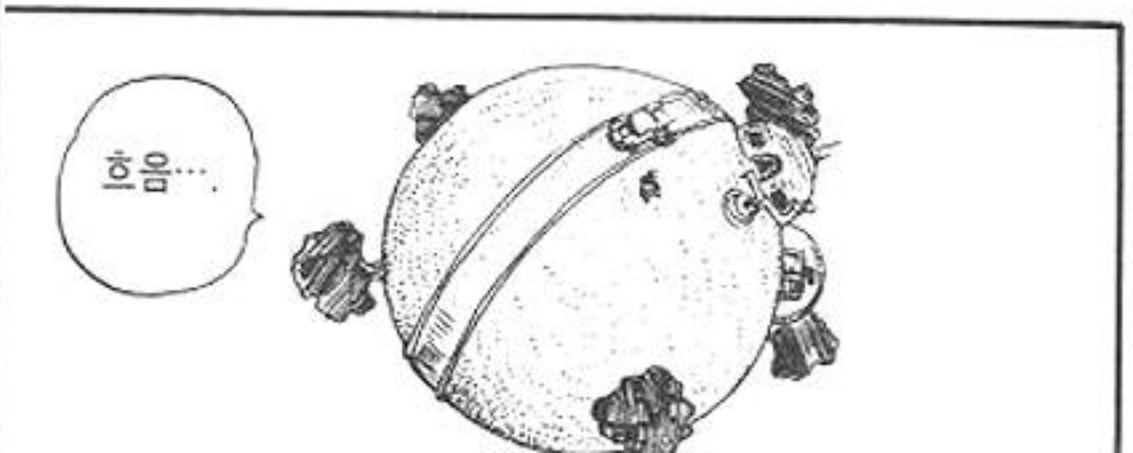

엄마!!
남기지도 않고 다 처먹냐!?
우적 우적 우적 우적 !!
米


근데…, 계왕님. 이렇게 작은 별에서 살기 따분하지 않아…?
후후후… 잘 모르나 본데…


너 혹시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냐…?
맛은 별로지만 배는 부르네!
푸하-! 잘 먹었다!


드라이브 라고나 할까.
요즘 취미는 요거야….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재밌는 일은 많아.
풀이 몇 개나 나있는지 세어 보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 보기도 하고, 오줌 멀리 싸기도 하고….
……


흐음….

그, 그래. 열심히 할게…!

아님 난 무술 안 가르쳐줄 거야!

자, 땡땡이 치지 말고 빨리 바부르스를 잡아.

뛰기 더 힘들 텐데…!

그… 그 옷을 다시 입으라고…?

뭐!?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야!

아참, 아까 벗은 그 무거운 옷을 다시 입고 뛰어봐!

사이어인이 있던 별은 중력이 여기하고 비슷해…. 놈들은 거기서 신체를 단련했다구….

좋은 힌트를 하나 가르쳐 줄까…?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야…. 사이어인들은 원래 타고난 전투 감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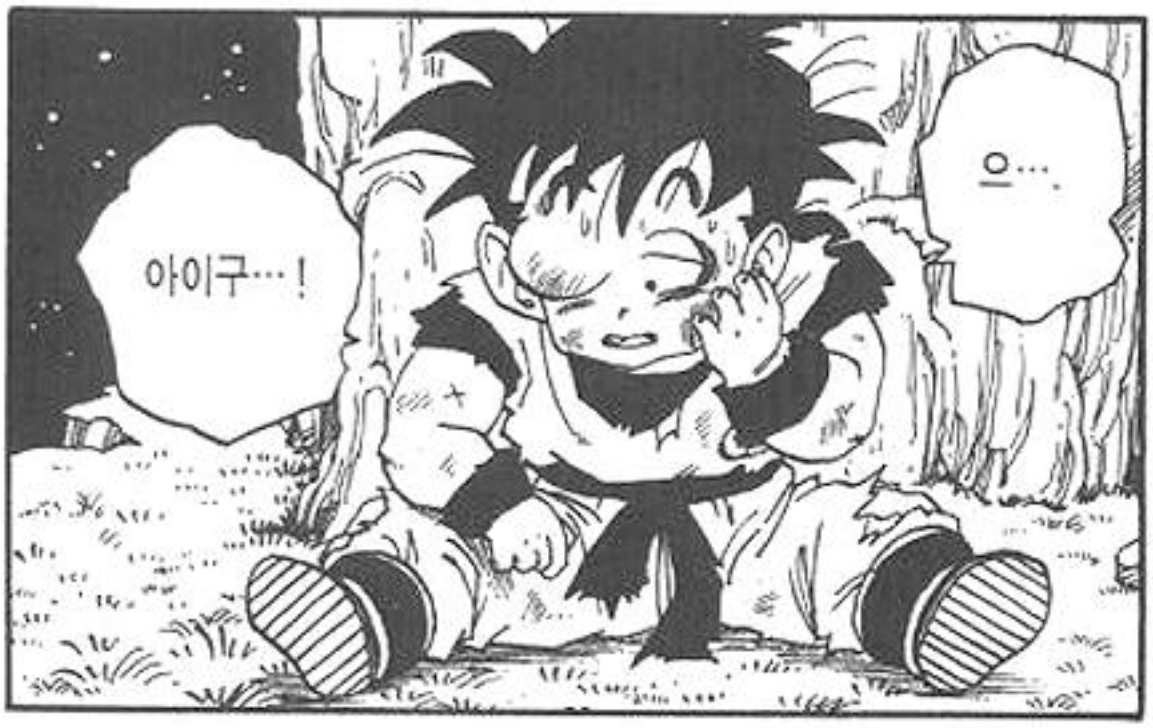
그게 귀찮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이해되니? 사이어인들이 왜 강한지….

……


뭐!?


나도 사이어인이야!
걱정 마셔!


아이구…!
으…




지난 반년 동안 울보 버릇은 많이 고쳐졌구나…
흠…
헤… 헤헤…

사이어인 처치가 성공하면 다음엔 네 아빠 차례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저기…, 피콜로 아저씨는 예전에 아빠랑 싸웠었지?

나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해….

엄마랑 할아버진 무서워 하지만….

쳇….

다시 태어난 피콜로 아저씨는 예전처럼 미친 개같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그치만 아빠가 말했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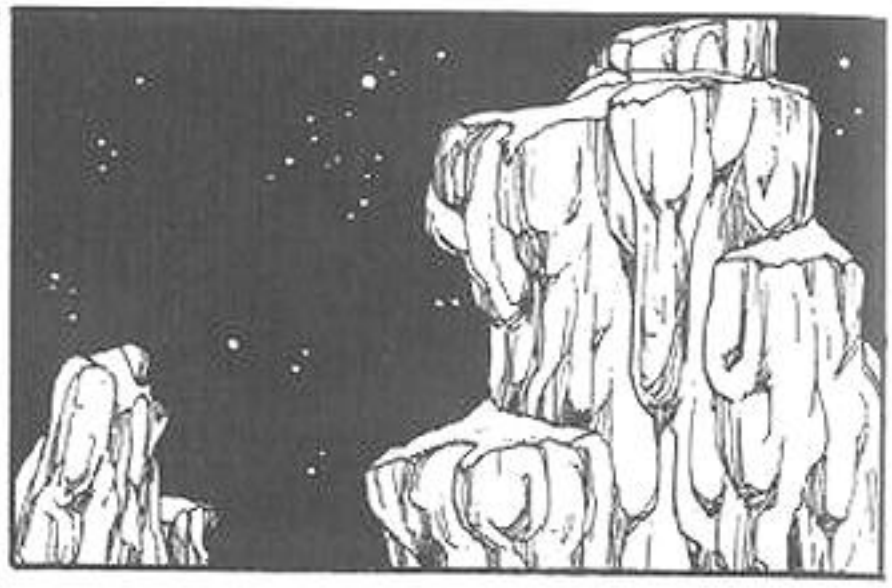
잡소리 그만 하고 얼른 자버려!

내일은 더 심한 지옥 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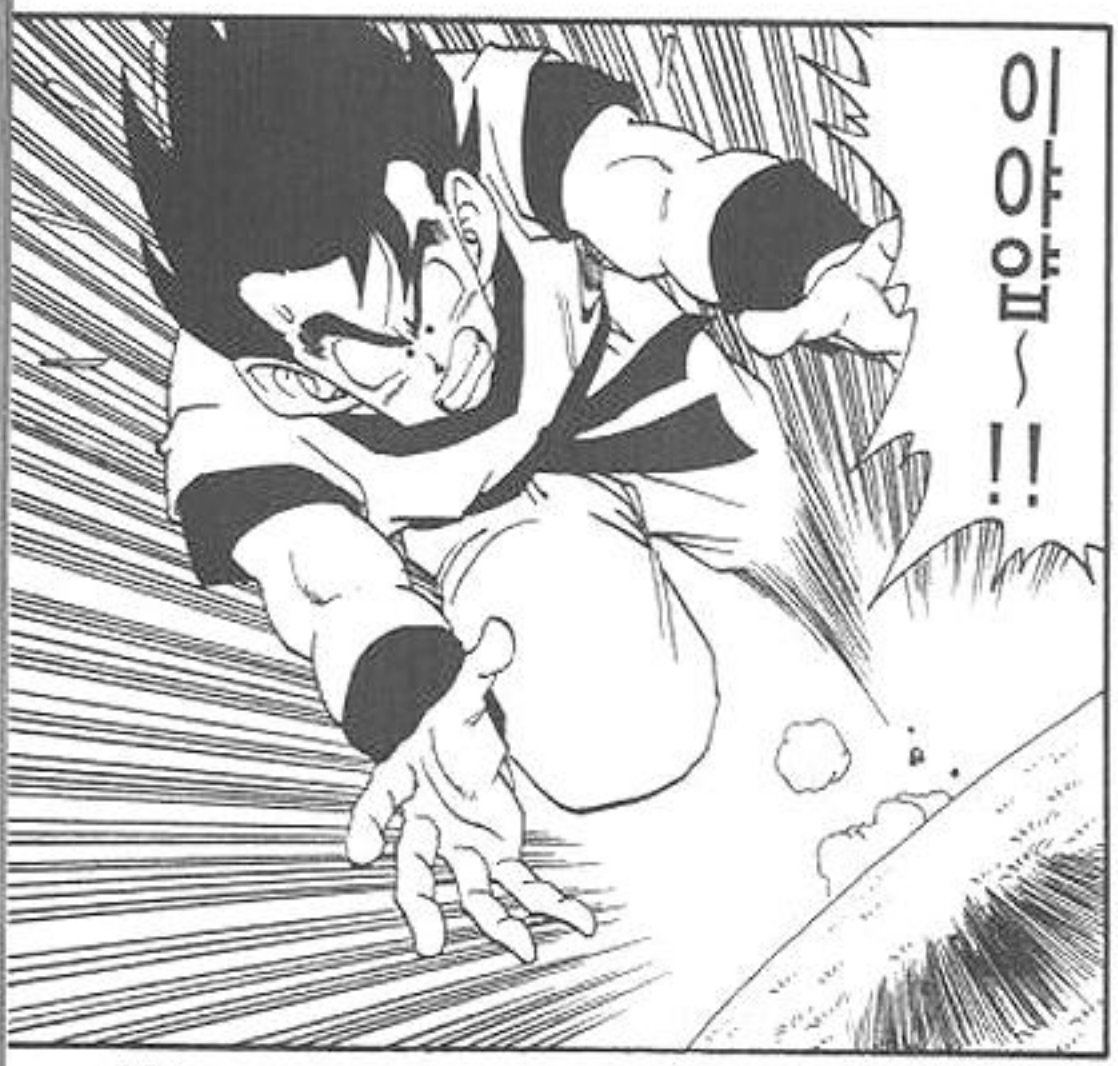
아, 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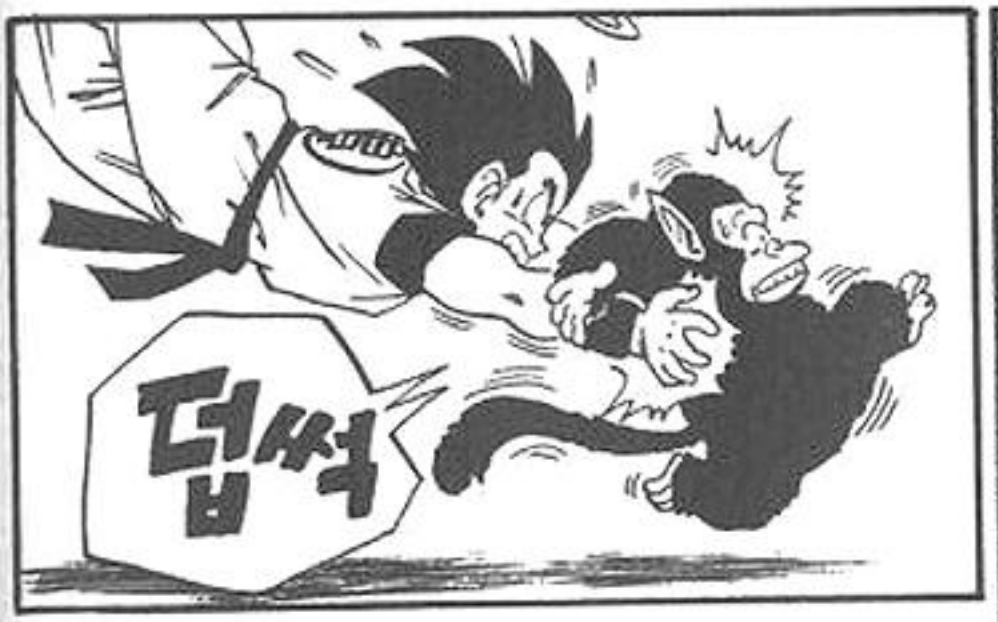

쿨ㅡ
쿨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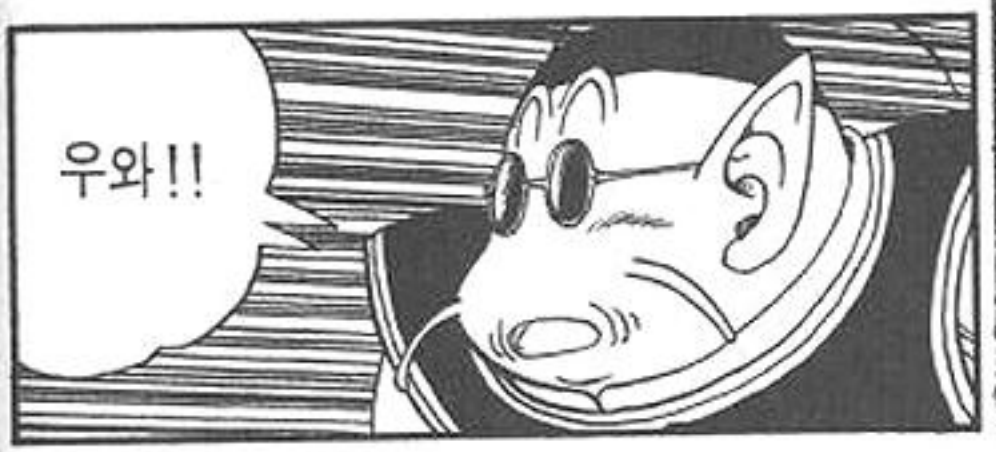

빌어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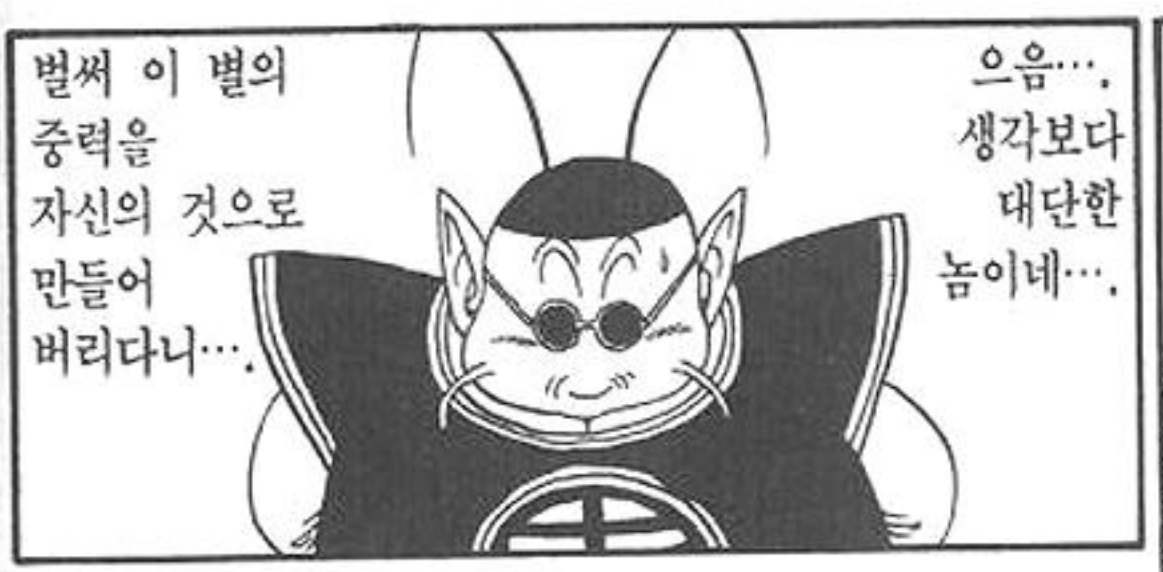

이야압~!!


그리고
40일 정도
지났을
무렵….


덥석




우와!!


벌써 이 별의
중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으음….
생각보다
대단한
놈이네….


앞으로 118일이나 남았다….
저놈이라면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
게왕권을…!


잡았
다구!!
드디어
잡았다!
자,
잘했다!

내… 내가 꿈에
그리면서도 결국 이루지
못했던 계왕권을…!

그리고
그 필살기를…!!

각오는
돼 있겠지만,
내 수련은
상상보다 무지
힘들어!

견딜 수
있겠냐!?

응,
해
볼게!

어차피
노릴 거면
우주 최고
천하제일이
돼야지!

육체도,
그리고
정신도!
알았지!?

알았어
!!

그 전에
차나 한잔
때려볼까…?

퍽 당

나나 미스터 포포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서, 그놈들과 대결할 때까지 각자의 기술을 갈고 닦아라!

너희들은 이제 나를 초월해 버렸다.

이제 이 무거운 옷은 벗어도 되나?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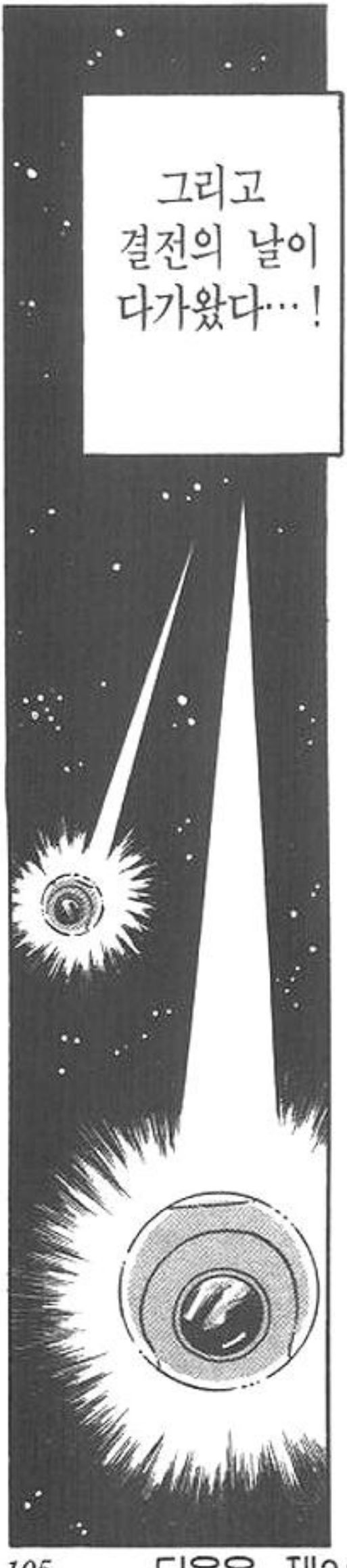
미래를 부탁한다.

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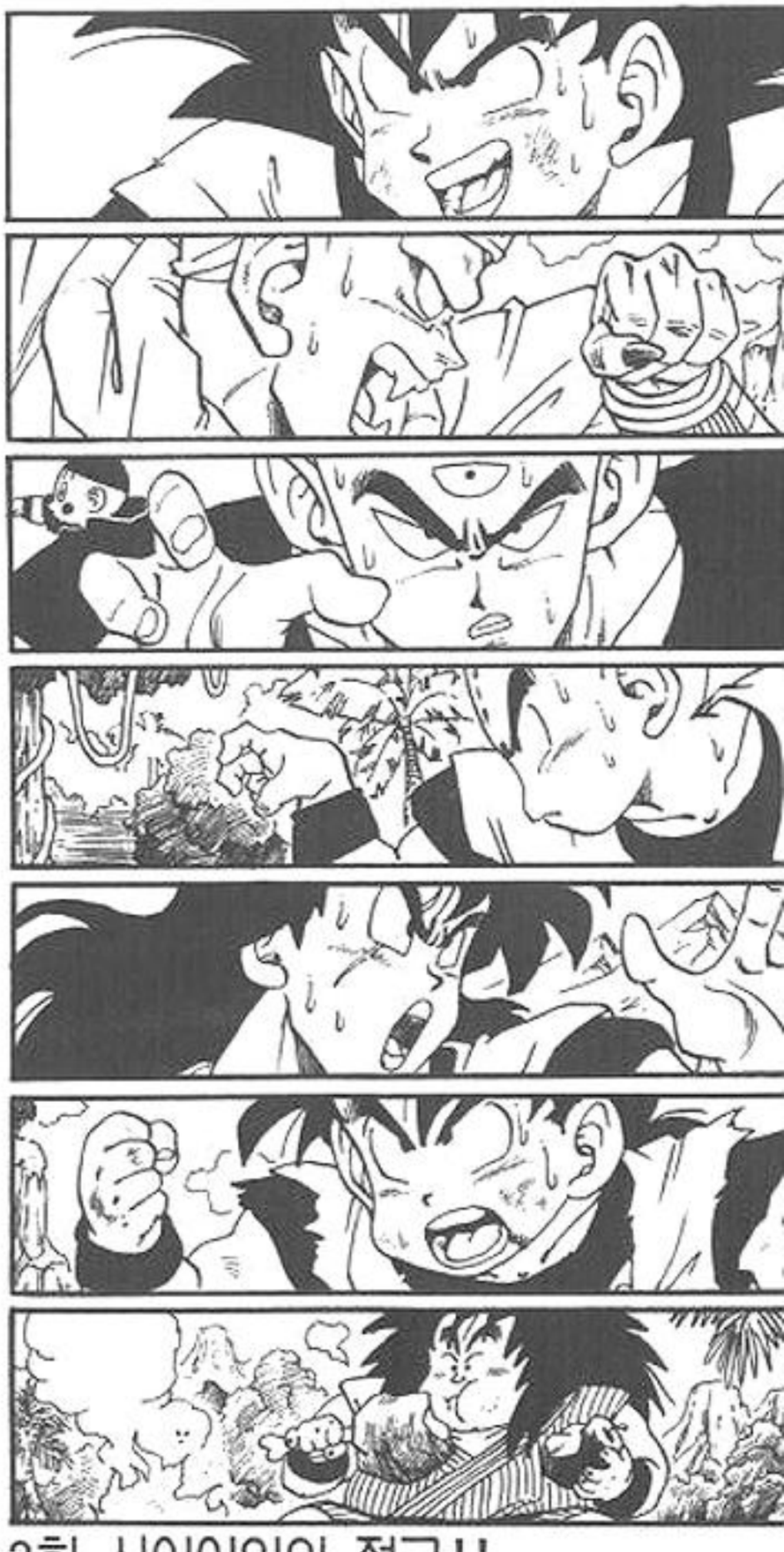
좋아, 그래! 이제야 기를 컨트롤하기 시작했구나!

늦어!

퍽







다음은, 제212화 사이어인의 접근!!

길고도 짧았던
시간이 지나
드디어 두 사이어인은
지구 근처까지
다가왔다…!












이 큰 벽돌의
초스피드를
멋지게
잡아내야 해!
음,
그럼
간다!
그래!


하이얍


간다!!
브앙

하이얍


하앗—!!
초 스피드!
쥬—용
얍!!!


와우…!!
깨… 깨끗 하게 끝내 다니….
멋지다, 손오공!
이렇게까지 멋지게 원기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고생 했다!

이렇게 작은 별의 원기옥조차도 이 정도 파괴력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지만, 원기옥은 풀과 나무, 인간과 동물, 나아가 사물이나 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나누어 받아 그걸 모아서 쏘는 기술이다….

엄청난 파워를 가진 원기옥이야…. 함부로 쏘다간 지켜야 할 자기 별도 파괴해 버릴 수가 있다구….

네가 싸우는 장소인 지구는 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태양도 네 편이 될 수 있지….

사이어인들은 내일 지구에 착륙한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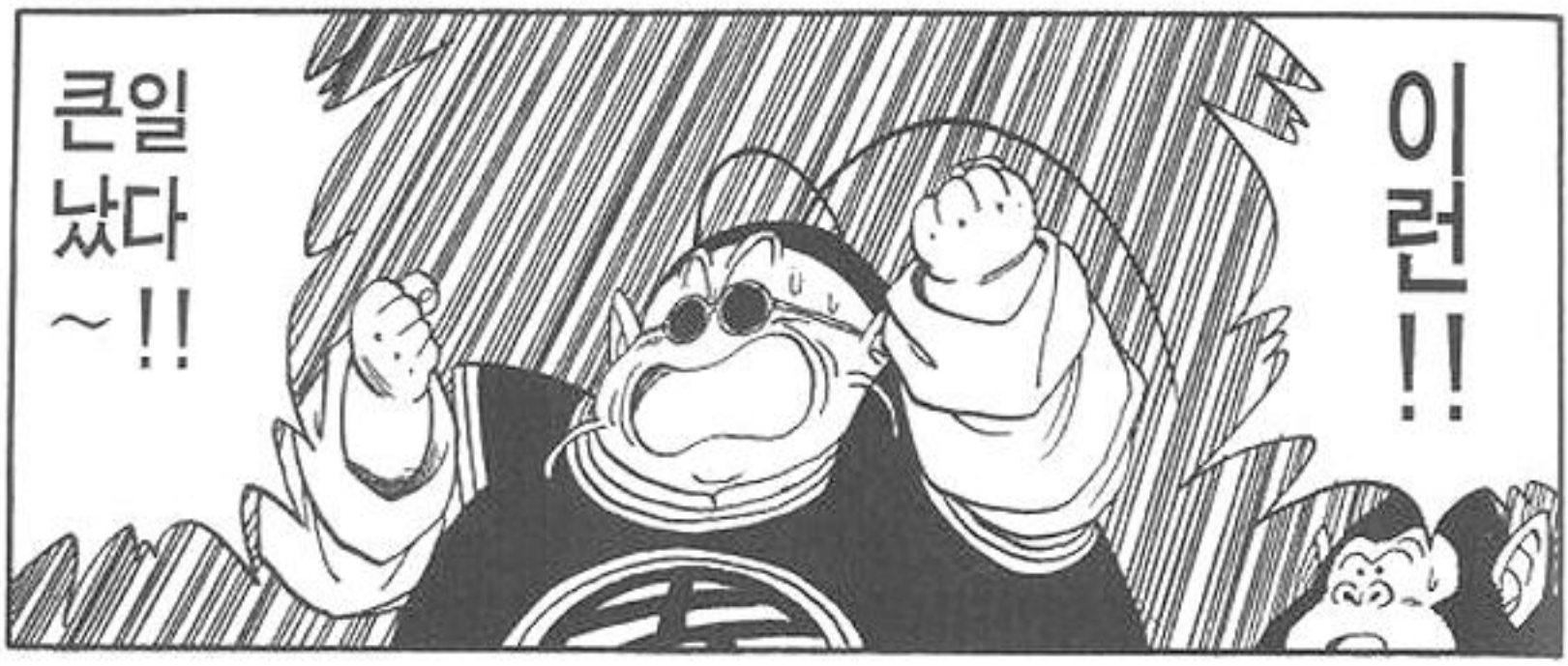
앗!!

응, 알았어!

걱정 마! 계왕권만으로도 반드시 이겨볼 거니까!

가능하면 쓰지 마라!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만 한방 쓰는 걸 허락하마….

알겠니…?


큰일 났다~!!
이런!!


또, 또 그 길을 걸어서 되돌아 가라구!? 오, 올 때도 반년이나 걸렸는데!
계, 계왕님이라면 나를 한방에 하계로 날려 보내줄 수 없나!?


왜 그래!?
뭐, 뭔데!?
네… 네가 뱀의 길을 통해 되돌아갈 시간은 계산하지 않았어….


그, 그래도 하루가 늦잖아! 모, 모두들 죽게 된다구!
지, 지금의 너라면 이틀이면 충분해! 지구의 신에게 마중 나오라고 전해 줄게!


자! 빨리 지구의 친구들에게 드래곤 볼이란 걸로 되살려 달라고 전해!
너무 보채지 마! 나도 때론 실수할 때가 있는 거 아냐!!

빨리 전해!

이렇게?

저, 정말!?

내 등에 한쪽 팔을 대고 마음속으로 전해! 그러면 통한다!

저…, 전하라니, 어떻게?

하…, 할아버지…. 거북신선 할아버지…. 나 오공이야…. 내 목소리 들려…?









고마워.
미안하지만,
그럼 지금 곧
용신을 불러내서
나 좀
되살려줄래…?

그래,
벌써 모았어.
모두 흩어져서
찾았다구….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드래곤 볼은
전부
모았어…?

서둘러줘,
할아버지!
아주 조금
늦겠지만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해볼게!

내일이라니….
우…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한달 이상이나
빨라…!!

뭐,
뭐라
고!?

사이어인
들이 벌써
내일 지구에
도착해.

치…
치매가
분명해….

저… 저런….
거북신선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맛이 간 거 아냐…?

그런데, 오공아!
어때? 저승에서
수련을 했다던데,
그 성과는….

그,
그래!
알았어!

지금 빨리
드래곤 볼
준비해!

얘들아!

응!
다
끝냈어!!

그럼 네가 되살아나길 기다리는 동안, 그 무겁고 걸레가 된 옷을 해결해주마….

흐흐…, 당연하지.

멋지다, 계왕님! 진짜 통했어!

엄청 가벼워졌네!

앗!

팍

자!

옷 도로 내놔….

난 혹시 계왕님 같은 옷을 주면 스타일 구겨져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멋지다, 거북마크도 그대로야.

굉장히 튼튼한 천으로 만들었어. 웬만한 공격 정도는 튕겨버릴걸.

가볍기만 한 게 아니야.

등에 찍힌 마크가 캡 멋지다.

아~, 빨리 되살아나고 싶어~!

땡큐, 계왕님!

여…, 역시… 안 될까…?

저… 저기…. 그러니까…, 사이어인이란 놈들을 없애고 지구를 구해 달라는 소원은….

그, 그게 아니라. 오공은 이 다음 번에 되살려 내면 간단하고 좋잖아!

뭔소리야! 너, 오공은 안 살려낼 거니!?

난 신에 의해 탄생했다.

그건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야….

따라서 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소원은 들어 줄 수 없다구.

자,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단 한 가지만 들어주마!

그거야 누워서 떡먹기지.

그럼 손오공 녀석을 되살려다오.

!!

갑자기 어두워 졌네!

어…? 대낮인데 …!

그… 그렇다면…, 사이어인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얘기… !?

드디어 손오공이 되살아 나는구나….


됐다!
머리 위의 원이
사라졌어!
되살아난
거라구!
빨리
가라!
응!!
피슉
어!


알았지!?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악당 놈들이야!
방심해선 안 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 따윈
하지 마!
걱정 마!
드래곤 볼로
되살아날 수
있는 건
한 번뿐이야!
젖먹던
힘까지
내서
싸울게!


그럼
안뇽-!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
계왕님.
만약
죽으면 또
만나러
올게!

정말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파워를 가진 녀석이야…. 게다가 마음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

저런 애가 하계에 있었다니….

하지만 개그 개인기 센스는 아직 부족해…. 다음에 오면 부족한 개그를 가르쳐야지….

이야호-! 기분 째진다!

파-앙

몸이 깃털처럼 가볍네-!!

지금 감격할 때가 아니지!

빨리 가야 해!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 43분, 드디어 지구는 두 명의 사이어인의 침입을 허락하고 말았다!!

다음은, 제213화 사이어인의 침공!!

무… 무슨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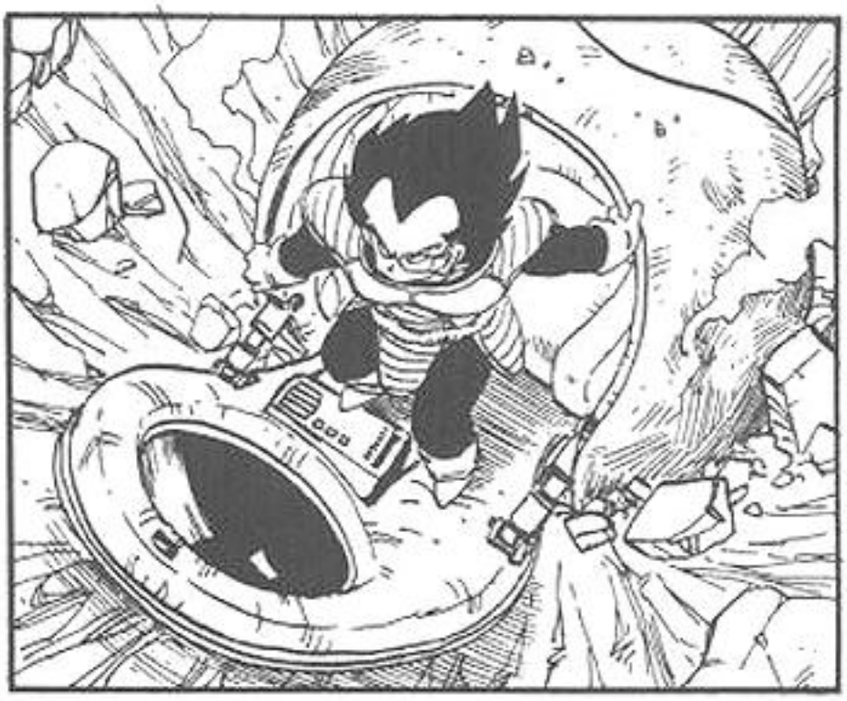
아니…, 뭐야…?

뭔가가 떨어졌나 봐….

간 떨어질 뻔했네….

웅성웅성


여기도 있다!
저, 저기 동그란 게 떨어졌어…!
여…, 역시나…!




끼 악!


휴우!


사람이 나왔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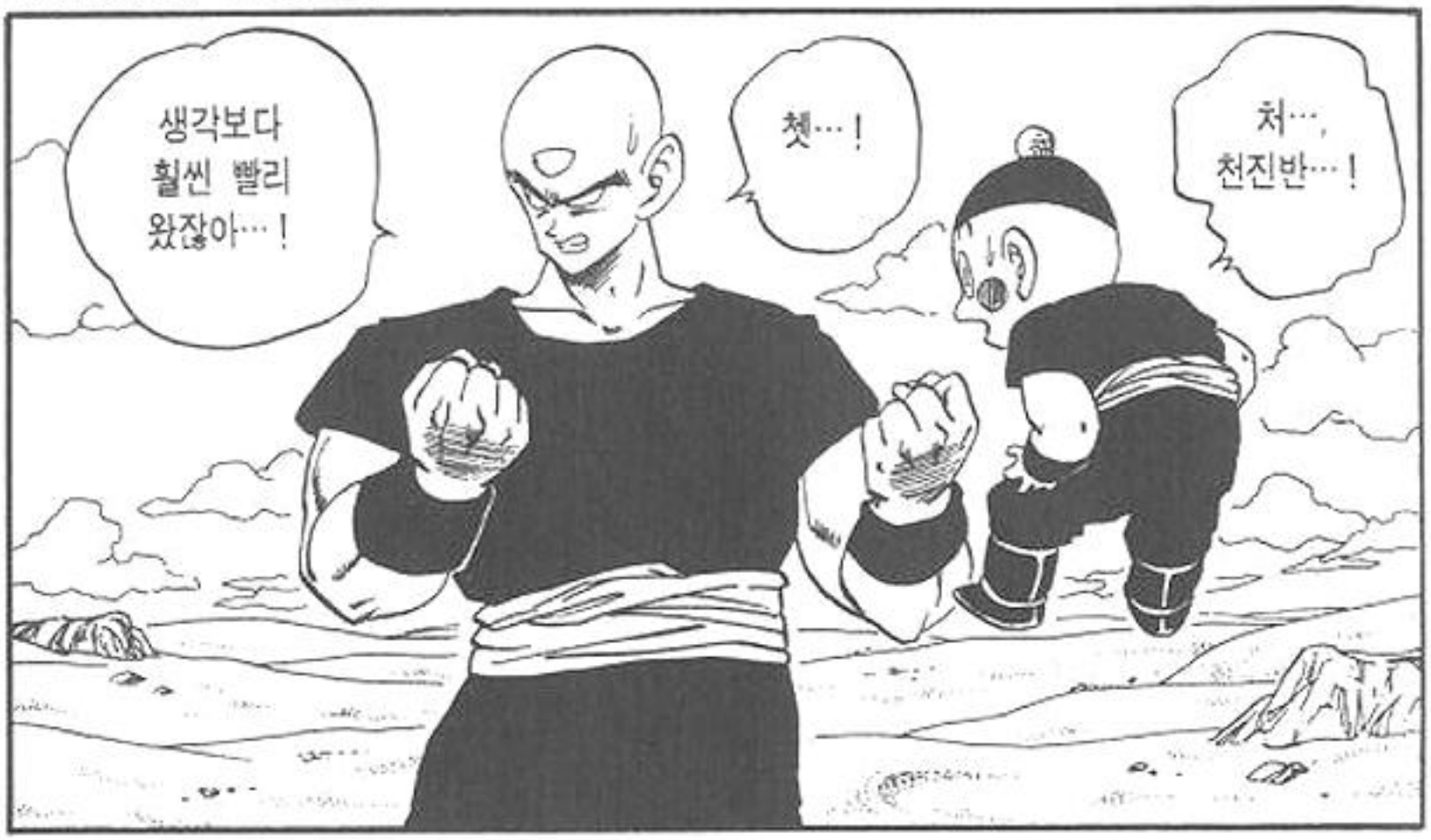
무시무시한 기야….

드… 드디어 왔구나…!!

……!

!!

!!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왔잖아…!
쳇…!
처…,
천진반…!


뭐 하는
애들
이지…!?
웅성…
웅성
저…
저 사람들
뭐야…?


뭐
그런 대로
괜찮네.
지구
라고
했지…


삐약거리는
병아리들한테
인사라도
해줄까나…?




ㅅㅍ
ㅇㅎ




노, 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아,
아니!?


퍽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 이 별의 값이 똥값이 된다구.

일단 이 정도로 해두자, 내퍼….

으하하하!! 우리 인사가 너무 좀 얌전한 거 아냐!?

우선 라데츠를 죽인 놈을 찾아서 구슬에 대해 물어보자구…

드래곤 볼이다!

근데, 베지터! 어떤 소원이든 들어준다는 무슨 구슬도 찾아야지!

그렇군!

그놈이 라데츠를 죽인 놈이야. 어쩜 카카로트의 아들일지도 모르고….

우선 전투력이 가장 높은 놈을 찾아보자.

빡

너의 씰데없는 인사 때문에.

만약에 드래곤 볼이란 게 이 근처에 있었다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이란 소원은 말짱 도루묵이다!

미, 미안해. 그걸 깜박 잊었었군.

어차피 우리 적수가 못되니까. 아무튼 전투력이 가장 높은 놈만 찾아내….

당황하지 마.

이봐, 베지터! 이상한데…! 전투력 1000을 넘는 반응이 한 두개가 아니야! 이런 별에 어떻게….

좋아, 내퍼! 어서 놀러 가자구!

잡았다…! 상당히 높은 반응이 두 개 모여있는걸….

ATTACK

이 지구란 별은 중력이 너무 적어서 몸이 가뿐하게 움직여!

으하하! 이거 재밌겠네!

천진반 애들이 있는 곳인가? 아님 피콜로와 손오반이 있는 곳…?

이미 두 개의 큰 기가 있는 쪽을 향해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

!!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다…! 놈들은 이리 오고 있어!

으!

차오즈! 됐으니까 넌 여기 남아있어!

싫어, 나도 갈래! 모처럼 나도 수련했으니 갈 거야! 천진반이랑 같이!

드…
드디어
왔구나~!

또한, 자진의
진원지라
생각되는 동쪽
도시는 현재
모든 통신이
끊어져 소식을
모릅니다….

…이처럼
오늘 일어난
대규모 지진의
원인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파워 레벨이 너무 차이나….
우리 따윈 가봐야
방해만 될걸….
여기서 이기길 기도나
하자구….

그래…,
그만둬….

야…
야무치 님….
죽지 마요…!

나, 난
죽어도
안 가!

응원하러
안 갈래?
장소는 이걸로
알 수 있어!

모두들
조금만
버텨
다오…!

제, 제발
빨리
와줘…!

손오공…!

오후 0시 20분….

새와 동물들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민감하게 느끼고 이 땅을 떠나기 시작했다….

쓸 것 없다….

우리는 1년 전과 비교하기 귀찮을 정도로 강해졌어….

으, 응…!

아니!? 저쪽에서도 뭐가 접근하고 있잖아…!!

!!

그밖에도 아직 이쪽을 향해 오는 놈이…!

사, 사이어인은 두 명뿐 아닌가!?


오랜만이다, 피콜로….
여어!
사, 사이어인!?
탁
!
휘익


농담도 심하셔….
이래봬도 나 실력이 좀 늘었다구.
훼방이라도 놓겠다는 거니!?
뭐야, 너였냐…? 후후…. 근데 여긴 대체 뭐 하러 왔냐!?


너 아주 늠름해졌구나! 손오공 어렸을 때랑 똑같아!
그래, 크리링이야.
키는 쇳다리지만 강하지? 아빠가 만날 얘기 하셨어!


생각났다! 거북신선 님 집에 있던 사람….


그런 것 같군…. 너 말고도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바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 분명 모두 올 거야. 내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거든.

그치만 피콜로 아저씬 생각보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음….

근데 너, 피콜로 같은 애한테 수련 받느라 괴로웠지…?

우리랑 같이 싸워줄 거야!?

숏다리라니…, 쓸데없는 소리를…. 그 녀석…, 키 좀 컸다고 세게 나오네….

왔다!!

잡소리 그만 해!

!!

크흐흐…. 저기 있구나…! 강해 보이는 놈이 한 마리 더 늘어서 세 마리….

아무래도 우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걸….

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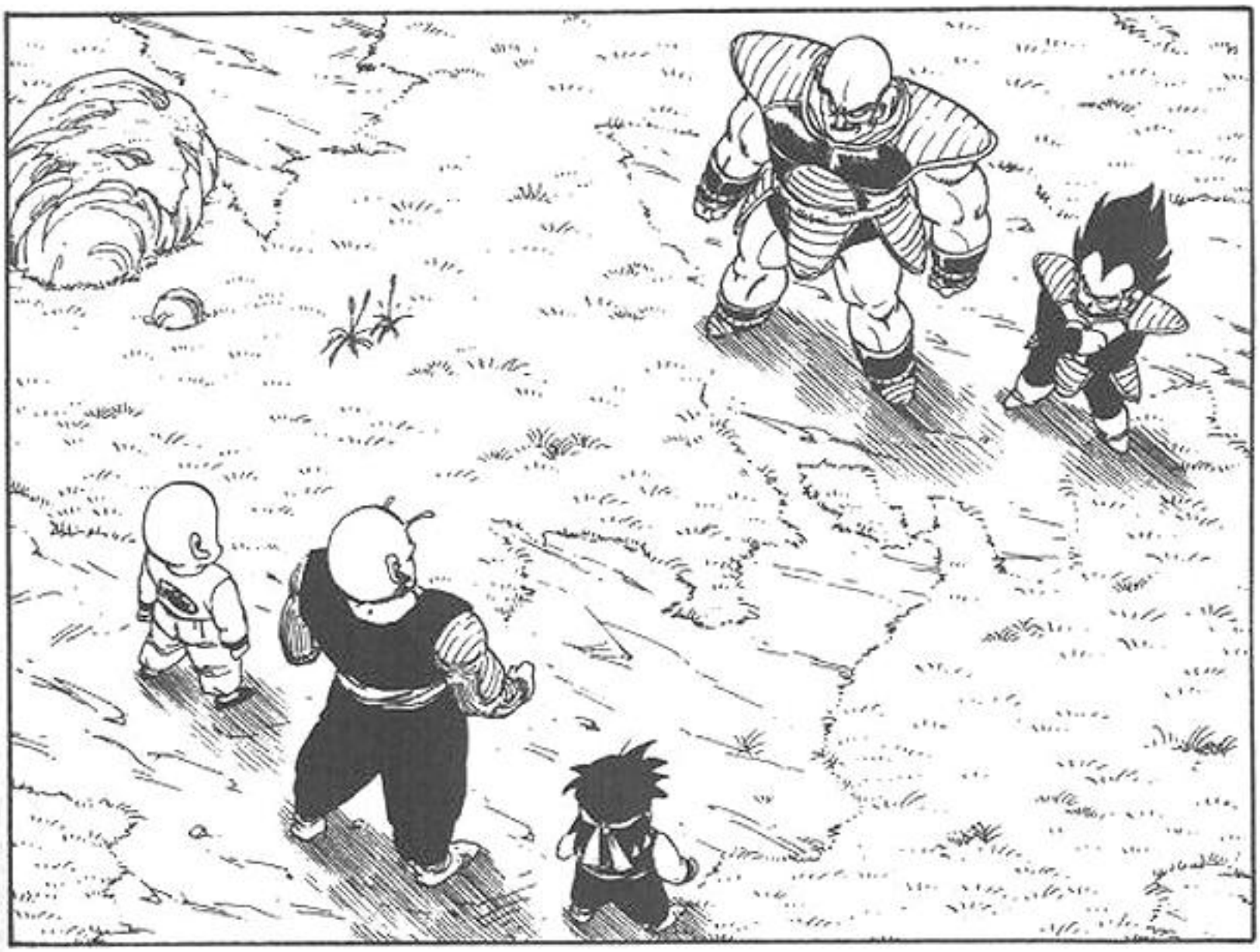
저…, 정말 무자비하게 강한 기가 느껴지네…. 지…, 진짜 무시무시해….

저… 저놈들이 사이어인 인가…?

그렇다….

역시나, 우릴 기다리고 있었나 봐….

다음은, 제214화 베지터의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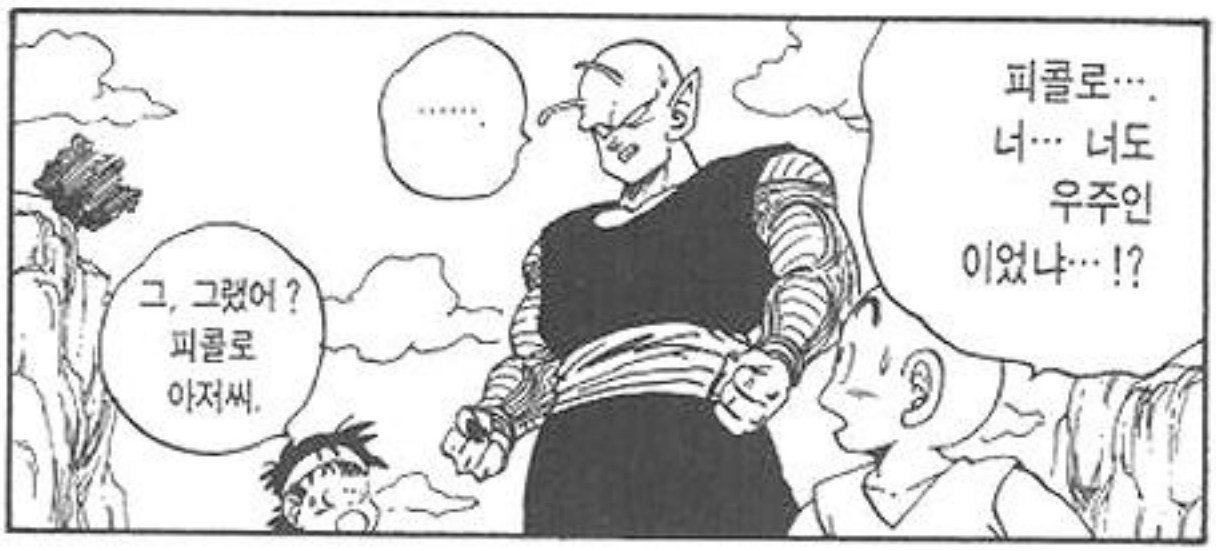

저 목소리….
그래, 저놈이
라데츠를
죽인 놈이지?!


여기는 대체
뭐 하러
왔나…?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건데….


이건
통신기
역할도
하거든.
라데츠가
말 안
했나?


목소리
…!?


!?
그래…,
라데츠 녀석이
당한 것도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군…
저 녀석,
나메크
성인이네…


……
그, 그랬어?
피콜로
아저씨.
피콜로…
너… 너도
우주인
이었나…!?


나메크
성인…?


드래곤
볼인가 뭔가
하는 걸
만든 것도
네놈
이구나…!
알았다! 나메크성인은
뛰어난 전투력 외에도
이상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구…!
마법사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놈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나메크
성인이라 해도
한 마리 정도로는
우리한테는
하룻강아지나
마찬가지야.

그 드래곤 볼이
첫번째 목표다!
우리한테
넘겨라!

드래곤 볼에
대해서까지
알다니…!

드…,

그치만 이거
미안한걸….
드래곤 볼을 만든 건
내가 아니다….
난 싸우는 쪽이
전문이야….

흥…! 고맙군.
덕분에 내 조상에
대한 걸 알게
됐으니 말야….

한 번
붙어
보자구!

하룻
강아지
인지
어떤지
….

척

신님
….

모…,
몰랐어….
내가 우주인
이었다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구나….

아마 나메크성이란 별에도 누군가가 만든 드래곤 볼 비슷한 게 있었겠지…. 먼 조상의 기억이 내게도 남아 있었던 거야….

그 옛날 드래곤 볼을 만든 건 분명 나였어…. 그렇지만 처음 만드는 건데도 느낌이 이상하게 친숙했어….

이 멍청이들! 그 정도 전투력으로 우리한테 개기겠단 거냐…!?

981…, 1220…, 1083….

삐삐삐

팟

팟

드래곤 볼에 대해선 말 못하겠다 이거군…. 좋아! 힘으로라도 실토하게 해주마….

뭐?

내퍼! 스카우터를 벗어!

이런 숫자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놈들은 전투에 따라 전투력을 변화시킨다.

겁쟁이에 얼빵이 라데츠놈은 스카우터의 숫자만 믿고 방심하다 당한 것 같으니까.

쓰읍

얘길 듣고보니 그렇군….

하하….

겁쟁이라….

라… 라데츠라면…. 오공이랑 협공해 간신히 처치한 사이어인 아니니…?

……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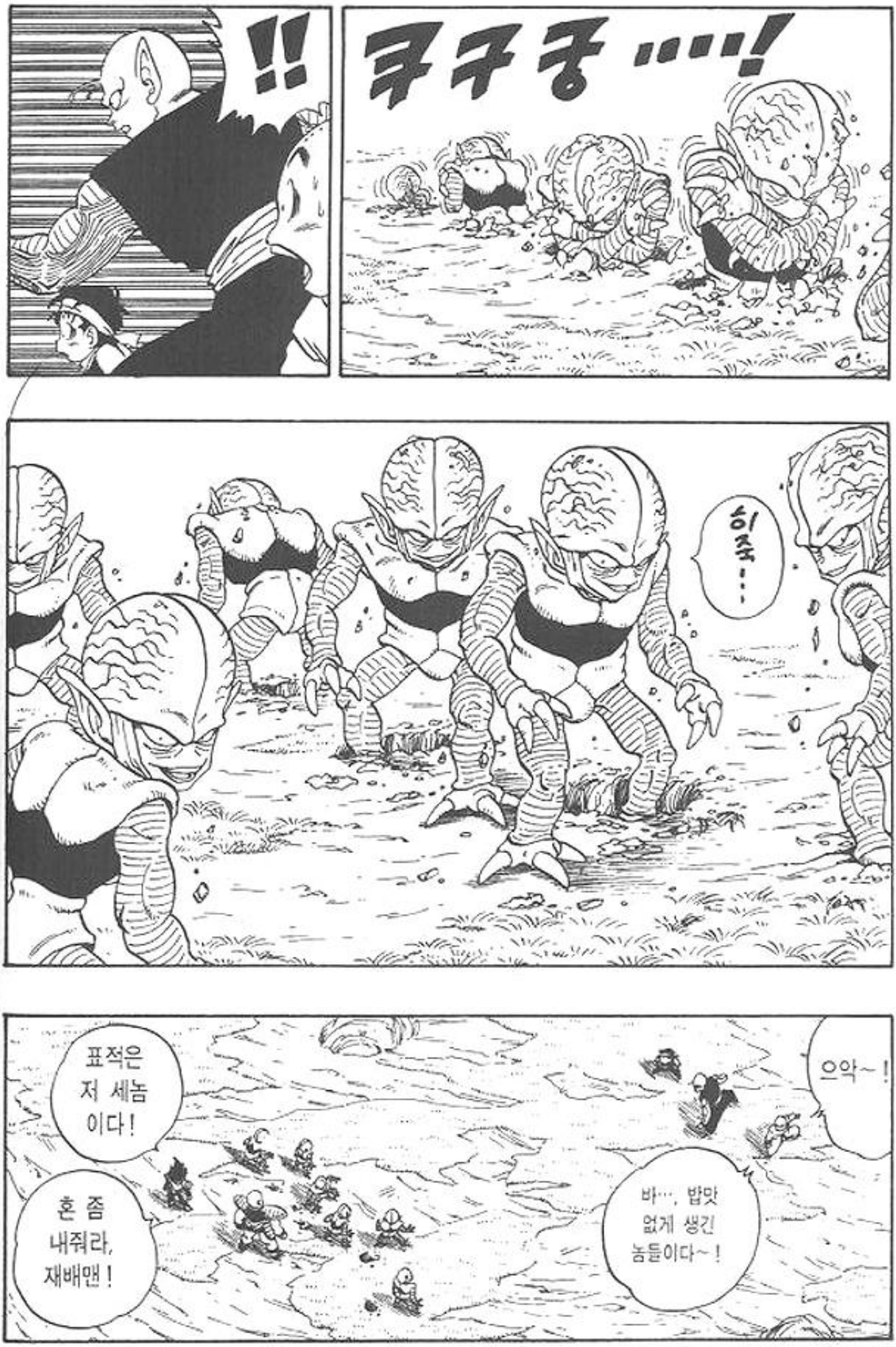
겁쟁이 라데츠라고…?

좋아. 저놈들 실력 좀 볼까? 그러면 드래곤 볼에 대해서도 입을 열고 싶어질 거야….

이봐, 내퍼! 재배맨이 여섯 알 정도 남았지? 꺼내봐.

흐흐흐…. 베지터. 너도 장난이 지나치다….


재배맨…?
그… 그게 뭐지…?
뒤적 뒤적…
그래. 정확히 여섯 알이군.
이 땅 이라면 좋은 재배맨이 자라겠어.
쿠욱 쿡
투둑 둑…
쏙…
쩌리ㅅ 쩌리ㅅ
됐다…
훅
아니, 뭐 하는 거야…?
불쑥
불쑥 불쑥…


!!
쿠쿠궁…!
히죽…
으악~!
바…, 밥맛 없게 생긴 놈들이다~!
표적은 저 세놈 이다!
혼 좀 내줘라, 재배맨!

그래….

이, 이놈들도 꽤 강해 보여…!

!

엥!?

천진반! 차오즈도!

타닥


아무치!
안녕! 좀 늦었어.
탁!
어!?


피라미들이 말야….
이런, 이런! 그쪽도 쪽수가 많이 늘었네.


여섯 마리라…. 이거 재미있군! 마침 재배맨과 같은 숫자네….
야들아, 우리 병사와 한 마리씩 순서대로 싸워보는 건 어때?
게임 이다!


사이어인은 두 명 아니었나?
뭐, 그냥 보너스로 늘어났어….

그런 쓰잘데 없는 수작 말고 단숨에 승부를 내자!

게임이라고!? 저놈들, 정신 못차리네…!

자, 덤벼라!

좋아! 나부터 싸워주마!

뭐 좋잖아! 우리한텐 오히려 유리하지.

오공 녀석도 아직 안 왔고!

너부터 가라!

처, 천진반! 힘내!

힘껏 싸워, 알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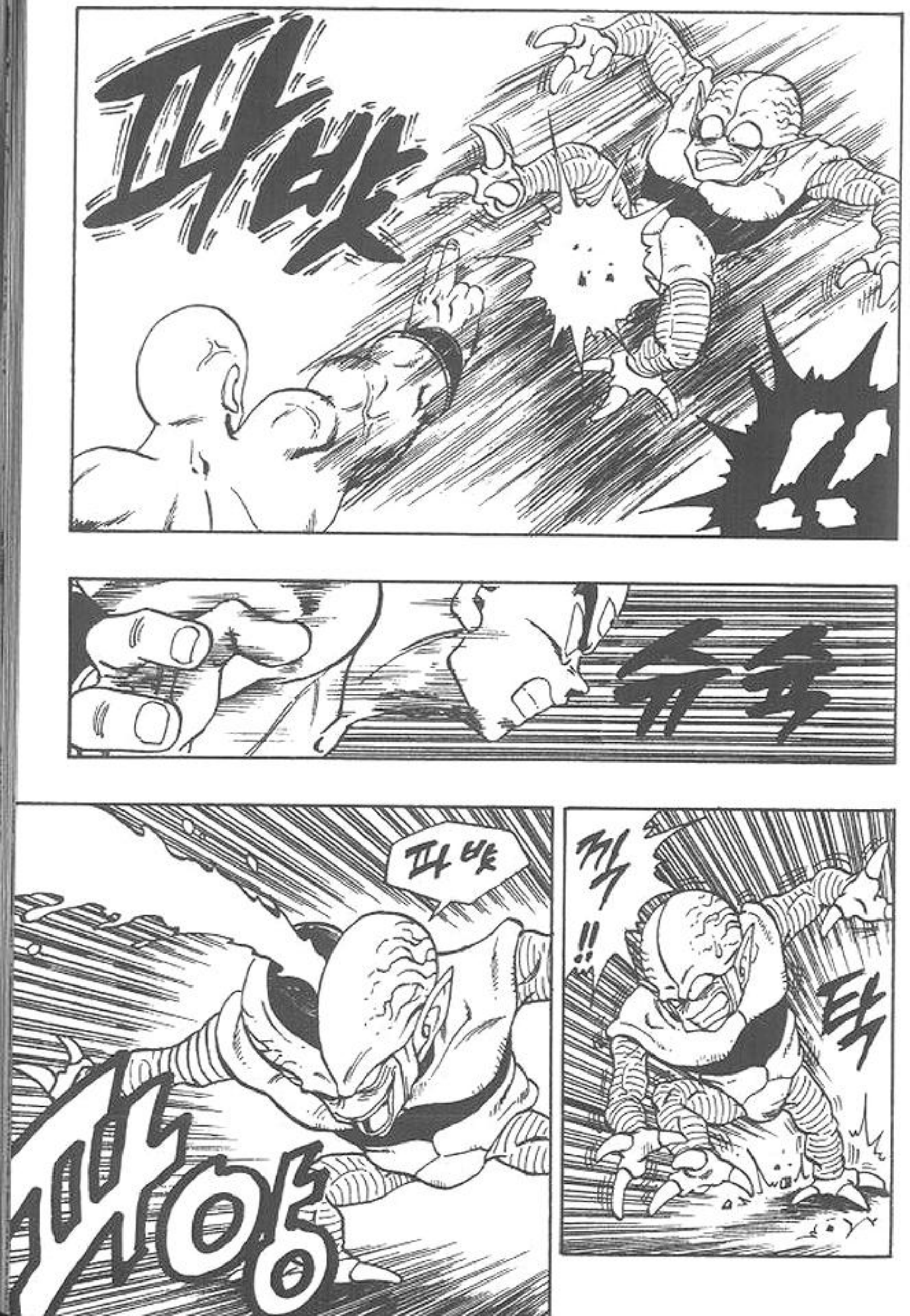
으하하…! 저 녀석, 재배맨이 얼마나 강한지 알면 기절초풍할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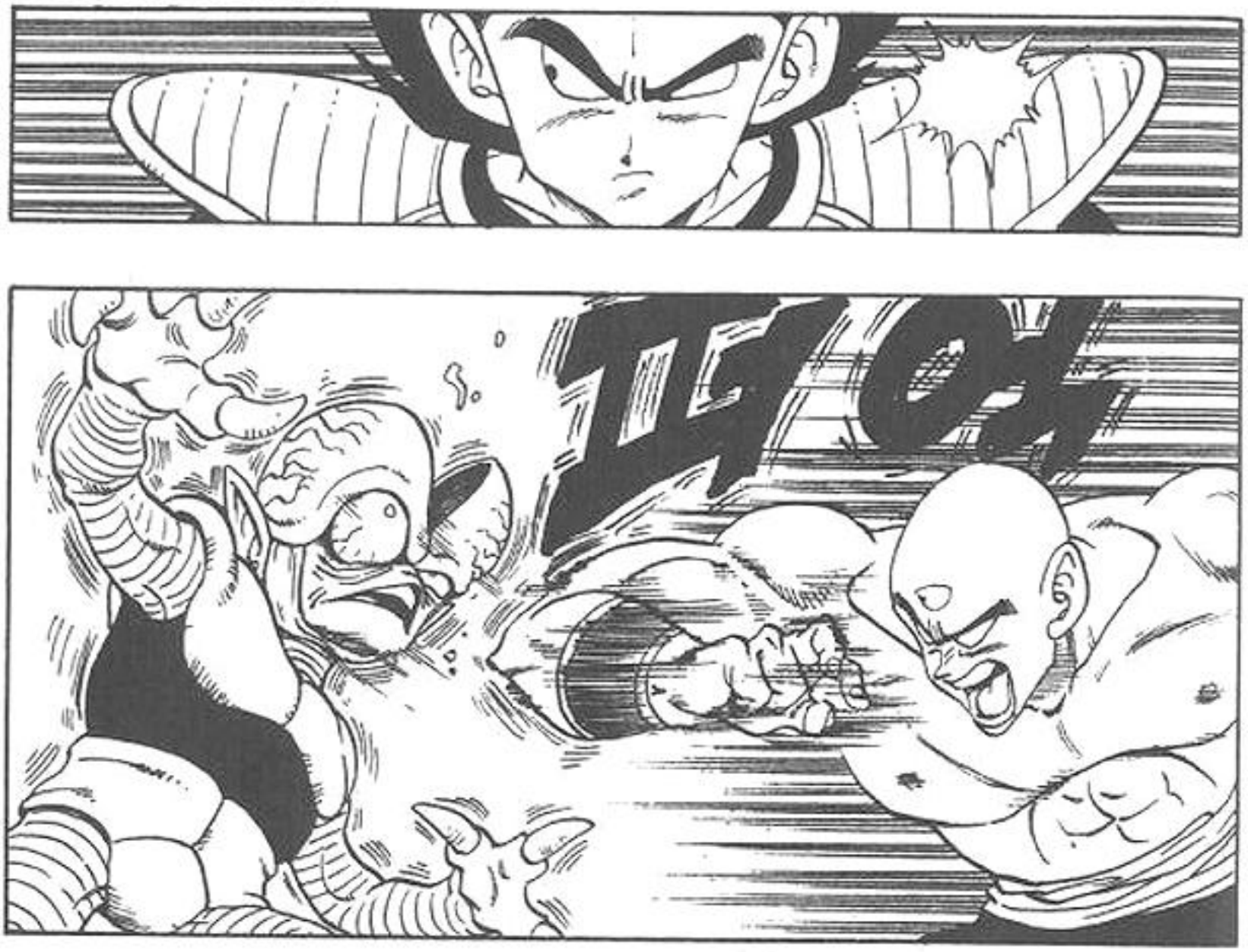

끼에에에


질풍


하압!!


파밧
!!
파밧
!!


슈슉
앗!!
파지직
슈우우!!
슈우우우…
옴마야!!
하아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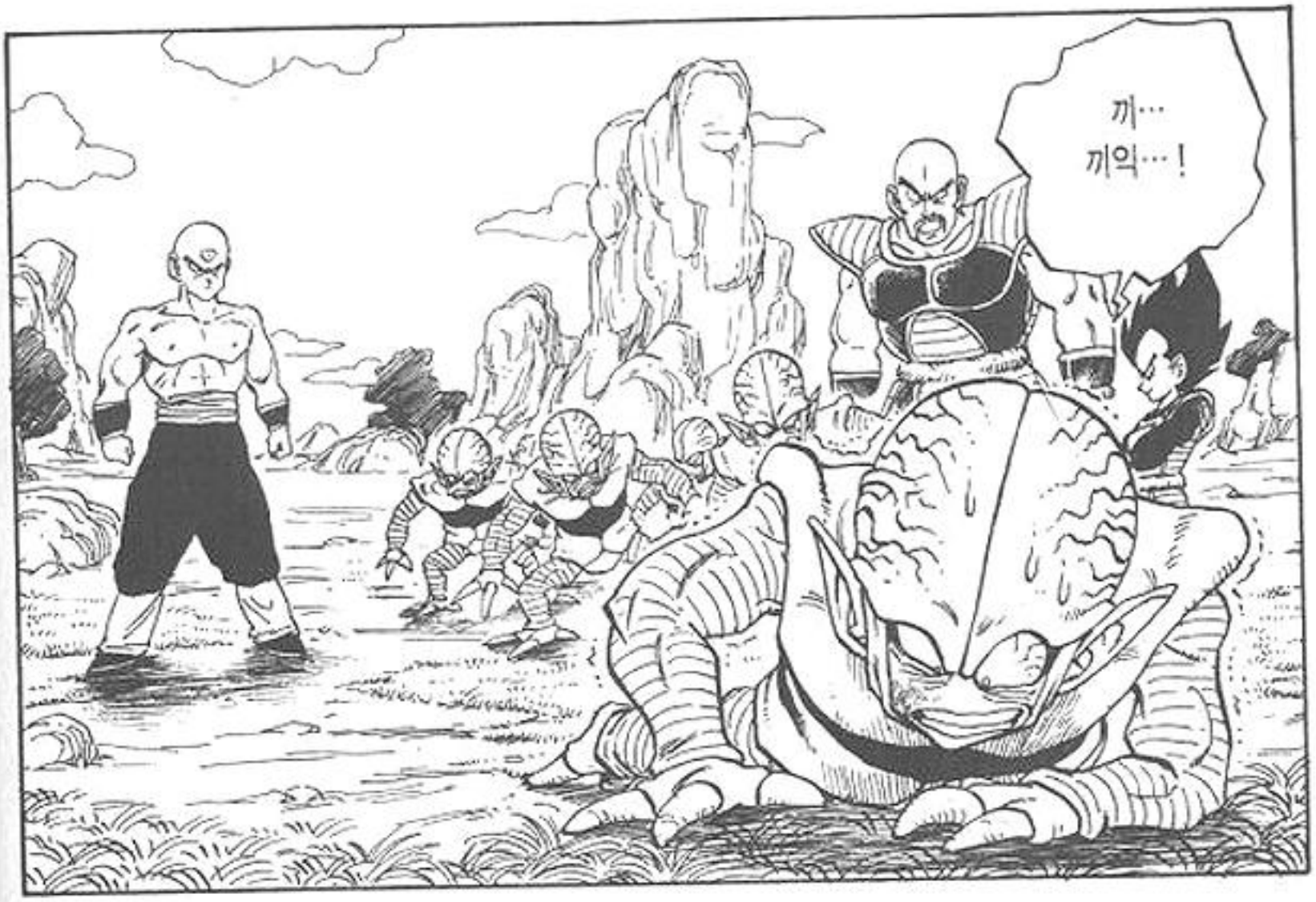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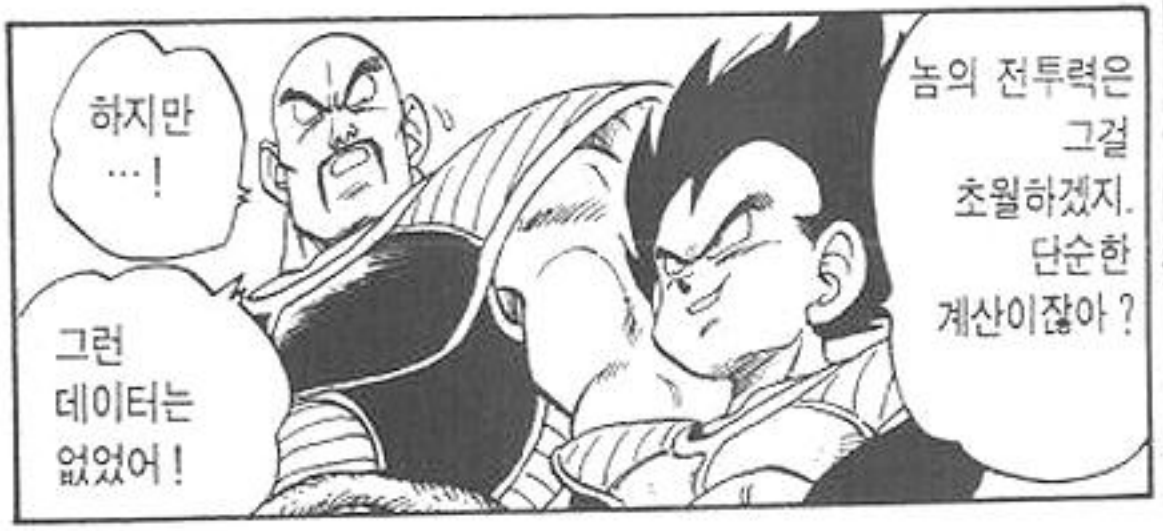


다음은, 제215화 야무치의 예감


끼…
끼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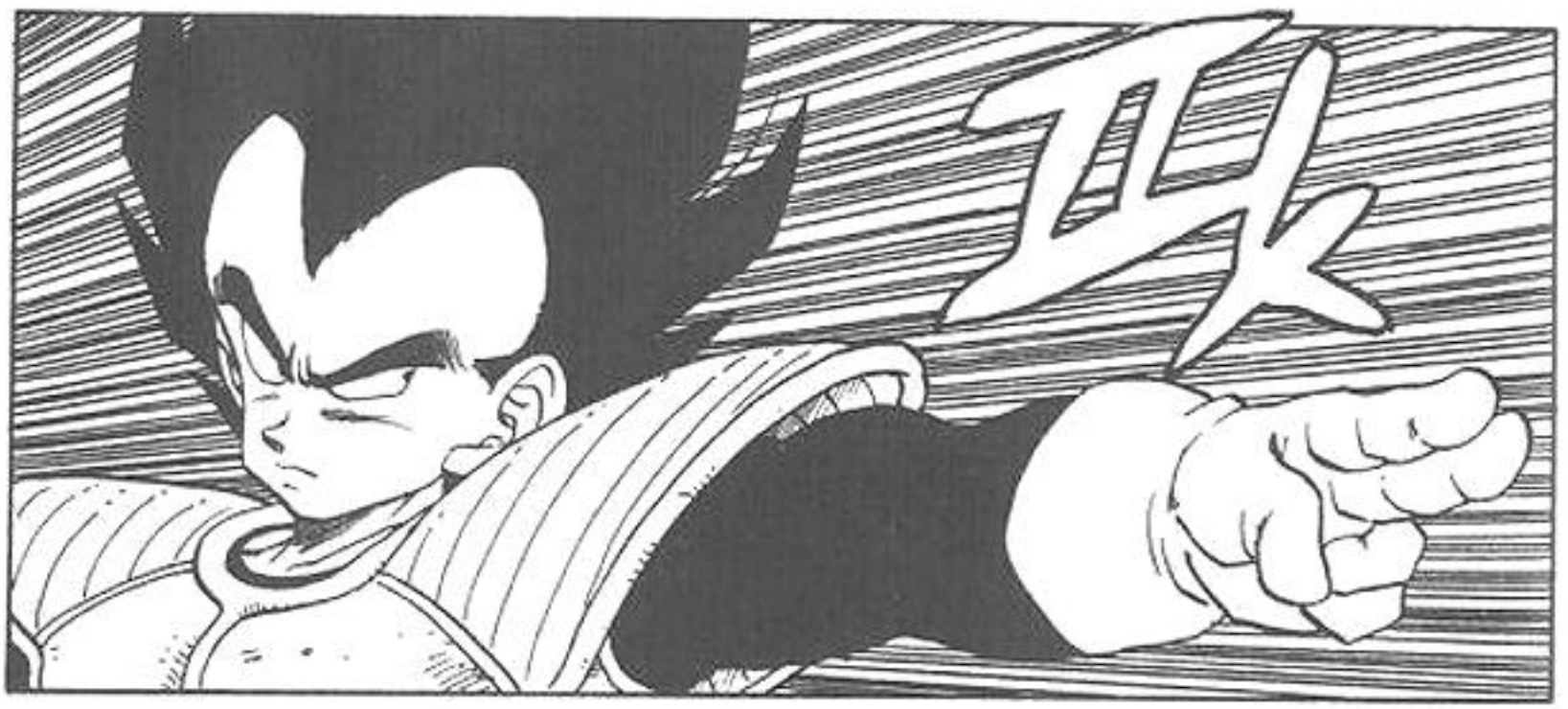

이, 이럴 수가…!!
재배맨의
전투력은
1200이라구…!
파워만 따지면
라데츠와
대등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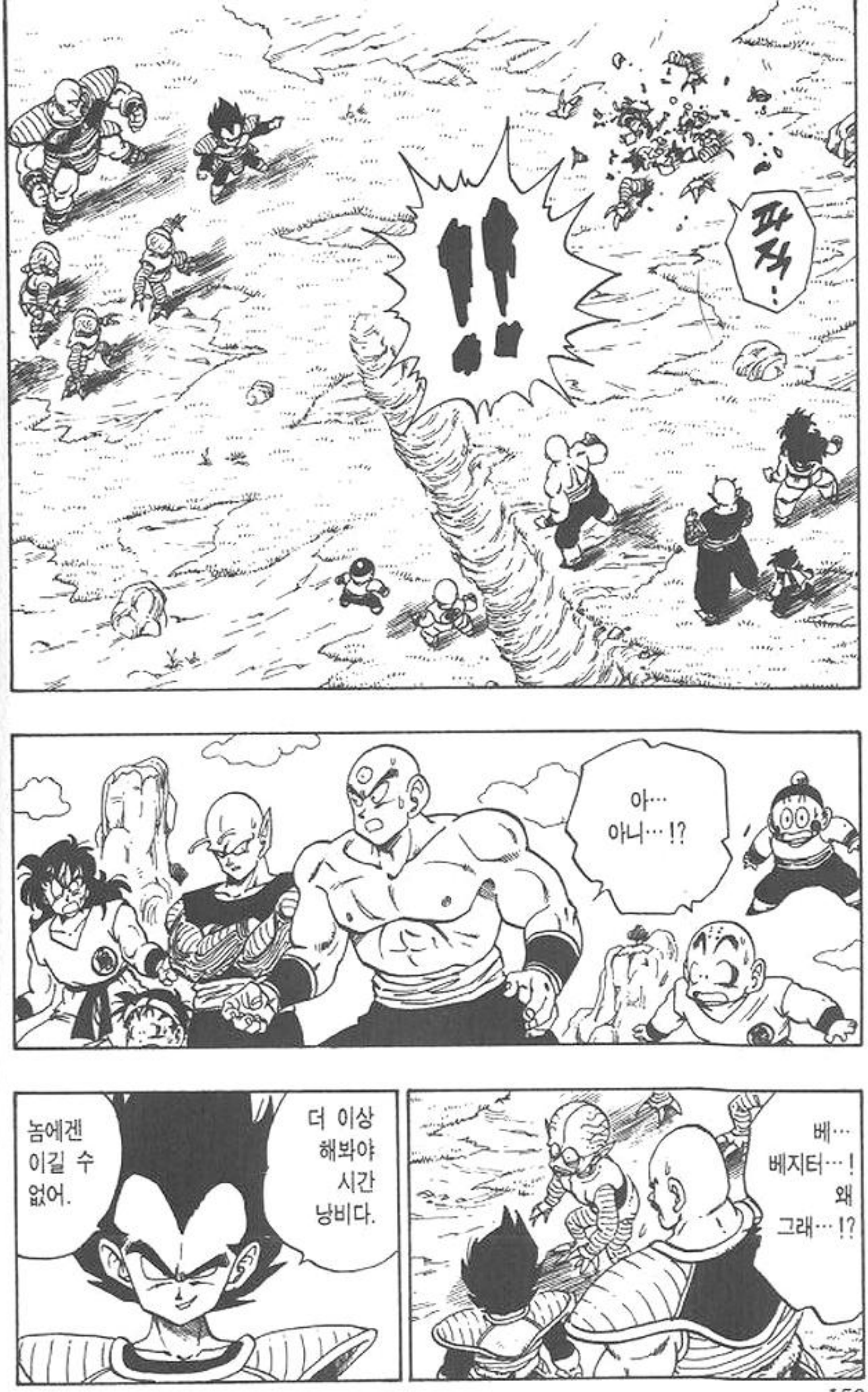

하지만
…!
그런
데이터는
없었어!
놈의 전투력은
그걸
초월하겠지.
단순한
계산이잖아?


천진반,
저놈이
일어났어!


끼이…!


퍽


퍽


!!
파직!
아… 아니…!?
베… 베지터…! 왜 그래…!?
더 이상 해봐야 시간 낭비다.
놈에겐 이길 수 없어.


게다가
저 재배맨은
처음에 상대를
너무
얕봤다구….
내가
말했지?
힘껏 싸우
라고….


저…
저 사이어인은….
순식간에 괴물을
박살내다니…. 무서운
파괴력이다….


아…!
뭐,
저딴 게
다 있어…?


조,
좋아~!


니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싸워!
자,
다음은
언놈이냐?


이제 장난이
아니란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거든.
나한테
맡겨줘.

자,
와라!

크리링은 이미
한 번 드래곤 볼로
되살아났잖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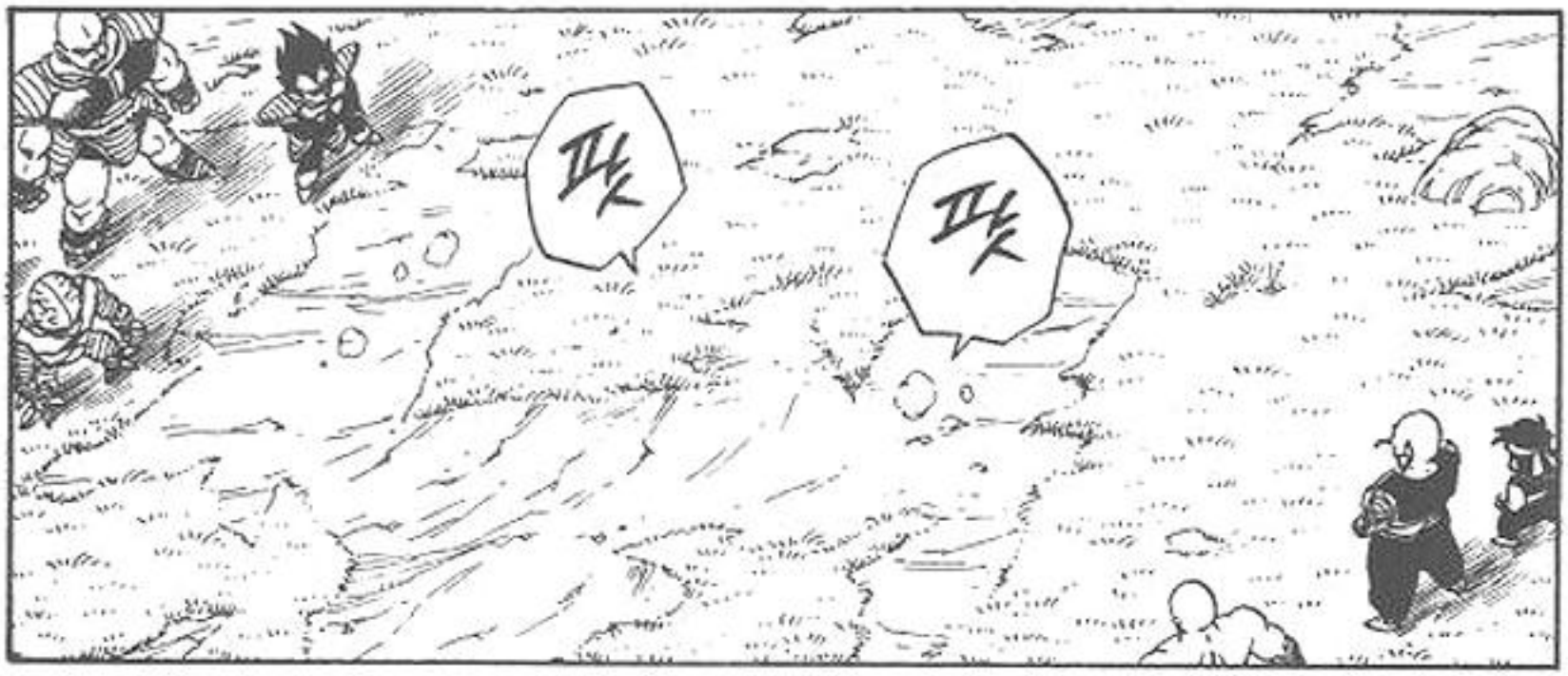
야무치,
그건 나도….

헷!
멋대로
까부는군.

자, 재배맨의
진짜 무서움을
보여줘라!

끽!




파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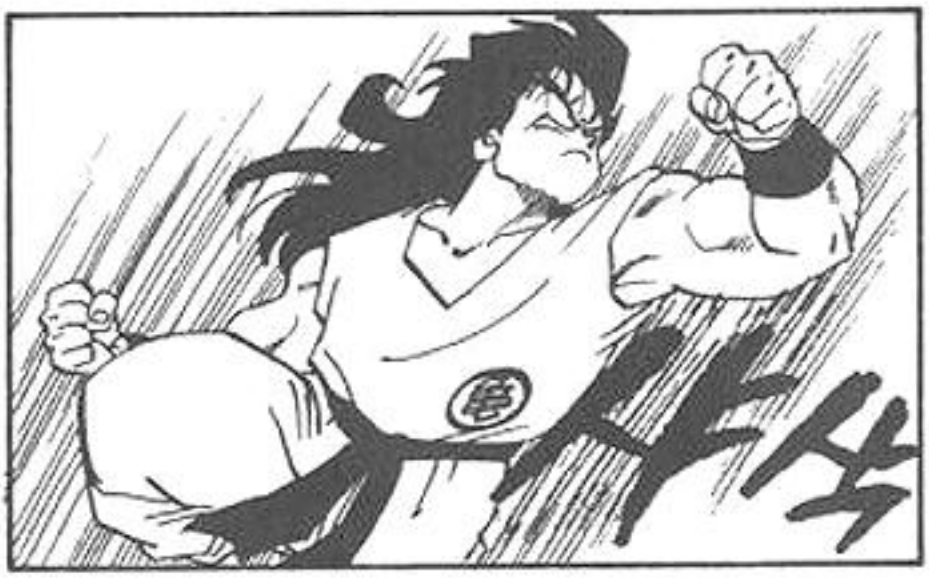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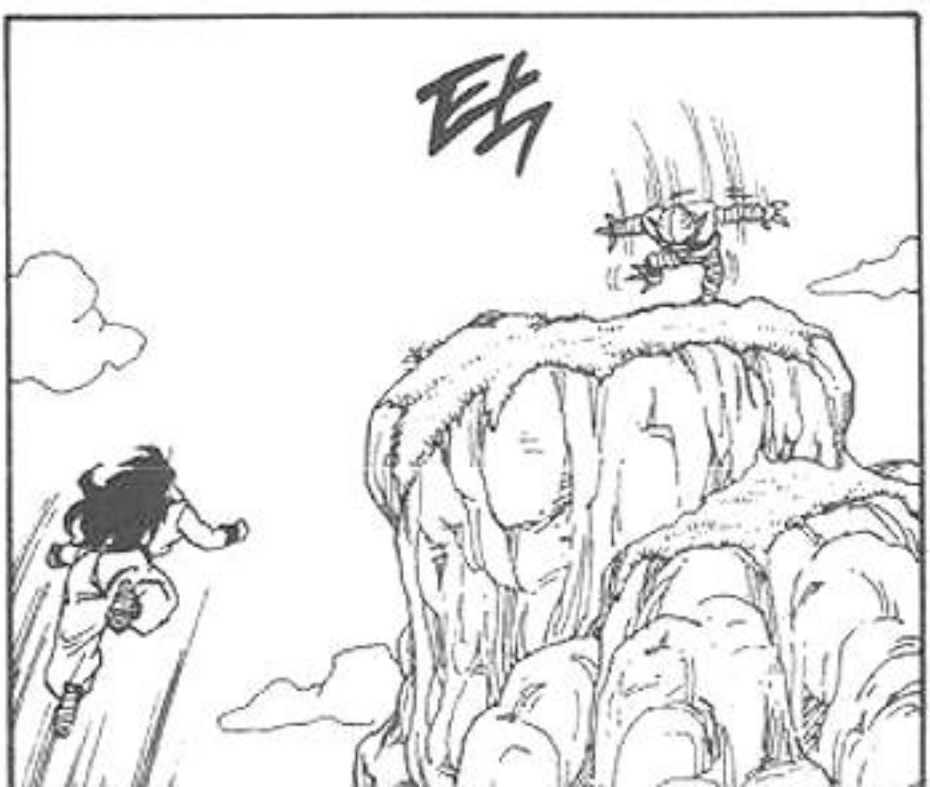

사라
졌다!
앗!


바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기의 움직임을
잘 느껴보라구!
너 배고
모두 잘
보고
있잖아!


ドド


ゴゴゴ
ゴゴゴゴゴ


ドド


ドド

!!

캬욱!!






터—…영
ㅎㅎㅎ


또야…?




나머지
네 마리도
나 혼자서
청소해
주마….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 괴물들은
강하지 못한
것 같네.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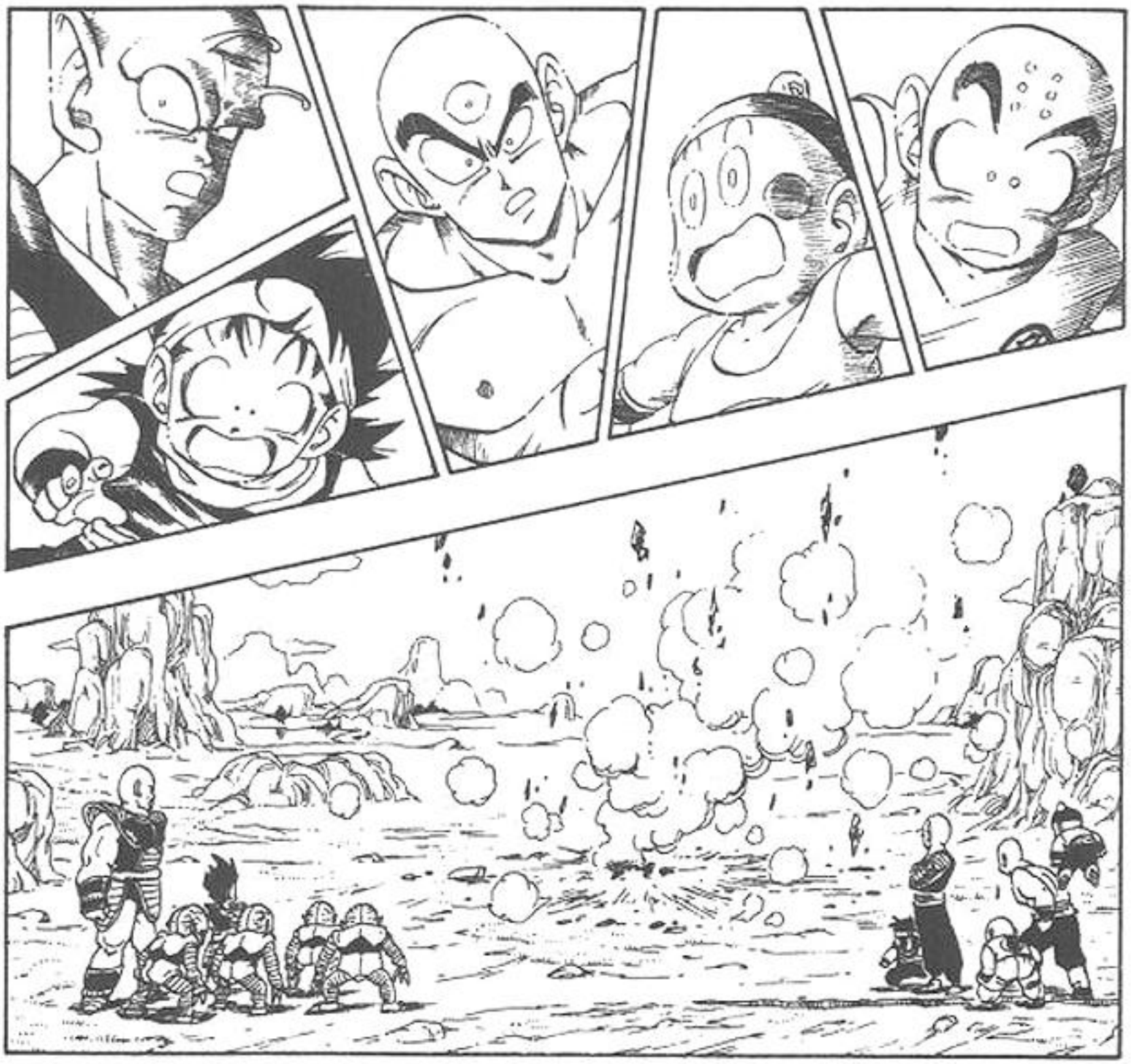

!!
더
버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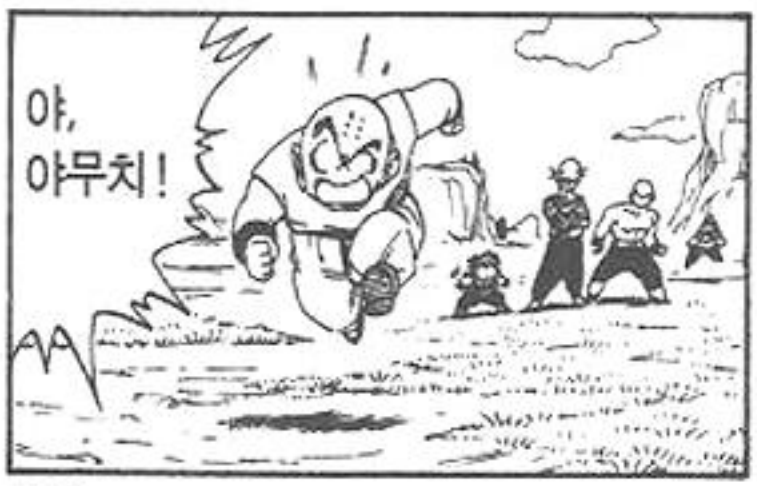

크크큭
….
이번에는
니들 쪽이
착각한 것
같은걸….


꽈드득…


앗!
힐죽...




자폭까지
하다니
….
엄청난
놈이다….


야,
야무치!




씨
야
그래…,
잘 한다.

죽었어….

……

제… 제길…!
푸알이랑 부르마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좋을지….

야… 야무치가
분명 불길한
예감을 느낀
거야….
그… 그래서
내 대신….

이…
이놈들!

……!!

멍청한
재배맨 자식!
자폭이라니!
저런 피라미들을
상대로 뭔
짓이야!?

모두들
물러
서봐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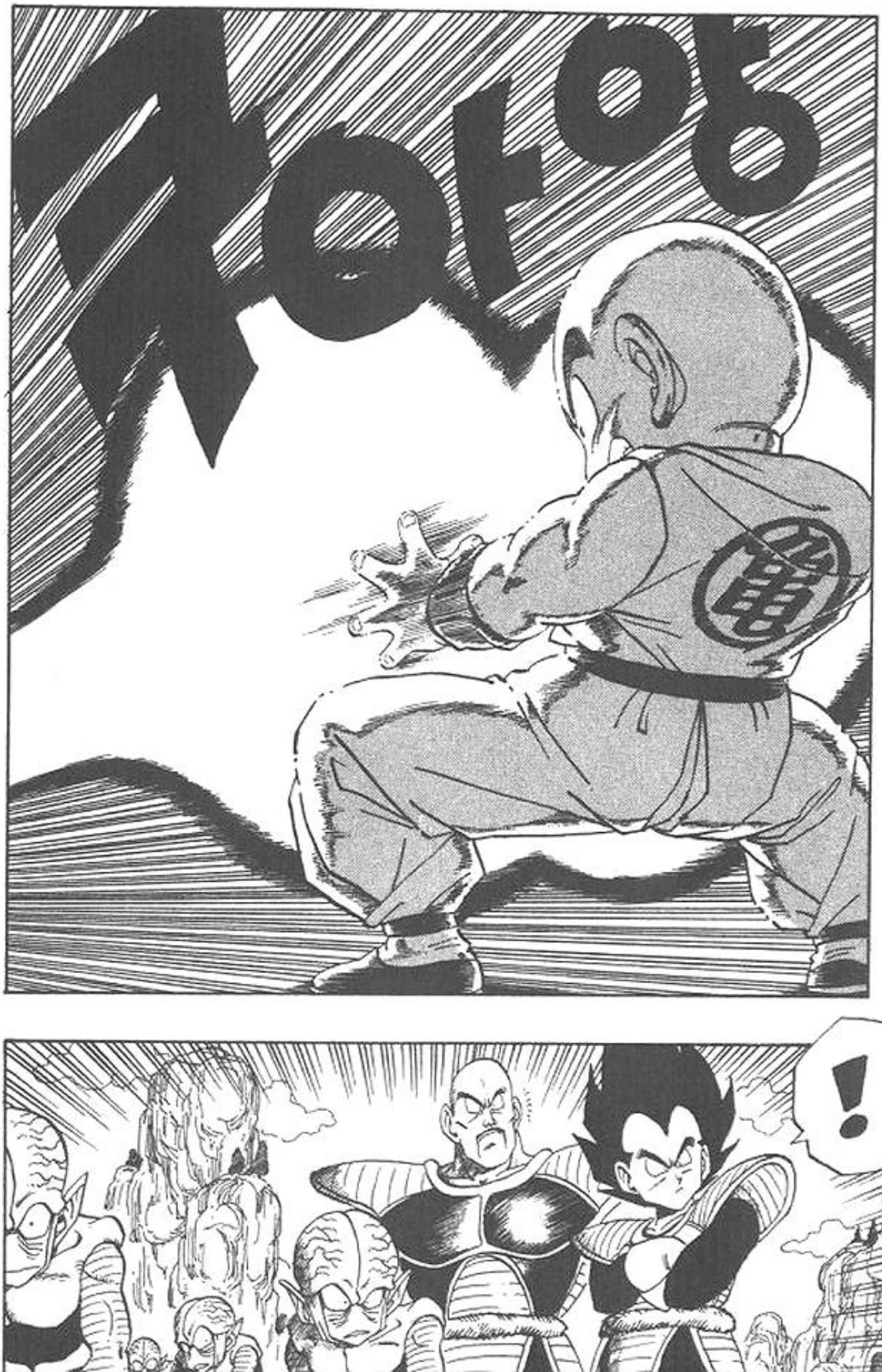
어이!
지저분하기만
하니까
그 똥나무 좀
치워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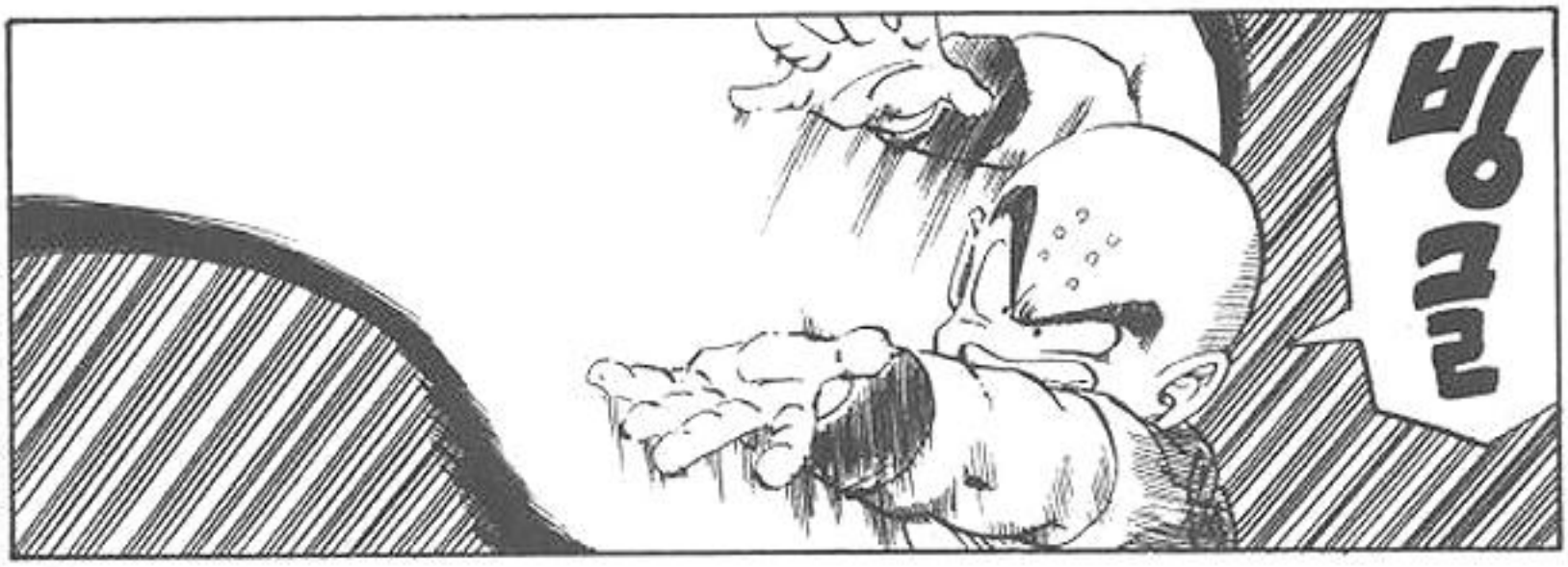




다음은, 제216화 두려움에 떠는 전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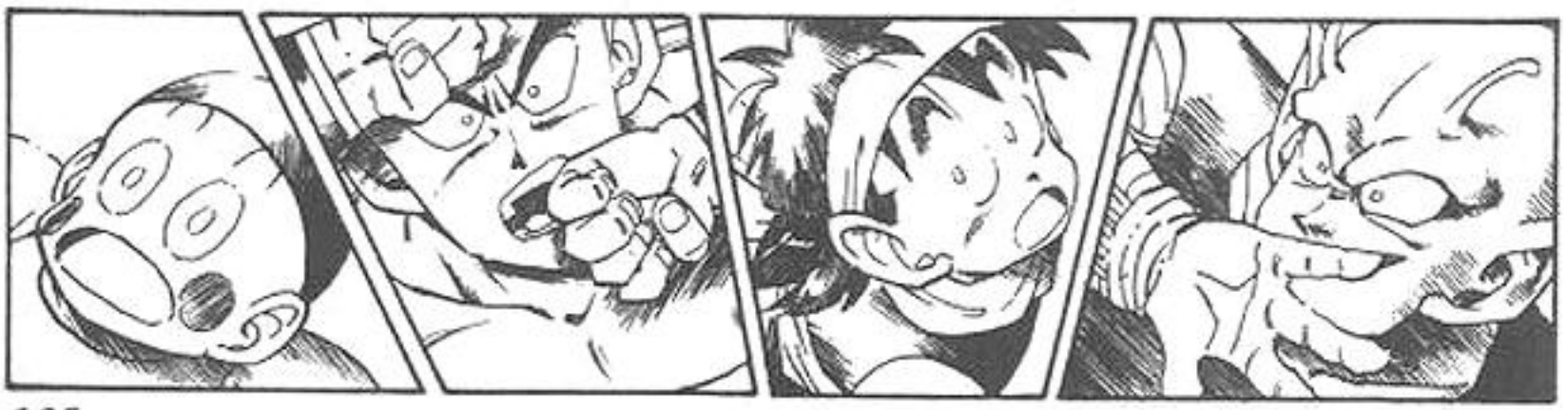



피해, 차오즈!
자칫 말려 들겠다-!!
무서운 에너지지만 스피드가 없어!
마치 피하라는 것처럼…!
파바바
씨익


빙글


휘잉
핫!!!


ボキ




쾅
쾅
쾅
쾅
쾅


ヌOOOH
ヌOOOH
ヌOOOOOH……OH

헤헤…. 한 마리가 빗나갔군….

헉헉

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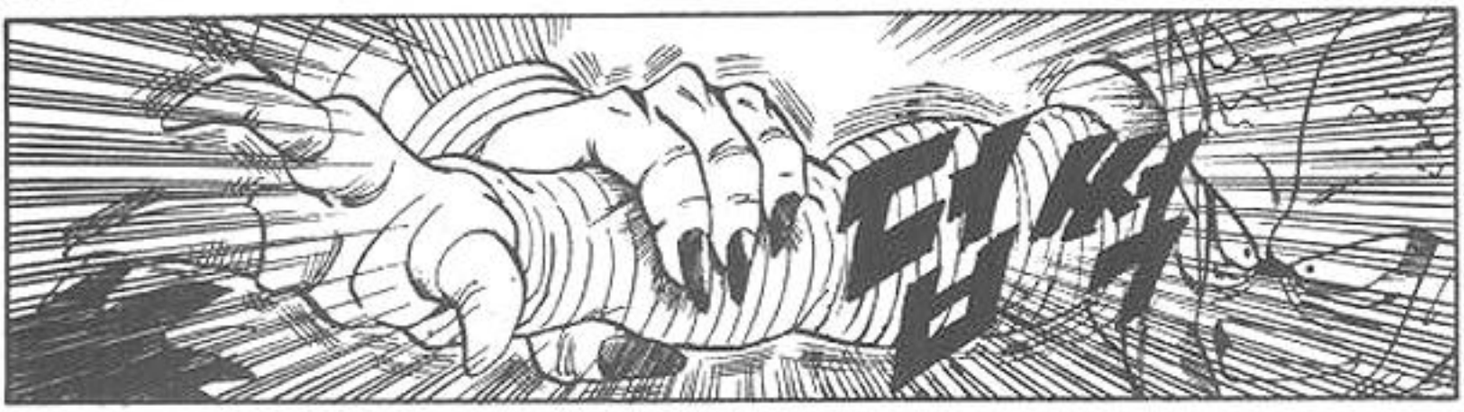
우와….

정말 대단하다…!

!!

퍼억

큰일났다, 놓친 놈이야!


탕!!


빌어먹을 자식!
끼익!!


TECH




부우웅


구아앙


언젠가
다시 적이
되리라는 걸
생각하면
무서워
미치겠어…
여…,
역시
피콜로
다…


우와
…




착각
하지 마!
고…
고마워….
피콜로
아저씨….
너 따윌
내가
구할 것
같냐?

이제부터 시작되는 무지막지한 싸움을 위한 워밍업이라구….

앗…!

큭… !!

!!

크크크 ….

무지막지한 싸움이 된다고… ?

그럼 슬슬 네놈들 소원대로 장난은 끝내기로 하자….

크히히히… ! 드디어 진짜 결투로군 !


제… 제대로 먹었을 텐데….
세… 세상에나…. 전혀 효과가 없어….


저… 저런 게 사이어인 이구나…!!
나…, 난 풀파워로 공격했는데 …!


제발 날 좀 즐겁게 해달라고….
흐흐흐 ….


나한테 맡겨줘. 눈 깜짝할 동안 다섯 놈을 한 방에 청소시켜 주마.
니 맘대로 하셔.

우…
우욱…!
천지가
진동
하잖아…!

하아아아
아아…!

이…
이런!

처、천진반!!
내, 내
초능력이
말을
안 들어!

이 정도
파워일
줄은!

으…!
으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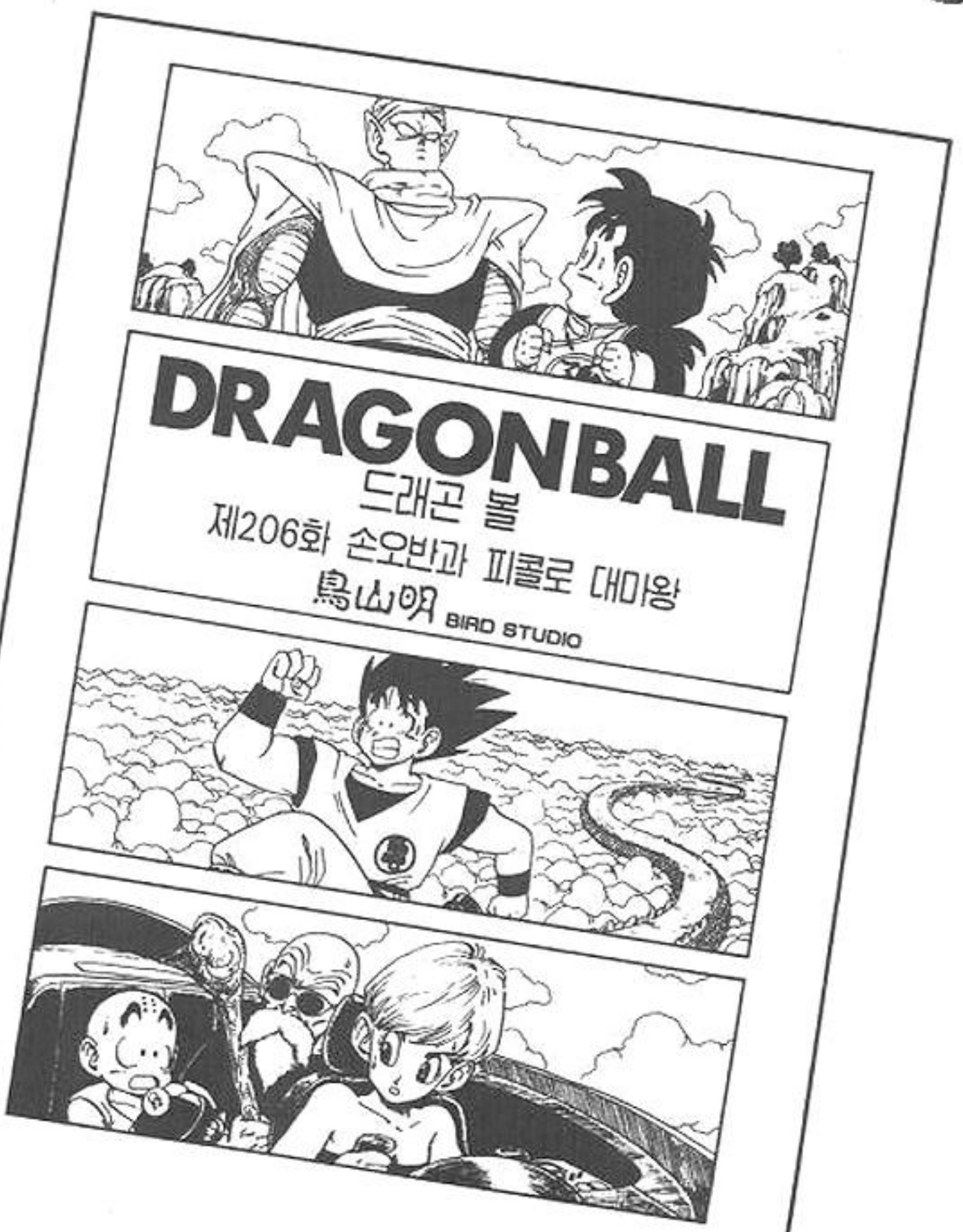


18 손오반과 피콜로 대마왕(끝)

canned by raprnb

표지 페이지 대특집 XVII

압도적 파워의 사이어인!!
처절한 전투의 불꽃이 마침내 점화되었다!!
오공이 올 때까지 모두들 버텨내라!! 빨리, 서둘러다오!
오공!! 숨막힌 상태에서, 주간 점프에 실린
그대로의, 표지 페이지 대특집!!



DRAGON BALL

제207화
울부짖는 손오반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 明
BIRD STUDIO

드래곤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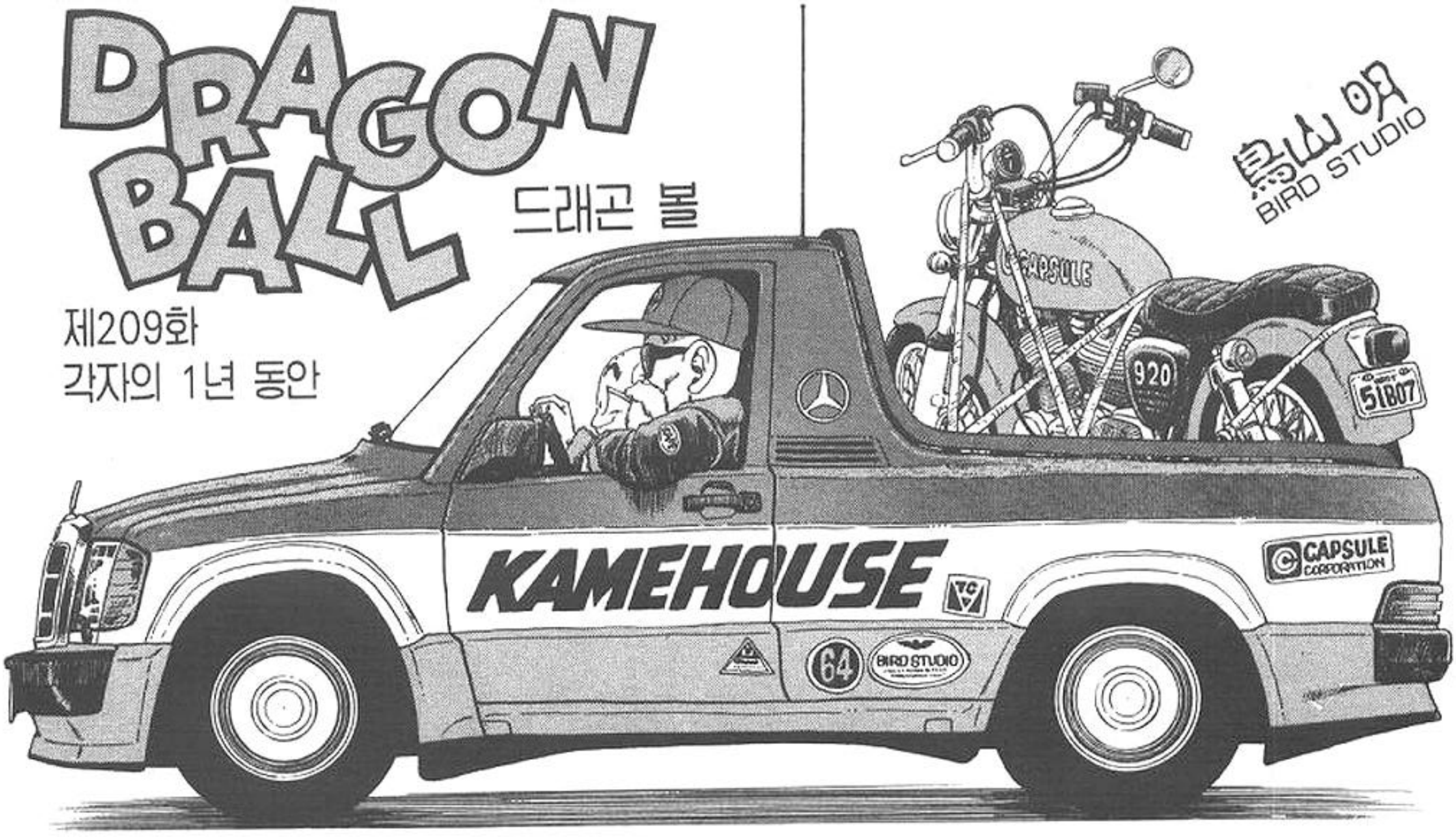
제208화 보름달 사건

DRAGON BALL

드래곤 볼

鳥山 明
BIRD STUDIO

제209화
각자의 1년 동안



DRAGON BALL

제210화 부자 2대의 거친 수련





AKIRA TORIYAMA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鳥山明
BIRD STUDIO

제211화 계왕님과 열심히 수련하는 죽인 손오공!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12화
사이어인의 접근!!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13화
사이어인의 침공!!



鳥山明
BIRD STUDIO

DRAGON BALL

드래곤 볼

제214화
베지터의 게임

鳥山明
BIRD STUDIO

공격의 얼굴!!
수비의 얼굴!!
초전사의 얼굴!!



raprnb

제215화 악무치의 예감



BIRD 鳥山明 STUDIO

DRAGON BALL

제216화
두려움에 떠는 전사들



鳥山明
BIRD STUDIO